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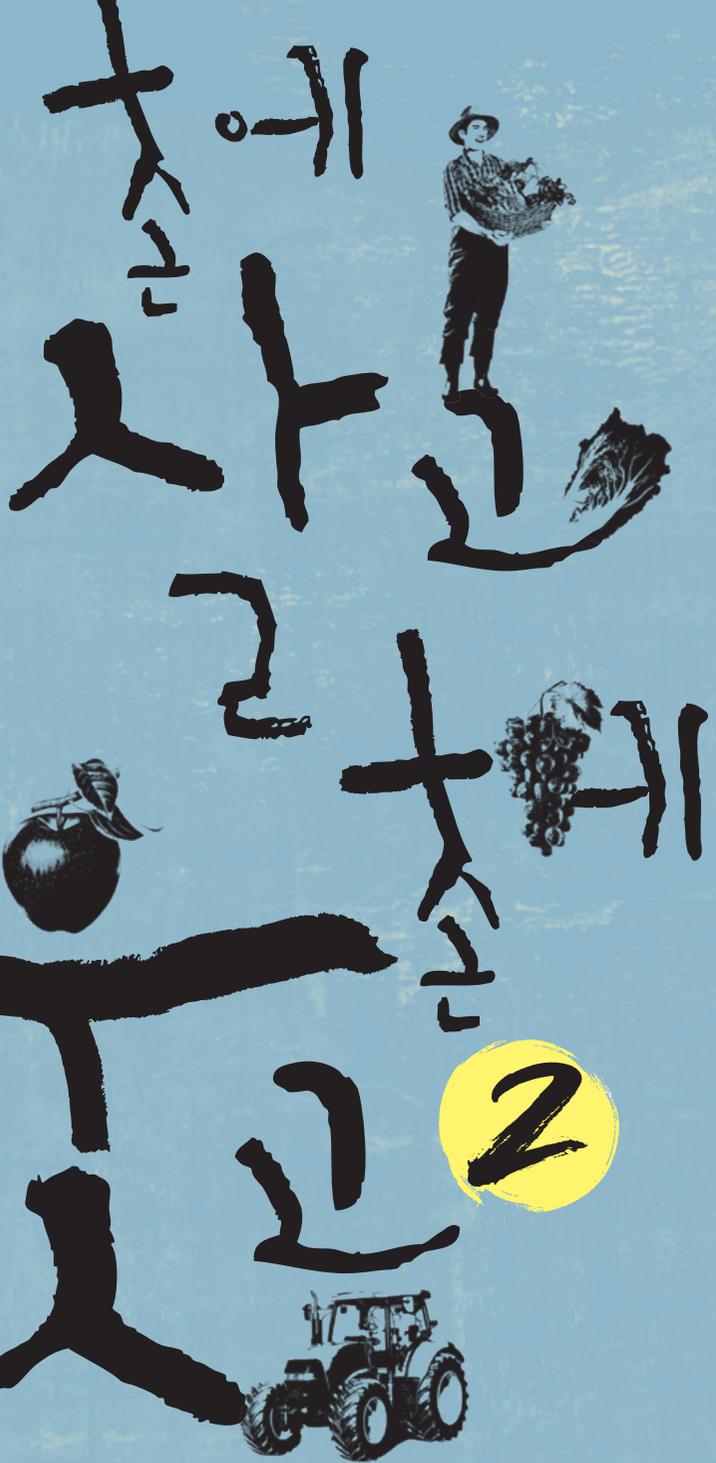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221-01

귀농·귀촌 15인의
희망체험 수기

귀농·귀촌 15인의
희망체험 수기

귀농·귀촌 수기모음집

귀농·귀촌 15인의
희망체험 수기



귀농·귀촌 수기모음집 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발행일 2013년 10월 24일
발행처 농림축산식품부
편집·기획처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431-80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20-3(관양동)
Tel. 031-460-8925/8928/8930 Fax. 031-460-8934
디자인·제작 한국농어민신문
Tel. 02-3434-9000, www.agrinet.co.kr

이 책에 수록된 사진과 글의 무단게재를 금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NH



농림

발간사

인생의 새로운 희망 농업과 농촌에서 찾으세요



귀농귀촌 15인의
희망체험 수기를 발간하며

황금물결로 뒤덮인 가을 들녘을 바라보면 새삼 대자연의 넉넉함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신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한없는 감사를 보냅니다.

최근에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걸고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면면들을 살펴보면 농촌에서 태어나 산업화의 일꾼으로 떠났던 베이비부머 세대부터, 도시에서 자랐지만 농업의 가치를 보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청년세대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산업이 레드오션으로 바뀌면서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는 가운데, 우리 농업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블루오션의 영역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들의 본격적인 은퇴와 웰빙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도시민들의 증가에 따라 귀농귀촌하는 가구도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20~30대 청년들도 농업에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귀농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 폐교 위기를 맞았던 학교에선 다시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들리고, 청년들이 돌아온 마을에는 활력이 넘칩니다. 이런 모습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곳곳이 정착을 이뤄낸 귀농귀촌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를 떠나 귀농귀촌을 결심하고 정착을 이뤄낼 때까지의 사연이야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농촌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이뤄낸 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도시에서 많은 준비를 하여 농촌으로 와서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한 농촌생활의 롤 모델을 만들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2013 귀농귀촌창업박람회’를 준비하면서 귀농귀촌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직접 몸으로 체득한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수기를 공모했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15명의 입상자들의 수기를 모아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발간했던 우수 귀농귀촌 사례집에 이어 ‘촌에 살고, 촌에 웃고 2’는 귀농귀촌을 결심하게 된 계기부터 준비과정, 귀농귀촌 후 마을 사람들과의 소통 방법과 자신들만의 정착 노하우 등을 수록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삶의 에피소드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귀농귀촌을 준비 중이거나 농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민들이 유용한 정보와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리한 도시를 떠나 낯선 농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서 사는가 보다는 어떻게 사는가에 방점을 찍는다면 농촌은 기대보다 더 풍성한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풍성한 수확물에 감사하며, 우리 농촌 새내기들의 풍성한 이야기보따리를 함께 풀어가며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가슴 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동 환

part 01

귀농이야기

- 10 자본·연고 없어도 자연의 넉넉함이 아이들 키워줘요
충북 괴산 **박중애**
- 20 직장과 농사 병행하며 ‘표고 전업농’ 준비해요
충남 당진 **이규호**
- 30 계획보다 앞당겨진 귀농에 ‘30년 꿈’ 더 빨리 이뤄졌어요
충남 예산 **이미숙**
- 40 흘러간 ‘양년’ 버리고 포도송이 같은 ‘내일’을 키우죠
전북 고창 **송인보**
- 50 돌산에서 키워낸 고사리 행복한 노후 보장
전북 남원 **김소연**
- 60 꾸지뽕 키우면서 건강도 인생도 꽃 피웠어요
전북 순창 **김중윤**
- 70 복분자 농사도 경영 마인드 없으면 안돼요
전북 정읍 **황선기**
- 80 산야초 장아찌와 건나물로 불안한 미래 잡았어요
전남 순천 **이인자**
- 90 인생은 계획보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경북 영덕 **박혜균**
- 100 장대 들고 망태 챙겨 호두 털면 자루 한가득 쌓이는 행복
경북 봉화 **윤석은**
- 110 부지런해야 살 수 있지만 시골은 그래서 행복한 곳이죠
경남 함양 **박진아**
- 120 늘 꿈꾸던 제주에서 건강한 삶을 다시 시작했어요
제주 서귀포 **이천수**





part 02

귀촌이야기



- 132 경치 좋고 살기 좋은 곳이지만 귀촌원칙 필요해요
경기 양평 **신희정**
- 142 농촌은 손톱만한 능력도 쓸모 있게 만들어줘요
전북 진안 **심수진**
- 152 살만하냐고, 행복하냐고 지리산이 매일 묻지요
전남 구례 **박인숙**

part 03

귀농·귀촌 정보

- 164 나에게 귀농·귀촌이란?
- 168 귀농·귀촌 교육과정 안내
- 170 귀농·귀촌 유관기관 안내



가.에
사.고
가.에
이.고



Part * 01

귀농 이야기

충북 괴 산 박중애
충남 당 진 이규호
충남 예 산 이미숙
전북 고 창 송인보
전북 남 원 김소연
전북 순 창 김종윤
전북 정 읍 황선기
전남 순 천 이인자
경북 영 덕 박혜균
경북 봉 화 윤석은
경남 함 양 박진아
제주 서귀포 이천수

입선

아이들에게 시골의 풍요로움
새겨주는 박중애 씨 (충북 괴산, 배추)

“자본·연고 없어도 자연의
넉넉함이 아이들 키워주죠”





아이들에게 자연과 벗 삼을 기회를 주자

경기도 의정부에 살다가 2012년 8월에 공기 좋고 물 좋은 이곳 괴산자락에 자리를 잡고 이제야 두 번째 가을을 맞이하니 아직 명함도 내밀지 못할 초보 귀농자다. 올해 일곱살 딸아이와 다섯살 아들을 둔 서른아홉살 주부다. 유년기를 보낸 곳은 문명과는 거리가 먼 산골마을이다. 학교까지 족히 1시간 넘게 걸어가야 하는 곳이어서 친구는 별로 없었지만, 유년시절이 풍요로웠던 건 자연이 모두 나의 벗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도시로 나와야 했고 자연스레 청춘은 도시에서 보내게 되었다. 도시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도심 한가운데서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정석인양 살아가는 날들이었다.

“먼 훗날 어디선가 나는 한숨지으며 이렇게 말하려나 / 어느 숲에서 두 갈래 길 만나, 나는 덜 다닌 길을 갔었노라고 / 그래서 내 인생 온통 달라졌노라고.”

인생에 대해 한창 고민을 하던 사춘기 때 읽고 큰 감명을 받았던 로버트 프로스



트의 시 ‘가보지 않은 길’의 한 구절이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있고 어차피 두 가지 길 모두를 갈 수는 없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가지기 보다는 과감히 선택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글이었다.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우연히 이 시를 다시 보게 됐다. 그때 만큼이나 큰 울림이 있었다. 문득 풍요로웠던 유년시절이 떠오르며 도시생활의 갑갑함이 무겁게 다가왔다. 그동안 나는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그저 따라서 살아온 건 아닌지, 내 선택들이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돌아보게 됐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자연과 벗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 귀농 결정하고 3년 준비기간 가져

하지만 자신의 일을 하며 열심히 미래를 그리고 있는 남편에게 막연한 귀농을 권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그즈음 남편도 각박한 사회생활에 많이 힘들어 하고 무엇보다 한창 예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일정치 않은 퇴근 시간과 잦은 술자리로 주말이나 겨우 아이들과 마주할 수 있고, 또 점점 더 바빠지는 업무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이 모처럼 일찍 퇴근한 날 술자리를 마련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던 발걸음을 멈춰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시골로 가서 자연의 품에서 풍족하진 않더라도 풍요롭게 살아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일단 귀농을 하자는 것까지는 의견을 모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사실

막막했다.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려 내가 자유롭지 못하기도 해서 작은 아이가 4살이 되면 가는 것으로 하고 3년 정도 준비기간을 갖기로 했다.

우선 어디로 가야할지부터 고민이었다. 우리는 시댁이나 친정이 모두 시골이지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리를 잡고 싶어서 일단 두 곳은 배제하고 알아보기로 했다. 주변에 귀농을 한 사람도 없고 해서 '전국귀농운동본부'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유기농을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자고 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우연히 카페지기가 먼저 귀농해서 자리 잡고 귀농귀촌을 도와준다는 인터넷 카페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만 카페지기님과 소식을 주고받다가 여름휴가를 빌어 직접 방문했다.



체험마을 만들려고 자격증 따서 내려와

그렇게 알게 된 곳이 바로 이곳 괴산이었다. 그분도 무일푼으로 고향으로 귀농해 지금의 성과를 거두었기에 귀농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몇 번을 더 찾아가 직접 일도 도와드리고 배우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지기님이 조심스레 제안을 하나 했다. 도시 사람들이 '힐링'하면서 알차게 체험도 할 수 있는 쉽이 있는 공동체 체험마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함께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허가가 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본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많이 망설였지만 취지도 좋고 뜻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함께하기로 했다.

체험마을이라 다양한 체험을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다 워낙 미술을 좋아했던 난 패션핸드페인팅 자격증을 따서 내려올 준비를 했다. 하지만 곧 허가가 난다는



말과는 달리 환경평가가 뭐다 해서 일정이 자꾸 미루어 졌다. 집을 짓고 내려오려고 했지만 먼저 내려와 있으면서 집을 짓기로 하고 의정부 집을 정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분이 이

웃마을의 빈집을 알아봐 주었다.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된 집이라 그냥 집 관리나 해주면서 수리해서 살면 된다고 했다. 집은 거의 폐가 수준이었지만 집 지을 동안만 살면 된다는 생각에 그냥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무상임대가 어디나 싶어 열심히 수리했다. 벽지도 바르고 장판도 새로 깔고 쓸고 닦고 했더니 그런대로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렇게 작년 여름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도 이곳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체험마을 추진이 늦어져서 그건 포기하고, 그냥 내년 봄에는 근처에 터를 대여해 작고 소박하게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으려고 한다.



아이교육 위해서라면 시골로 오는 게 현명

이곳 소수면은 괴산에서도 가장 작은 면이어서 초등학교도 하나밖에 없다. 전교생이 36명이고 병설유치원도 원아들이 모두 9명이다. 하지만 교육의 질은 도시의 여느 학교 못지않다. 한 학급에 아이들이 3명에서 10명 정도여서 과외를 받는 것 같고, 전교생이 무상으로 방과후 수업을 받기 때문에 모두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배우고 음악 줄넘기와 미술수업을 한다. 괴산읍에는 제법 큰 학교도 있고 큰



유치원들도 있지만 작은 이 학교가 마음에 들어 아이들을 소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보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시골을 떠난다고도 하는데 저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시골로 내려오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거처할 곳을 마련한 후 밭을 조금 얻어서 배추를 심었다. 처음 심어본 배추가 마냥 신기해서 배추밭에서 살다시피 했다. 유기농으로 해보고 싶었지만 유기농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약을 최

소로 주기로 하고 둘이 열심히 벌레를 잡았다. 배추가 잘 자라주는가 싶더니 약을 덜하니까 아무래도 주변의 배추들에 비해 외관이 깨끗하지 않았다.

하지만 초보 농사꾼에게 그나마 수확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자연에 무한한 감사를 보내며 수확을 했다. 처음 직거래 고객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기에 인맥을 총동원 했다. 10년 동안 영업 일을 해온 남편도 지인들을 고객으로 만드는 것에는 조금 힘들어 했다.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셔서 200박스 정도 주문을 받았다.

마침 동네에 절임배추 시설은 있는데 일손이 부족한 집이 있어 함께 하기로 해서 시설이 없었지만 절임배추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는 땅을 더 얻어서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배추도 심고 콩도 심었다.

귀촌을 하려면 기존 마을과 떨어져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귀농을 하려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것이 배우는 것도 많고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사람 사는 정도 느낄 수 있어 좋다. 혹자는 시골이 텃세가 심해서 이방인들이 적응하고 사는 것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겸손히 받아들이는 마음만 있다면 시골 인생이라는 게 도시에서는 맞볼 수 없는 그야말로 사람냄새 나는 것이다. 이곳에 와서

남편이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 제일 먼저 한 것은 마을 청년회와 자율방범대 그, 소방대에 가입한 일이다. 거의 겹치는 사람들이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동생, 조카 하며 많이 챙겨 주신다. 지역에 배드민턴 동호회가 생겨 가입을 했다. 남편은 도시에서는 계획만 세우던 운동을 이곳에 와서는 매일 할 수 있어 좋아한다.

자격증을 따서 내려왔던 덕분에 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를 하게 되었다. 시골은 아무래도 전문직 인재가 귀하기 때문에 환영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이곳 실정에 맞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몇 개의 자격증을 더 뒀다. 이곳에 없던 공예 강사를 하니까 어떻게든 알고 연락이 와서 봄에는 어린이날 행사에서 공예체험을 하게 해주고 나를 홍보하는 기회도 가졌다. 그랬더니 내년에는 성인반도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 정도면 시골에서 생활하는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다. 집 관리비 없고, 애들 교육비 안 들어가고, 웬만한 식재료는 구해서 먹을 수 있으니 도시 생활에 비하면 정말 거품 빠진 생활비다. 시골이어서 못하는 것들도 많지만 찾아보면 시골이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다. 귀농을 해서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어도 좋지만 재능을 개발해서 문화혜택이 부족한 시골에 기여를 하는 것도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처럼 자본금도 없고 연고지가 없어도 마음을 비우고 귀농한다면 자연의 넉넉함 속에서 여유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귀농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준비보다는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한 이유다.





귀농은 물질보다 마음 준비가 우선

귀농을 해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라고 말한다. 매일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고 얘기를 나누고, 함께 잠이 든다는 것이 가족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한다. 이곳에 내려오고 반년쯤 지났을 무렵 남편에게 귀농생활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남편은 정작 도시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시골에 내려와 보니까 도시가 정말 답답했고 생활이 너무 팍팍했다는 걸 느낀다고 했다.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좋고, 문만 열면 보이는 자연의 품이 좋고, 맑은 공기가 좋고, 깨끗한 물이 좋고, 따뜻한 사람들이 좋고, 여유로운 생활이 좋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고…….

혹시 귀농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귀농 하는 것에 좀 더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다. 과감히 덜 다닌 길을 가라고, 그래서 인생이 온통 달라지는 기쁨을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해주고 싶다.



교육의 질 도시 못지않고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게 더 큰 공부



Q, 아이들 때문에 귀농하기에 아직 애들이 어리지 않나?

“이곳 소수면은 괴산에서도 가장 작아서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다. 전교생이 36명이고 병설유치원도 원아들이 모두 9명이다. 하지만 교육의 질은 도시의 여느 학교 못지않다.”

박중애씨는 남매아이들이 이곳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읍내에 있는 곳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자신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시골을 떠난다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시골로 내려오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Q, 양가가 모두 시골이라면서 왜 연고 없는 괴산을 택했나?

“아마도 서로에 대한 배려였던 것 같다. 남편도 나도.” 박중애씨는 시댁이 여주고 친정은 문경이다. 하지만 남편은 대소사 많은 시골 살림에서 아내를 좀 더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배려가 있었다고 했다. 시댁 근처로 가면 아무래도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기 때문이다. 온 동네가 다 삼촌이고 백부, 숙부인 농촌의 특성에 외지인 며느리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라고. 박 씨 역시 친정 식구들로부터 남편을 보호(?) 하는 차원에서 배려를 했다는 얘기가.

Q, 귀농하고 가장 좋은 건 무엇인가?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보다는 집이 좀 불편하지만 아이들과 아빠가 함께 있는 시간을 생각하면 참 좋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아빠와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이제 아빠랑 잠도 잘 잔다. 애들은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과는 잠을 못 잔다. 도시에서는 놀다가도 졸리면 엄마를 찾던 아이들이 이제 아빠랑 잔다. 온 가족이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나에게서 큰 행복이다.

입선

표고버섯 재배로

새로운 인생 설계하는 이규호 씨 (충남 당진, 버섯)

“직장과 농사 병행하며
'표고 전업' 준비해요”





면소재 중학교 교사가 되길 바라던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선택한 도시생활이었지만 50이 넘으면서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농촌의 현실은 아직도 어려웠다. 직장 생활과 농사를 병행하며 시골 살이를 시작했다. 이제 표고재배 등 새로운 희망을 품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한다.

이규호 씨의 귀농이야기

- 귀농 전 거주 지역
- 귀농 전 직업
- 귀농 결심동기
- 귀농 선택작목
- 귀농·귀촌 교육이수 실적
- 귀농 연도
- 귀농시 나이
- 귀농지 선택사유
- 귀농시 영농기반
- 귀농 초기자금
- 현재 영농규모
- 연간 수익

중국 대련에서 10년 거주
 생산관리
 노후준비
 벼, 무, 배추, 감자, 표고버섯
 없음
 2008년
 52세
 고향 마을
 논 4천 평, 밭 1천 평
 없음
 귀농시와 동일
 논 농사 800만 원, 밭 농사 450만 원,
 (감자 100만 원, 무배추 100만 원, 고추 100만 원,
 표고버섯 150만 원)합 1250만 원





경제적 어려움 겪으면서 귀향 결심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나는 농촌의 중농가정에서 나서 성장하는 동안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동화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요즘이야 논농사, 밭농사 모두 기계화되고 일손이 많이 가는 농사는 기피하면서 단위 노동력당 경영하는 면적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6~70년대에는 논농사만 하더라도 두엄내기, 논갈이, 썩레질 등을 전부 수작업으로 하거나 일부 축력에 의존했다. 간혹 기계를 사용했지만 아주 초보적인 기계에 의존하는 정도였다.

농촌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치는 동안에도 퇴비장, 토끼사육장 같은 시설에서 토마토 같은 밭농사나 토끼사육 등 농사 체험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배우고 익혔다. 이후 가까운 지역의 지명도 있는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소망에 따라 농업관련 대학에서 공부했다. 이때 체계적이고 학문화된 각 부문의 농업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하는 등 과정을 이수했다.

대학을 졸업하자 부모님은 중등교사 자격증을 이용해 면소재 중학교 교사가 되길 바라셨지만 농촌생활의 갖가지 어려움, 각종 편의시설의 부족, 2세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의 열악함 등을 이유로 대도시의 대기업에 입사했다. 부모님이 보유했던 농지는 두 분이 충분하게 경작 가능하리라는 생각이었다.

80년대 말 변환기에 나와 중소기업에 몸담게 됐다. 그러면서 값싼 노동력을 찾아 회사가 중국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10여년 간의 중국생활을 했다. 한 때 거침없는 성장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던 회사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영업이익이 공장

손실을 메꾸지 못하는 등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 공장을 통폐합하고 조직을 축소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젠 떠날 때가 됐다고 판단돼 사직했지만 퇴직금도 못 받고, 회사주식에 투자했던 여유자금마저 상장 폐지되는 바람에 허공에 날리고 실업자가 됐다.

실업급여를 받는 6개월 동안 ‘취업이야 되겠지’하는 기대 속에서 인크루트를 비롯한 취업포털을 통하여 수많은 회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취업에 실패했다. 오십을 넘긴 나이가 핸디캡으로 작용던 것 같다.

당시에는 작은 아이가 대학졸업을 3년이나 남겨두고 있어 하루라도 소득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시기였다. 가정주부라는 틀을 벗어난 적이 없던 안식구가 참다못해 월 100만 원 정도 급여를 주는 직장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팔순이 넘은 어머님 농사를 도우며 작은 농가 소득이라도 올리고자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계산해 본 예상농업소득만으로는 아이 대학 교육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며 부업으로 직장에 다니는 동네 친구를 따라 월 13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출근을 시작했다. 출근해서 8시간 내내 예초기를 메고 도로 가장자리에 늘어지고 제멋대로 우거진 잡초와 작은 나무를 베는 일을 했다. 겨울





에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하면서 고된 2년여의 시간이 지나갔다.

고용노동부 취업포털인 워크넷(worknet)에 올린 내 이력서를 보고 주유소 소장을 제의해 온 주유소가 있어 일을 시작했지만 전 소장은 퇴사하지 않고 모든 일을 알아야 한다며 계산원, 주유원 등으로 일을 시키며 월 130만원의 보수로 일만 시켰다. 회사에 불만이 많은 가운데 계속적인 취업활동을 했다. 그러던 중 한 지역 중소기업으로부터 입사제의를 받고 연 3300만원의 보수로 출하관리 업무로 출근 하면서 농사일을 병행해 나갔다.

농사를 지으며 모르는 부분은 경험 많은 어머님이나 친구한테 자문을 구하며 또 남들이 하는 상황을 보거나 과거에 봐왔던 기억을 살려 해나가고 있다. 논에는 벼농사를, 밭에는 고추농사는 단모작, 감자농사는 후작으로 무를, 마늘 심은 후작으로 메주콩을 심고 논둑이나 유희지에는 검은 콩, 들깨, 호박, 가지, 상추, 고구마, 쪽파, 시금치, 오이, 참외, 토마토 등 채소나 잡곡을 심어 자급하고 있다.

요즘엔 고라니가 많아져서 콩, 옥수수 등은 수확을 못 할 정도로 피해가 많고 논에도 수확기에는 적지 않은 피해를 준다. 하지만 공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벼, 감자, 무, 고추 등은 흔한 작물이라서 소개를 생략하고 표고버섯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지인의 표고농장을 보고 온 뒤 기대를 가지고 실험적으로 시작한 농사가 표고재배다. 매년 11월부터 1월 사이에 엔진 톱을 구해 산에 있는 참나무나 밤나무를 베어서 1m 전후의 길이로 토막을 내고, 표고종균을 넣기에 가는 나무는 나무보일러에 들어갈 정도의 길이로 잘라두었다가 화목으로 쏜다. 1월말에 군 산림조합에 표고종균을 신청하고 3월말 종균이 도착하면 모아 놓은 참나무에 5cm 폭에, 길이 10cm 전후의 간격으로 천공기로 구멍을 뚫고 성형종균을 넣고 물주기 좋게 쌓아두고 15일 간격으로 물을 주고 차양 막을 설치해 주는 등의 관리를 한다.



바쁜 일 없는 시기 수입 째절한 표고농사

관리를 잘 하면 종균을 넣은 당년 가을에 표고를 수확할 수 있다고 교재에 나와 있지만 내 경우에는 익년 가을에 표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수확된 생표고는 거래처가 없어 저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용 불가 부분을 다듬어서 햇볕에 말려 저장했다가 구매자가 나타나면 시중가인 1kg에 5만 원에 팔고 있다.

표고재배는 중장비 도움 없이 하려면 통나무를 자르고 나르고 세우고 하는 일련의 일들이 중노동이지만 표고수확이나 물주기 등이 비교적 수월한 일이다.

어느 곳에서나 중국산 표고가 넘쳐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 힘든 일의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한 저온성 표고는 3~4, 10~11월에 수확되기 때문에 일 없을 때 수익을 올려주는 작목으로의 장점이 있다.

부족한 지식을 메우고자 산림조합에서 출간한 ‘표고재배기술’이라는 책자로 공부하고 의심나는 부분은 찾아 읽으며 다른 고수의 버섯품종도 찾아보고 있다. 표고 전업농이 되기 위해서는 3만본 정도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원목을 살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하고 급수 설비 등 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토지 비용 제외하고 연 5000만 원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실험적으로 재배하는 표고는 한 해에 200본씩 확보하여 5년 정도 지나면 1000본정도 되고 그 중 800본 정도가 수확되고 있다. 연차적으로 농사에 필요한 40m×8m 규모의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를 보조금 제외한 420만 원에 설치하고 백미 및 현미가공이 가능한 가정용정미기를 140만 원에, 비닐 피복 및 소규모 로터리 및 두둑 만들기가 가능한 아세아 관리기를 120만 원에 구입하는 등 최소 규모의 투자도 진행하여 사용 중이다.



농촌의 수익구조는 아직도 열악하다

지난 2012년은 여름장마가 비가 적은 건장마로 지나가고 늦여름부터 너무 많은 비가 내려 밭에 들어가면 심한 곳은 발목까지 빠지고 물이 나서 흐르는 물이 그 치질 앓을 정도였다. 감자 후작으로 무 파종을 위해 밭이 마르길 기다려도 마르질 않아 2주 정도 적정 파종시기가 늦어졌다.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 두둑을 만들기 위해 트랙터를 불러 로터리 작업을 시작했지만 트랙터가 빠져 앞으로도, 뒤로도 나가질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어쩔 수 없이 견인할 다른 트랙터를 또 불러 견인해 내던 중 그 트랙터마저 빠져 버렸다. 결국 중장비인 큰 포클레인을 불러 두 대의 트랙터를 끌어낸 일도 있었다.

그 자리에는 무도 못 심고 망가지지 않은 일부분에 삽과 쇠스랑으로 두둑 만들고 수작업으로 비닐 멀칭을 한 다음에 집에서 먹을 배추를 겨우 심고 일부 500평 정도의 파종된 무는 40만 원에 겨우 팔아 종자와 비료대 등을 간신히 충당했다.

5년 동안 두 사람이 농사를 지어본 결과 대략적인 연간 수입과 지출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벼 재배(4,000평/2012년 기준)

- 자가 노동력의 인건비 및 농업직불금 포함된 조수익 : 1300만 원
- 지출 : 기계사용료 320만 원, 비료, 농약, 종자대 등 104만원, 세금 100만 원
- 지출계 : 524만 원
- 자가 노동력의 인건비포함 순수익 : 776만 원

2) 밭농사(고추 : 400평, 감자 : 600평, 무 : 600평/2012년 기준)

- 자가 노동력의 인건비 포함된 조수익 : 고추400만 원, 감자300만원, 무40만 원. 소계 740만 원
- 지출 : 퇴비구입 및 살포비 12만 원, 감자 및 무 종자대 60만 원, 비료 10만 원, 비닐 12만원, 농약 10만원, 소계 104만 원
- 자가 노동력의 인건비 포함된 순수익 636만 원

3) 표고(생산원목 : 800본/2012년)

- 자가 노동력의 인건비 포함된 조수익 200만 원
- 지출 : 종균 및 휘발유 16만 원
- 자가 노동력의 인건비 포함된 순 수익 184만 원

4) 자가 노동력의 인건비 포함된 순수익 계(2012년) : 1596만 원

논농사 4000평과 밭농사 1000평 농사를 두 사람이 지었을 때 대략 위와 같은 수익정도가 되므로 2인 연간최저 생계비 1754만 원에서 158만 원이 부족한 수익구조가 현재의 농촌 현실이다.

정년퇴직 후에는 위와 같은 수입구조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작은 아이가 대학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는 턱없이 부족하고 취업 후에는 최저생계비 유지 정도의 삶의 질이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안식구나 나도 직장을 못 다니게 될 테니까 결국 위와 같은 삶의 질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직장과 농사를 병행 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 들어 남의 밭에 가서 거슬리는 말 참아가며 직장 다니지 말고 농사에 올인 하면서 편히 살라고. 그러나 나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직장생활과 농사를 병행할 생각이다.

그 외에도 관심 있는 금송, 장뇌삼, 블루베리, 복숭아 등을 시험적으로 심고 가꾸면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낙원이라는데 직장을 정년퇴직하면 젓 짜는 산양도 두세 마리 키워서 산양유를 짜서 마시고 남으면 치즈 등 제품 개발도 해보고 벌통도 두세 통 사서 남향 따뜻한 곳에 놓고 주위의 아카시아나 밤꽃 등의 꿀도 따고 작물의 수분도 좋게 하는 일들을 해보고 싶다. 또 나이 들어감에 따라 여러 곳에 산재해 계시는 조상님들의 산소도 정리하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준비도 착실하게 해 놔서 후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힘찬 연어들처럼



Q, ‘귀촌반농’이 필요한 이유!

회사일로 중국으로 나가 10년가량 생산관리 업무를 했다. 귀국 후 서울에서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고향으로 내려왔다. 나고 자란 고장이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논과 밭이 있어 초기자금 없이 농사를 시작했지만 일반 경작만으로는 최저생계비 마련도 어려운 것이 농촌실정이다. 농사를 짓겠다는 마음으로 시골에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정착할 때까지는 부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을 구하는 것이 좋다. 연말에 수익이 집중되는 농업의 특성상 고정수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Q, 귀농을 했지만, 귀향이기도 했으니 정착하기 수월하지 않았나?

비용적인 부담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기반이 있었고, 머무를 수 있는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낮은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뒷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건너건너 듣게 됐고, 어떤 이들은 면전에 서 빈정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오랜 세월 고향을 떠나있었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일이 대꾸하면 소문을 키우거나 나쁜 소리만 더해질 뿐이다.

Q, 뒤늦게나마 전공을 살려볼 생각은 없나?

대학에서 ‘축산가공’을 전공했다. 오랜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전공을 살려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다. 기회가 되면 산양을 길러볼 계획이다. 뒷산에 방목해서 키우고, 산양유 판매와 치즈 가공을 통해 가공 산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표고버섯 재배 방식에도 변화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다. 지금은 참나무에 종균을 이식해서 재배하고 있지만, 나무 재배가 끝나면 톱배에 재배하는 방식을 통해서 생산량 비교를 해보고 싶다. 논 농사에 있어서도 농약사용을 하지 않는 대안농법을 구상하고 있다. 미꾸라지, 민물게, 붕어 농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귀농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관련서적을 찾아서 독학하고 있다.



무연고 어려움 딛고

축산귀농 성공한 이미숙 씨 (충남 예산, 한우)

“ 계획보다 앞당겨진 귀농에
'30년 꿈' 더 빨리 이뤄졌어요 ”





남편의 갑작스런 퇴직에 계획보다
 앞당겨진 귀농 생활이 순탄할 수만은
 없었다. 더욱이 축산은 외지 사람들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었다. ‘천천히’를 신조로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찾게
 되면서 한우사육이라는 남편의 ‘30년
 꿈’이 이뤄졌다.

이미숙 씨의 귀농이야기



- | | |
|----------------|------------------------------------|
| • 귀농 전 거주지역 | 서울 |
| • 귀농 전 직업 | 회사원 |
| • 귀농 결심동기 | 어릴적 꿈 실현 |
| • 귀농 선택작목 | 한우 |
| • 귀농귀촌 교육이수 실적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교육 1년과정 이수 |
| • 귀농연도 | 2011년 |
| • 귀농지 선택사유 | 인근에 친구 거주 |
| • 귀농시 영농기반 | 없음 |
| • 귀농 초기자금 | 2억 7천여만 원(축사 2억, 소 입식 비용 5천만 원) |
| • 현재 영농규모 | 소 29마리 |
| • 연간 수익 | 2천200만 원(소 판매 수익),
향후 4천여만 원 예상 |



갑작스런 남편 퇴직에 거절도 못한 귀농 결정

우리 부부는 건설회사에서 처음 만나 5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다. 아들과 딸을 낳고 20년을 살면서 우리 부부는 오랜 술친구처럼 살았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남편이 학창시절부터 꿈꿔왔던 귀농을 하기로 했다. 컨테이너로 집을 만들고 한우도 키우고 농사도 지어 몸에 좋은 먹거리를 즐기며 자연과 함께 살자는 대화를 자주 했다.

그렇게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던 중 2010년 4월 남편이 23년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됐다. 당시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딸은 중학교 2학년으로 막막했다. 오래전부터 귀농을 꿈꿔왔고 많은 대화를 해왔기에 안 된다고 거절 한마디 못하고 귀농을 결정하게 됐다. 아이들 문제가 심각했지만 그 상황에서는 귀농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귀농을 하기 위해 전곡, 연천, 양평 등 토지 탐색에 나섰지만 생각처럼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땅값이 너무 비쌌다. 양가 모두 아버님 고향이 이북이



시기에 농촌에 연고가 없었다. 충남 예산에 사는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친구가 우리의 유일한 연고였다. 연애시절부터 매년 아이들과 놀러가 친분을 쌓고 살던 친구였다.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남편이 “나 회사 그만뒀다”하니까 텔레파시라도 통한 걸까. 남편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 “여기 내려와서 소나 키우지 그러냐?”한다. 남편은 “응! 나 그거 하려고……”라며 대답했다.

우리 부부의 귀농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때부터 친구는 토지를 알아봐주었다. 첫 번째 본 토지는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두 번째 본 토지는 땅임자(서울사람)가 나타나니 평당 금액을 올려달라고 했다. 조금했지만 과감히 포기했다.

세 번째 본 토지는 마을 맨 끝자락에 산이 둘러 쌓여있고 두 가구만이 살고 있는 전화선도 없는 2단 다랭이논(2필지로 1350평)이었다. 2010년 11월에 세 번째 본 토지를 계약 했다. 계약을 하고나니 부담이 되었는지 그동안 열심히 금연하던 남편은 그 날로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

그 해 겨울 구제역으로 전국이 난리가 났다. 내 땅을 사 놓고도 가볼 수 없었다. 마을에 안 들어가는 것이 마을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구제역이 잠잠해졌다. 우리는 2011년 마을로 합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마을 이장을 만났다. 이장은 소문을 들었는지 “젊은 사람이 온다하니 좋네. 축사만 아니면 뭐든 도와주겠네” 하셨다. 그동안 오로지 축사만 생각해 땅을 구입했고 축사관련 준비만 해 왔는데 그것만 아니면 된다니……。 그 이후의 말들은 귀에 들리지 않았다.

밖으로 나와 차를 타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그런 내 모습을 보던 남편은 나에게 “미안하다. 이런 문제까지 너를 너무 힘들게 해서”라고 했다. 내가 이런 모습이면 남편이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에 그 날까지만 울기로 했다. 한숨과 함께 앞으로 갈 길이 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2011년 5월 13일, 포클레인 2대로 평지작업을 시작했다. 축사 허가를 바로 해주지 못한다는 말에 처음에는 싸우고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해야 하나 생각했었다. 그런데 우리부부가 착각한 것이 있어 공사는 잠시 중단됐다. 일을 수습 하면서 내린 결론은 ‘천천히’라는 단어였다.



농사에 ‘농’자도 모르니 살집을 마련하고 농사공부도 하며 일단 마을주민들과 친해지기로 했다. 남편은 이발도 하지 않고 모자도 쓰지 않아 피부를 검게 태우면서 최대한 ‘마을주민화’ 되려고 노력했다.

그 해 겨울 남편은 서울에 있다가 봄에 다시와도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하우스에서 혼자 생활을 했다. 전기 판넬의 전기 값이 아까웠던 남편은 직접 만든 지게로 나무를 해오다가 갈비뼈에 금이 갔다. 그런데도 나무난로를 방에 놓고 한 시간에 한 번씩 나무를 넣어가며 잠도 못자고 자신과의 싸움을 했다. 남편은 여기서 진짜 살려고 온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처음 계획은 남편이 먼저 터를 잡고 내가 3년 후에 합류하기로 했었지만 마을 분위기를 보니 남자 혼자서는 인정받기가 힘들 것 같았다. 2012년 여름 주민등록을 옮기고 컨테이너도 화목보일러로 바꿔 겨울을 따뜻하게 살 수 있었다. 이때부터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는 연습과 ‘돈의 노예는 되지 말자’는 신조가 생겼다.



마을 경로잔치에 참여로 마을주민으로 인정받아

2011년 6월 8일 마을에 경로잔치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장과 부녀회장을 만나 우리가 할 것들을 상의했더니 시루떡과 소주 두 박스가 배당됐다. 그것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드디어 마을 분들 전체를 만날 수 있었다.

마을회관의 문을 여는 순간 주민들의 시선이 내게 집중됨을 느꼈다. 나는 “안녕하세요. 맨 꼭대기 새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라고 인사하고 부침개를 비롯해 음식도 도와 드리고 상차림, 설거지를 하며 마당의 쓰레기도 주웠다.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북과 장구도 쳐가며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우리부부는 마을을 다니며 언제든지 차 창문을 열고 뵙는 분들마다 인사를 했다. 마을 분들이 조금 덜 바쁜 날은 내려서 인사하며 모르는 것이든 아는 것이든 묻기 시작했다. 그렇게 6개월 정도가 흐르고 어느덧 마을주민들과의 관계는 아주 오래 살았던 것처럼 가까워졌고 우리부부를 마을주민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 해 연말에 마을모임(대동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초에 마을회의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축사밖에 생각 안했다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살지 말라는 소리지”하시며, 축사허가조건에 동의도 해 주었다. 우리는 감사함을 잊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 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는 농업인 대학 1년 과정(100시간 이수)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우리부부는 매주 1회씩 강의를 들으며 인맥도 늘렸다.

농업인대학 졸업여행을 가려는데 남편은 돈벌이도 못하는데 여행은 무슨 여

행이냐고 했지만 난 생각이 달랐다. 이제 송아지를 키우면 여행은 생각도 못한다. 마침 결혼 20주년이고 내 생일이고 만난 지 25년 된 해라며 온갖 의미를 부여하며 마지막 여행이라 생각하고 즐겼다. 졸업여행을 통해 우리는 예산인임을 확실히 알렸다. 귀농은 남편이 하고 싶은 일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사회활동이었는데 이번 여행으로 취업의 길이 생겼다.

마을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가며 열심히 한 결과, 관리기는 마을로 배부된 것으로 지원받고 예취기는 귀농인모임에서 추진하여 일부지원 받아 구입하게 됐다. 비록 중고지만 트랙터와 트럭을 구입하고 엔진 톱과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도 구했다. 우리는 농·축산업인으로서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두해를 걸쳐 마을사업으로 대공사를 해주었다. 맨 꼭대기 3집만 사는 구거에 각관(1000짜리 72개)과 도로포장(60m)을 해줘 우리부부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드디어 2012년 가을, 축사도 완공됐다. 송아지 입식을 하려는데 마을 분의 정보로 송아지 입식자금 5000만원(연1%)을 지원 받았다. 우리 축사 ‘클라우한우농장’에 송아지 23마리와 임신우 8마리를 입식했다. 그해 겨울 흰 눈이 펄펄 내리던 농업인대학 졸업식 날엔 1호 암송아지가 탄생했고 이후 8호까지 예쁘고 건강한



송아지를 실패하지 않고 탄생시켰다.

현재 수송아지 2마리와 어미 소 5마리를 출하했다. 올해 말까지 수송아지 3마리가 출하예정이며 올해는 특별사료자금 1500만원 (연1.5%)을 지원 받았다.

어느덧 시골 살림에 자리가 잡혀가고 아이들의 문제도 해결되어갔다. 아들은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 입대를 했고, 딸은 시댁어르신들과 함께 거주하며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방향을 끝마치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소소한 재미

아들이 휴가를 나와 시골집에서 오랜만에 가족 4명이 모였다. 3년 전 귀농한다고 했을 때의 느낌과 지금의 우리부부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은 처음에 좋은 점과 싫은 점이 반반이었고 지금도 반반이긴 하지만 좋은 점은 동생과 우애가 깊어졌으며 본인도 50대가 되면 아빠 같은 삶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사춘기인 딸은 지금은 아빠, 엄마가 고생은 하는 것 같은데 아빠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시니까 좋다고 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의 의미를 느꼈고 우리 가족의 삶에 폭풍우가 지나감을 느꼈다.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이겨낸 것이다.

귀농을 시작하면서 집도 없이 중고 컨테이너에서 생활했다. 남편친구가 육회거리와 옷순을 가지고 왔다. 도마와 그릇이 없어서 전단지에 횡감을 썰고 코펠에 생수로 옷순을 데치고 나무젓가락과 종이컵에 먹었던 날과 화장실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생활도 해보았다. 비록 아직도 집을 짓지 못하고 컨테이너하우스에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해의 따뜻함과 달의 밝음, 하늘의 수많은 별 등 무심코 볼

렸던 동요들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

2013년 나는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곳에 취업이 됐다. 앞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의 답답한 부분과 유익한 정보들을 상담해주고 싶다. 또한 면소재지에 여성의용소방대에 가입했고 지역주민들과 복지관에서 요가도 하며 귀농인 모임에 참석하여 정보 교환도 하면서 귀농생활을 즐기고 있다.

남편은 자금회전을 위해 주택리모델링 작업과 마을 일손을 도와가며 산소 이장하는 일, 별초 하는 일 등 가리지 않고 일을 한다. 올해부터 3년간 마을이장을 도와 마을총무역할도 열심히 하고 면복지관 자치위원에 가입도 했으며, 한우번식우모임도 참석한다. 마을작목반 일과 벗짚 비닐 레핑작업도 마을주민과 하나 되기 위해 봉사하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었다. 귀농은 남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하나 연구하고 개발하고 제2의 인생은 금전의 가치를 떠나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며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가에 가치를 두어 귀농 정착은 성공했다고 확신한다.



‘내 일’을 하니
‘내일’ 걱정이 없어요!



Q. 왜 하필 제일 고되다는 ‘축산업’에 도전했나?

남편과 나는 모두 도시에서 나고 자랐다. 한 번도 시골에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남편은 어릴 적부터 ‘목장’ 주인이 꿈이었다. 물론 지금의 한우가 아닌 ‘얼룩소(젓소)’였지만, 연애하던 시절부터 언젠가 시골에서 소를 키우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다. 하지만 정착 소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거나 공부하지는 못했다. 이 곳 예산에 내려와 우사를 짓고 소를 입식하면서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다.

Q. 귀농 결정에 부부 모두 합심했나? / 귀농생활 즐겁기만 한가?

귀농에는 둘 다 마음이 맞았다. 하지만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들 걱정에 남편이 3년 정도 먼저 내려오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나도 짐을 싸 내려왔다. 혼자서 고생하는 남편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사실 나는 아직도 도시체질에 가깝다. 가끔씩 네온사인 반짝이는 서울에 가서 ‘힐링’을 받아야 즐겁다. 하지만 남편은 이제 서울에 가면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서로가 다르지만 그 부분을 인정하면 다름없이 시골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얼마전부터 충남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상담사로 취업이 되면서 바깥일은 내가 전담한다. 남편은 우리 농장과 신앙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담한다. 우리 부부의 가사분담법이다.

Q. (남편에게) 어릴 적 꿈을 이룬 소감은?

힘은 들지만 좋다. 다른 사람들은 귀촌하면서 좋은 집부터 마련하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집 욕심도 없다. 차라리 소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도록 우사를 확장하거나 소를 위해 투자하고 싶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요즘은 부쩍 즐겁다. 여전히 투자하는 시간이라 물질적으로 풍족하진 않다. 노동의 즐거움을 배우고 있다. 내가 원하는 ‘내 일’을 찾은 것 같다. 우리는 월요병이 없다. 참, 서울에서는 탈모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탈모가 사라졌다. 머리숱이 예전보다 풍성해서 ‘빠미’도 필요 없다.



동상

베이비부머

귀농의 정석 송인보 씨 (전북 고창, 복숭아·포도)

“흘러간 '왕년' 버리고
포도송이[♥] 같은 '내일'을 키우죠”





목에 힘주고 자신감 넘치던 삶은 세월에 밀려
점점 작아져만 갔다. 도시생활을 툭툭 털어버리고
선택한 고창행. 우리 부부는 따뜻하게 맞아준 이곳에서
허리 꼴꼴이 펴고 농사짓는 포도와 복숭아를 선택했다.
몸은 힘들지만
강소농을 꿈꾸는 새 인생이 즐겁다.

송인보 씨의 귀농이야기



- 귀농 전 거주 지역
- 귀농 전 직업
- 귀농 결심동기
- 귀농 선택작목
- 귀농귀촌 교육이수 실적
- 귀농 연도
- 귀농시 나이
- 귀농지 선택사유
- 귀농시 영농기반
- 귀농 초기자금
- 현재 영농규모
- 연간 수익

- 경기도 수지
- 기업 퇴직 후 자영업
- 노후준비
- 복숭아, 포도
- 없음
- 2011년
- 만55세
- 농업특화도시
- 없음
- 땅 3천여 평(1억 원), 집 건축비용 1억 원
- 포도 하우스 800평, 복숭아 1천 평
- 아직 없음 (내년 3천만 원 예상)



귀농 3년차, 몸은 축내고 수입은 없지만...

지금은 여름, 할 일이 무지하게 많다. 과수묘목을 키우는 농부는 2년차에 나무를 얼마만큼 키우는가 하는 게 향후 농사의 갈림길이다. 풀과 전쟁하고, 벌레와의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친환경을 고집할 경우에는 더욱욱 힘든 싸움이 된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포도밭에서 일하다보면, 복숭아밭 주변 개암나무는 어느새 풀로 덮혀 있다. 회양목 잡초라도 뽑으려 하면, 포도넝쿨은 엄청 자라있기 일쑤다. 솔직히 너무 힘들다. 한낮에 잠깐 쉼라치면, 무슨 일이 또 생기는지 컴퓨터를 켜고 글을 올리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

최근 들어 고창에 귀농 또는 귀촌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담바우농장에도 귀농하려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찾아온다. 아직 초보인 우리에게 귀농에 대한 자문을 듣겠다고 할 때면 아직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진다. 귀농해서 2년차에 바로 수입을 짚짚하게 올리는 사람도 무지 많은데, 햇수로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몸만 축내고 수입 한 푼 없는 놈에게 자문이라니...

하지만, 담바우의 내 자신이 귀농을 했고, 고창의 많은 귀농인들과 인연도 쌓으면서 느낀 점도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귀농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 귀농에 관한 내 개인적 소견을 한번 써보고 싶었다.

우리 부부는 둘 다 서울출신이고, 서울과 그 변두리지역(좋은 말로 수도권)을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소위 '기역자를 보고 낯을 연상'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그렇듯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열심히 살아왔다. 젊어서 종합

상사 입사를 목표로 공부했고, 결혼해서는 출근시간은 알아도 퇴근 개념은 없는 걸 당연시 했다. 내가 없으면 회사가 문 닫을 거란 자만에 빠져 살기도 했다. 그러다가 40대에는 성질난다고 회사 때려치우고, 사업한다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며 스스로에게 위로하며 다시 일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50대 초반을 넘기면서는 사업을 다시 하자니 겁이 나고, 취직을 하려 해도 쉽지 않았다. 그렇게 몇 년 버티다보니 자연스럽게 벼룩시장 구직란도 기웃거리게 됐다.

이런 생활의 반복을 옆에서 지켜보다 우울증에 걸린 아내에게 겨우 한다는 말이



“여보, 우리 시골 내려가서 살래? 당신 생각은 어때”라면서 인터넷 검색어에 ‘귀농/귀촌’을 치고는 엔터키를 째 눌렀다.

어디서 무슨 귀농박람회를 한다거나 또 어디서 도시민유치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찾아가고 귀농책자와 조그만 찹쌀떡봉지 하나 받고는 터덜터덜 나오곤 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주 우연히 이곳 고창으로 오게 됐다.



따뜻하게 맞아 준 고창에서 밭품 팔아가며 정착

남들에게 “지도를 펴놓고 손바닥에 침을 탁 쳤더니, 침이 고창에 떨어져서 왔노라”고 우스갯소리를 한다. 하지만 사실은 우연히 들른 고창에서 귀농귀촌협의회와 기술센터의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의 귀농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나가다 들린 부부에게 빈집을 소개해 준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그분들은 마침 빈집이 있어서 소개해 주었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의 따뜻한 애정이 우리에게는 감동이었다.

대부분의 베이비부머들이 그렇듯 떠밀리듯, 흘러들듯 귀농(?)을 했다. 처음엔 귀농이라고 하자니 농사기술도 없고, 몸도 부실하고, 경작할 토지도 없었다. 그렇다고 귀촌이라 하자니 돈도 없는 주제에 염치도 없었다. 그래서 귀농을 했다고 할지, 귀촌을 했다고 할지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도 했다.

귀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거의 6개월을 우리 부부가 정착할 수 있을만한 지역을 찾아 다녔다. 그리고 고창에 온지 6개월 후인 2011년 11월에 선운사 뒤편 담바우라는 산속마을에 3000평의 밭을 매입하고, 어떤 작물을 택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고창의 선진농업인들을 찾아뵙고 자문을 구했다.

많은 우여곡절과 고민 끝에 포도 한그루에 2000송이를 맺는 유기농포도의 장인

이며, 대한민국 신지식인인 도덕현 선생님을 멘토로 친환경시설포도와 노지 복숭아를 재배하게 되었다.



‘왕년’은 중요하지 않다, ‘내일’을 보라

우리가 귀농 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려고 한다. 특히 도시에서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왕년의 자기스펙에 자만하고 사업을 벌이려는 사람들이나 프랜차이즈의 유혹에 솔깃한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 경청하기를 바란다.

첫째, 귀농하고자 하는 지역을 먼저 확실히 정해야 한다. 먼저 발품을 팔고, 그 지역의 기술센터나 귀농상담소를 찾아봐야 한다. 정착지를 선택하는 것도, 향후

어떤 작물로 먹고사느냐 만큼 중요하다. 지원이 많은 지자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귀농하지 않는 뭔가(?)가 있을 수 있고, 지원이 적은 지자체는 귀농해봐야 찬밥일 뿐 먹고살기 힘들 수도 있다. 수도권 주변 땅은 거의가 서울의 있는 사람들의 소유이고, 기획부동산이 훑고 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맞춰 지역을 찾아야 한다. 무화과를 심으려면, 장



류를 제조하려면, 소를 키우려면 어디가 좋을까? 복분자를 짓고 싶다면 고창을 우선순위로 두듯이 말이다.

둘째, 집이나 땅을 먼저 사지 않는 게 좋다. 100여 평이 넘는 대지위에 그럴듯한 기와지붕의 농가주택이 3000만~4000만원이라면, 도시인 개념에선 “우~와, 싸다” 이겠지만 그 집을 중심으로 활동범위의 제약을 받게 된다. 집주변에서 땅이 없다면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농사를 짓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먼저 전세든 월세든 아님 공짜든 거주할 집을 구하는 게 첫 번째지만 사는 건 심각하게 고려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은 귀농 후 발품을 팔며, 매입이든 임대든 땅을 먼저 알아보는 게 집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우선일 것 같다.

셋째, 작물은 그 지역의 특산물이 가장 안전하다. 고창이라면, 수박, 복분자, 고추 등 일단은 수매가 확실한 작물이 좋다. 남들이 안하는 것을 했다가 만약 수매가 안 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수익성이 아무리 좋아도 10개를 생산해서 3개만 판다면 문제다. 때문에 농사지를 땅의 날씨, 바람의 방향, 주변 환경, 땅의 성질, 멘토의 확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용인에서 목회활동을 하면서, 고창에서 땀 흘려 가족농사를 짓는 성은주 목사



님은 “농사에는 하층농사, 중층농사, 상층농사가 있다”고 우스개를 하곤 한다. 하층농사는 고추, 수박, 고구마, 양파 등 온갖 과채류를 지칭하는데 이 작물들은 바다를 박박 기며 농사를 지어야한다는 것이다. 중층농사는 블루베리, 복분자, 버섯, 아로니아 등으로 이건 서서 허리를 약간 숙이고 농사를 짓는다. 상층농사는 사과, 배, 복숭아, 감, 포도 등 온갖 과수류를 말하는데 허리를 꼴끗이 펴고 농사를 짓는 것을 빗댄 이야기다. 우리의 경우는 상층농사를 선택했다.

그런데 귀농 3년차인데 아직도 수입이 없고, 돈만 나간다. 거품이 많이 줄었지만 농촌 살림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가 있다. 남들이 복분자를 몇 킬로그램 팔아 얼마를 벌었다고 말하면 괜스레 힘이 빠지고 주눅이 든다. 또 예측 못 할 기후조건에 한순간에 성목이 죽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당장의 소득을 바라고 하층농사를 택하면, 30~40년은 기본인 기존 원주민의 발끝만 따라가야 한다. 몸 고생은 장난 아니게 힘들고, 항상 몸으로 때울 뿐 향후 미래소득이 지금보다 나아지진 못한다. 이렇게 힘들다 보면 집에 계신 사모님께서 보따리를 쌀 수도 있다. 그렇다고 여기는 고추, 저기는 오디, 나머진 감나무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더 힘들 수도 있다. 작물의 선택은 신중해야한다.



작지만 강한 '강소농'이 해답이다

넷째, 강소농을 꿈꿔야 한다. 땅의 크기는 상관없다. 재배 면적이 크면 수입이 배로 생기겠지만, 인건비도 배로 나가고, 만약 잘 안될 때는 손해도 곱절로 볼 수도 있다. 작지만 강한, 작지만 알찬, 작기에 덜 힘든 강소농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착 후 교육을 잘 받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귀농과 귀촌을 같이 생각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라면 더욱 그렇다. 기술센터를 활용한 각종교육과 멘토 확보에 공을 들이고, 진정한 강소농의 꿈을 실현하기 바란다. 누가 무얼 심어 얼마를 벌었더라는 것은 무시해야 한다. 조수익은 맨날 들어봐야 의미가 없다.

다섯째, 지원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 귀농하는 사람들 중에 “고창에 오면 뭘 주나요?” “돈은 얼마나 줘요?”라고 묻는 이들이 있다. 도시에서 시골 오는 게 다 자기 개인사정 때문이지, 시골에서 오라고 목매어 애걸하는 건 아니다.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자신입장과 상관없이 지원 사업을 받게 되면 결국엔 자부담금액은 날아가고 용자부분은 빚으로 남게 된다. 열심히 하다보면 지원받을 기회도 온다. 다만, 지원이 목표가 되면 안 될 것 같다.



익심은 비우고, 마음은 채우고 고창에서 시작한 새로운 '미래'



Q. 귀농지로 고창을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우연히 들른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더욱이 ‘마침 빈 집이 있으니 무료로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는 말에, 수저 두 벌, 이불 한 채, 냄비 한 개만 들고 내려왔다. 처음에는 집도 땅도 없이 그저 ‘일단 살아볼’ 각오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농업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당을 받는 인부로 벌초하는 일, 바지락 캐는 일 등을 가리지 않고 했다. 고창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Q. 고창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다, 자랑 한번 해준다면?

“고창은 오로지 농업으로 특화된 고장이다 보니 오염이 되어 있지 않은 ‘청정’지역이다. 게다가 땅이 넓어 대부분 대농이다 보니 농작물의 수확량도 많다. 집이 비어있어도 우애 좋은 형제처럼 소리 소문 없이 문 앞에 농작물을 놓고 간다. 인심이 후하다 보니 오고가는 정이 쌓이면 서 지역민들과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송씨는 회상했다. “처음엔 낯설었던 고장이었지만 마음도 포근해지면서 ‘내 고장’이라는 애착이 절로 생긴 것 같습니다. 더욱이 산과 바다가 모두 함께 있어서 더욱 좋지요.”

Q. 앞으로의 꿈과, 목표는?

고창으로 내려온지 햇수로 3년이 지났다. 아직까지는 농업으로 이렇다 할 소득이 없었다. 하지만 은퇴 후 내려온 만큼 농사로 큰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가지는 않는다. 다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밭 작업을 하는 시기로 여기고 있다. 산과 이어진 밭에 친환경 복숭아나무를 심었고, 하우스에는 종과 색이 다른 세 가지의 포도를 심었다. 복숭아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하고, 포도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확할 수 있을 것 같다. 다행히 세 가지 종류의 포도의 수확시기가 같아 ‘삼색 포도’를 계획 중이다. 건강하고 맛있는 삼색 포도를 가꾸는 일에 매진하고 싶다.



은퇴 없는 여자 농부
성공가도 김소연 씨 (전북 남원, 고사리)

“돌산에서 키워낸 고사리
행복한 노후 보장”





‘제2의 인생’ 귀농을 준비하다가 발견된 암.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 무너질 수 없었다. 수술 후 우울증 극복을 위해 뛰어난 고사리 농사. 이제 딸도 도시생활을 접고 농업마케팅을 전담한다. 척박한 환경을 극복한 고사리 농부의 성공은 철저한 준비와 열정의 결실이다.

김소연 씨의 귀농이야기



- 귀농 전 거주 지역 인천
- 귀농 전 직업 웨딩드레스 숄 운영
- 귀농 결심동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 귀농 선택작목 고사리
- 귀농귀촌 교육이수 실적 실상사 귀농학교 12기 (3개월 합숙, 2004년)
- 귀농 연도 2008년
- 귀농시 나이 47세
- 귀농지 선택사유 귀농학교 동기들이 많이 모여 있고, 고향(광주)과도 가까워서
- 귀농시 영농기반 없음
- 귀농 초기자금 토지 매입비용 2억 3천만 원
집 건축비용 1억 5천만 원
- 현재 영농규모 고사리 밭 1만평
- 연간 수익 1억 7천만 원



정말 시골엔 먹고 살게 없을까?

초가을 논과 밭에는 물감을 칠한 듯 농작물이 색을 더하며 익어가고 있다. ‘어머니의 산’ 지리산 자락 남원 산내에 고사리 재배를 시작한지 5년째가 되어 간다. 20대 젊은 나이에 야외 예식장과 드레스숍을 경영하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1997년 몰아닥친 IMF의 태풍은 나에게도 비껴 갈 수 없는 현실이었다.

사업을 접고 쉬는 중 복잡한 도시를 피해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우리나라 귀농인의 산실인 실상사 귀농 학교를 만나게 됐다. 3개월 합숙 귀농교육을 받으면서 도시에서 태어나 농촌생활을 해본 적이 없던 나에게 실습위주인 교육은 아주 매력적이었다.

귀농교육을 수료하고 동기 졸업생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며 귀농에 대한 애착이 깊어져 갔다.

먼저 귀농한 선배들은 “시골에 와서 무얼 해서 먹고 살려고?”라며 힘들다고 하시고, 동네 어르신들은 “비전도 없는데 힘들게 왜 시골로 내려오려고 해!”라며 말리셨다.

‘정말 시골은 먹고 살게 없을까?’,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몸으로 뛰는 일 밖에 없는 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시골 어르신들은 농사로 자식들을 대학까지 가르치고 아직도 농촌을 지키며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나도 열심히 일해 보면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년퇴직 없이 일 할 수 있는 곳이 농업이라 했던가! 오기가 생겼고, 일단 한번 해보자하는 맘으로 귀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2008년 산내면에 시골집을 구하게 됐다. 하지만 옛날 가옥집이라 여러

모로 불편하기도 하고, 평소에 꿈꾸던 황토 집을 짓고 싶었던 맘에 황토 집을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 전에 황토 집짓기 실습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가져보는 내 황토 집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인생에 재미가 없다고 했던가. 집을 지으려 공사를 착공했는데 우연히 했던 검사에서 암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 순간부터 난 암이라는 병마를 안고 꿈의 집짓기를 시작해야만 했다. 정말 앞이 캄캄했다. 어차피 백년도 못 살 인생인데 좀 더 살아있음 뭐하나 싶은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 갈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빨리 해야 한다고 했지만 혼자이다 보니 집짓기를 마무리 해줄 사람도 없었다. 황토집이 올라가는 기쁨은 뒤로 한 채 어서 빨리 마무리 지어 달라고 부탁해야만 했다. 서울과 남원을 오가며 어떻게 집이 지어지지도 모르

게 집은 완성됐고, 그것을 본 후에야 수술을 할 수가 있었다.

몸은 입파선으로 전이되어 방사선 치료를 해야 했고, 면역력은 극도로 약해져 있었다. 약해진 면역력 때문인지 치아는 다 흔들려 음식을 먹기조차 힘들었고, 반갑지 않은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하지만 처한 현실을 비판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겐 하나뿐인 딸아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여자이기 전에 엄마이기에 딸의 출가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금 정신



을 차릴 수밖에 없었다.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농사를 짓자는 생각이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재배할 땅과 작물을 찾아다니던 중 산내면은 고사리와 사과를 주로 재배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내 적성엔 사과보다는 고사리가 더 맞다는 판단을 했고,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서적, 전문가들을 찾아다녔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체험해가며 고사리 작물을 준비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재배기술 여쭙보면 “도시 사람이 무슨 힘든 농사냐”면서 손 사례를 치며 만류 하셨다.



홀리듯이 마련한 1만평의 밭 개간에 ‘녹초’

재배 면적도 처음엔 1000평정도 생각했다. 그 정도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땅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1만500평 되는 땅을 팔겠다는 사람이 나왔고,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의 땅을 사게 됐다. 땅을 매입한 후 정신 차리고 보니 몇 십 년이나 묵은 밭인지라 잡목과 잣나무들로 우거진 3ha의 밭을 개간해야 하는 일이 내게 닥쳐있었다. 딱 봐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시청을 들락거리며 개간신청을 하고, 포클레인과 사람 손으로 암석을 옮기면서 점점 밭의 모습이 드러났다. 매입한 밭이 돌산이라 밭의 면모가 드러나기까지는 돌을 골라내고 또 골라내야 했다. 일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트랙터를 직접 배워 운전하며 돌들을 실어 나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퇴비뿌리고, 로터리치고 나면 녹초가 되어 흙투성이 된 몸으로 집에 오면 씻을 기력도 없어 그냥 자리에 눕



기가 일쑤였다. 쉴 수 있는 밤이 있음에 새삼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른다. 그 고마움도 잠시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거운 돌 나르느라 고생한 손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랐다. 손가락의 상태가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며 손을 쓰면 안 된다고 한다. 이제 농사 시작인데 손을 쓰지 말라니……. 이게 무슨 신의 장난이냐는 생각에 의사 선생님의 말을 한 귀로 흘려버린 채 아침이 되면 여전히 밭으로 향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 행색은 우아한 드레스 슝 원장에서 갓 탈복한 난민이라 놀릴 만큼 변해있었다. 동네 분들은 얼굴은 여자인데 웬 통이 그렇게 크냐며 “우리네 자식들은 땅이 놓고 자빠져 있어도 농사짓기 싫어서 내려오지 않는데 여자가 목전 밭을 밥풀 떼먹어도 좋을 만큼 깨끗하게 만들어서 멧돼지 안 내려와서 좋다”며 “상 줘야 허~ 암! 막걸리도 사 줘야 허~!”라고 칭찬하셨다. 이럴 때면 힘들었던 시간을 잊을 만큼 기분이 좋아졌다.

처음에는 바보스런 짓 한다고 한마디씩 던지던 어르신들도 밭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고사리 나올 때 나 꼭 불러 줘야해!”라고 말씀하곤 하셨다.



3년만의 첫 수확 땀 희열의 눈물까지

고사리 종자를 심고, 퇴비를 주며 정성스레 밭을 관리한 지 3년째 되던 2011년 드디어 첫 수확을 했다. 그 동안에 흘린 땀과 노력의 결과를 고스란히 말해주듯 고사리는 잘 자라 주었고 지난 3년의 시간이 필름처럼 머릿속을 지나갔다. 마음

은 감격, 기쁨, 희열이 교차했고 눈가는 절로 축축해졌다.

나의 첫 농장인 ‘흙처럼 농장’이 있기까지 동네 어르신들, 친 남동생 등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내 자신에게도 힘들었지만 잘 해냈다고, 장하다고 격려를 보냈다.

밭의 면적이 큰 만큼 고사리 생산량이 많아 소매판매보다는 도매 쪽으로 판매 경로를 알아보았고, 전국 이리저리 밭품을 판 덕분에 판매는 순조로웠다. 소매는 지인들에게만 판매했는데 지인들이 또 다른 분들께 선물하면서 우리 고사리를 맛보신 분들의 구매가 점점 늘어나 지금은 개인판매도 30% 정도로 늘었다.

또한 청정지역인 지리산에서 재배를 하고 중국산이나 수입산에 비해 식감과 맛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덕에 국산 고사리의 가격이 꾸준히 올라 1kg에 7~10만원 거래 되고 있다. 올해는 ‘흙처럼 영농법인’으로 등록도 하고, 종근 뿌리도 판매해 1억7000만 원 정도 소득이 올랐다.

농업이라는 것이 할 때는 몸이 힘들지만, 하면 할수록 애착이 생기고 더 질 좋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욕심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농업의 매력 아닐까…….

이런 욕심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엔 한국농업벤처대학교에 입학했다.



1박2일 수업에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들지만 수업하는 날이 되면 설레는 맘에 2시간 넘게 가는 학교길이 즐겁기만 하다.

‘농업도 경영이다’라는 말을 실감하면서 항상 준비하고 배워야한다고 생각한다. 급변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공부도 해야 하기에 늘 처음의 마음으로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제자리에 안주하는 내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딸도 든든한 지원군으로 ‘난 성공한 사람’

작년부터는 든든한 지원군이 하나 더 생겼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딸이다. 도시에서 자기 숲을 운영하면서 본인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대학원을 나와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던 딸이 엄마와 함께 하겠다고 누리고 있던 모든 생활과 꿈을 접고 시골로 내려온 것이다.

늘 팍팍한 도시보다 여유가 있는 시골에 내려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내려 올 줄이야. 내 마음이 전해진 것일까……. 딸아이에게 고맙고, 하늘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딸이 맡은 포지션은 농업마케팅이다. 맡은바 임무를 다 하기 위해 지금은 남원 명품농업대학과 한국농업벤처대학, e-비즈니스 수업 등을 들으며 차근차근 농업을 배우고 있다.

처음 귀농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밭을 개간하고 수확해서 소비자의 손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매순간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맘이 들 때가 많았지만 그 힘든 만큼 나에게 찾아온 건 괴로움보다 기쁨이었다. 우울증 또한 언제 그

랬냐는 듯이 긍정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었고 자신감도 100%로 상승 되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들던 암도 극복하게 만들었다.

성공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라면을 먹어도 좋아서 미치는 일을 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나에게 농업은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스스로 만족하고 있고, 어떠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귀농을 꿈꾼다. 하지만 귀농은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꿈만 꾸다고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꿈을 이루기위한 철저한 준비와 열정만이 성공을 보장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만큼 예비 귀농인들도 꿈만 꾸는 것으로 부푼 귀농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열정으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돌산에서 걷어 올린 희망,
고사리와 함께하는 대농의 꿈



Q, 1만 평 고사리 밭을 개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암수술을 하고 찾아온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농사가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파내고 파내도 끝을 보이지 않는 돌이 문제였어요.” 김씨가 구입한 땅은 여러 사람이 탐내는 명당이었지만, ‘돌 밭’이라고 부를 정도로 돌이 많아 모두가 손사래를 치며 돌아선 땅이기도 했다. 직접 트랙터 운전을 배워 큰 돌을 거르고, 일일이 손으로 작은 돌을 골라내는 과정만 세 달 남짓 계속 됐을 정도였다. 개간을 마치고 퇴비를 뿌려 가며 예정지 관리를 시작할 때쯤엔 웃돈을 얹어줄 테니 땅을 다시 팔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Q, 귀농에 대한 나만의 철학이 있다면?

“적게 벌어서 적게 쓰고, 적게 먹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직접 농사를 지어보니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김씨는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걸 택했다. 소비하면서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많이 베풀고 살고 싶다는 뜻이다. 덕분에 일감이 없어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씨는 일손을 구해서 좋고, 노인들은 함께 나와 고사리를 캐면서 ‘수다’를 통해 무료를 달랠 수 있게 됐다고.

Q, 앞으로의 꿈은?

김씨의 ‘휴처럼 농장’은 올해 초, 영농법인으로 전환했다. 보다 더 큰 도약을 위해서다. 농업인으로서 경영인으로서 체계적인 부농교육을 받기 위해 농업벤처대학에도 입학했다.

도시에 홀로 남았던 김씨의 딸이 남원으로 내려오면서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김씨는 생산을 전담하고, 김씨의 딸은 유통과 마케팅을 전담하는 ‘투팀’체제로 안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요양하러 왔다가

귀농 전도사 된 김종윤 씨 (전북 순창, 꾸지뽕)

“꾸지뽕 키우면서 건강도
인생도 꽃 피웠어요”





5년 동안의 병상생활을 굳건히 지켜주던 아내마저 인공심장판막 이식술과 부정맥 확장 수술을 받았다. 몸을 추스르기 위해 찾아온 순창의 월곡마을. 농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건강도 일도 찾은 당당한 농사꾼이 되었다.



김종윤 씨의 귀농이야기

• 귀농 전 거주 지역	인천
• 귀농 전 직업	생산직
• 귀농 결심동기	요양
• 귀농 선택작목	꾸지뽕
• 귀농귀촌 교육이수 실적	없음
• 귀농 연도	2006년
• 귀농시 나이	55년생
• 귀농지 선택사유	처가인근
• 귀농시 영농기반	없음
• 귀농 초기자금	1억
• 현재 영농규모	농지 3,000평
• 연간 수익	6천만 원 (꾸지뽕 3,500만 원 이상, 묘목, 고사리 등 2500만 원)
• 향후 계획	꾸지뽕 가공 공장 건축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려고 온 월곡마을

내 고향은 전북 정읍이다. 어렸을 적 도시로 나가 인천에서 살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산 좋고, 물 좋은 청정지역인 이곳 순창으로 7년 전에 이사를 왔다. 그 때 당시에는 몸이 너무 아파 힘든 농사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저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이나 하려는 생각이었다. 마침 처갓집이 순창 팔덕면 월곡리이기에 이곳 월곡마을로 오게 됐다.

처음 이곳에 올 때, 땅 640평을 구입해 집을 지으려고 했다. 하지만 처음 집을 지으려 할 때부터 쉽지는 않았다. 마을에서는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 집의 위치가 마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었다. 마을 상류에 살면서 축산업을 할까봐서 집을 못 짓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절대 축산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게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 문제로 마을에서는



임시 총회가 열렸고 찬반 투표까지 했다고 한다. 그 결과는 5대 5라고 전해 들었지만 그래도 집은 계속 지을 수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던 그때 돌파구가 된 계기가 있었다. 당시에 월곡교회 목사님이 팔덕면 독거노인 70분에게 반찬도시락을 배달하고 계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누어 드리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됐다. 집을 지으면서도 봉사 활동 하는 날에는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했다. 그런 노력 때문이었는지 집을 짓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집 짓는 일이 거의 마무리 될 무렵은 가을 추수 때가 다되어서였다. 아스팔트 도로가에다 벼를 말릴 때였다. 오가다보니 다 말린 벼를 자루에 담은 일도 어른들에게는 힘든 일로 여겨졌다. 그래서 그 일이 보일 때마다 가서 도와 드리게 됐다. 아무런 의도도 없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했던 일이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의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추수가 끝나고 나니 그분들이 제일 먼저 쌀가마니를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오신 것이었다. 농사를 짓지 않던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은총 같은 선물이었다. 40킬로그램의 쌀을 1포씩 가져다 주셨는데 집안에는 일곱 포대가 쌓였다. 그 쌀은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충분히 먹을 식량이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했던 기억들이다.



주민들과 함께 살다보니 '성공한 귀농'

이런 일이 있으면서 내가 가진 기술을 통해 보일러도 무상으로 고쳐드리고 차량봉사도 시작했다. 말이 봉사지 그리 거창한 일도 아니었다. 순창에는 5일마다

장이 서는데 차가 없는 분들을 위해 장터까지 모셔다 드리고 장터에서 점심도 같이 사 먹었다. 그럴 때마다 잔잔한 정담들을 나누며 가까워 질 수 있었다.

또한 마을에 농악단이 있었는데 농악에 취미를 붙이면서 지역 주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게 됐다. 행사가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면서 마음이 통하게 된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 더 합심하려고 노력했다.

이듬해 마을 농가에서 수확한 오디와 복분자를 서울과 인천에 사는 지인들에게 직거래로 팔아드렸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나는 대부분의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해 드렸는데 고사리와 잡곡, 고추 등은 직거래 고객이 많이 늘어나 지금은 인기가 아주 좋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처럼 너무나 친숙한 마을 주민이 되었다. 이렇게 마을 분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 부부의 건강도 좋아졌고, 살림살이도 늘어나면서 이제 당당한 농사꾼이 되었다.

꾸지뽕 묘목을 재배해 많은 소득도 올렸고 3000평이 넘는 부지에 꾸지뽕 농장을 만들었으며 이제는 꾸지뽕나무를 분재와 관상용으로도 만들어 농가 부업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꾸지뽕 가공식품 개발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 우리 농장을 관광농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부부가 건강을 되찾은 것을 꼽을 수 있다. 지금은 이곳에 이사 오길 참 잘 했다고 부부가 얘기한다. 농가소득도 늘어나 지금은 연간 60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어 행복한 귀농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던지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꿈꾸고 있다. 그 중에 6가정(17명)이 이곳 순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가는데 자연스럽게 홈스테이를 하게 된 이유다.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머무는 동안 귀농 후의 삶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정말 반가운 일은 또 있다. 귀농인들과 함께 마을에 빈집들을 보러 갔을 때 마을 분들이 얼마나 친절을 베풀어 주는지 모른다. 진심으로 예비 귀농인들을 환영해 주시는 탓에 감동하여 꼭 이 마을에 오고 싶다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집들을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순창서 얻은 경험, 귀농인들에게 모두 전할 생각

장류의 고장 순창에 이사를 와서 제일 먼저 배우고 싶었던 것은 고추장, 된장, 청국장 만드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마을 할머니들을 집으로 모셔다가 고추장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장 담그는 방법을 배우면서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어르신들에게 배운다는 자세로 다가서니 할머니들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모르는 부분은 일부러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 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기도 했다.

그렇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실시하는 장류 만드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게 됐고, 지금은 아주 맛있는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을 만들 수 있다.

이제는 내 나름의 비법을 레시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도시에 사는 형제들과 교회의 아는 사람들을 통해 상당한 양의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민들과의 직거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다 팔수 있으므로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 된다. 정성을 들여 정직하게 거래를 하면 신뢰를 쌓게 되고, 그 신뢰가 소개로 이어져 거래처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곳 순창으로 귀농·귀촌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고추장, 된장, 청국장 만



드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함께 연구하여 순창의 장류사업 발전에 힘을 보태고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다.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살 계획이다.

꾸지뽕 농사는 다른 작물에 비해 농가 소득이 많은 반면에 노동력은 적어서 아주 효율적이고 부가가치도 높다. 꾸지뽕나무를 접목하는 기술이나 재배 방법, 판매 방법 개발에 더욱 경주할 생각이다. 꾸지뽕을 첨가한 식품 개발 연구를 통해 부수적인 농가 소득은 물론 순창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 이를 위해 그동안 경험한 모든 기술은 순창이 좋아 귀농 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공개할 예정이다.



도시에서 살다 왔다고 더 잘 난 것은 없다

이런 생각들이 결실을 얻었는지 이번에 또 다른 두 가정이 귀농을 결심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스스로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서라는 것이다. 농촌은 지역이 매우 좁아서인지, 아니면 낯설음에서 오는 편견 때문인지 외부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매우 심하기도 하다. 우선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지켜보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타지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이 간혹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지역 주민들과 빠른 시일 내에 가까워져야 좀 더 편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며 정착이 빨라진다는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한두 가지 정도는 같이 해야 할 것 같다. 나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재단에 가입해 봉사하면서 보람을 얻기도 한다.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돌이켜보면 내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이 그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마을 사람들과 마음이 통해야 그들과 친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소통하려고 노력한 것은 아니다. 그저 진심을 다해 도왔고, 진심으로 배우길 원했고, 진심으로 이 마을주민이 되고자 했기에 마을 사람들도 그 진심을 알아주게 되면서 마을 분들 역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 주신 것 같다.

진심은 이렇게 통한다. 도시에서 살다 왔다고 마을 주민들보다 더 잘 난 것은 없다. 도시에서 알던 지식이나 생활 방식들은 오히려 이곳에서 쓸모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도시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배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남을 먼저 존중해야 나도 존중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통하는 가장 기본인 것이다. 이런 기본에만 충실 하다보면 빠른 정착의 지름길이 되리라 생각한다.



꾸지뽕 재배 노하우,
모두에게 나눠주고 싶다



Q, 2006년 귀촌 후, 꾸지뽕 농사를 짓기 시작한 4년 이전에는 뭘 했나?

“처음 3년 동안은 정말 ‘놀았다’는 표현이 어울릴 겁니다. 힘든 일은 할 수 없으니 동네 어르신들 심부름이나 해가며 3년을 보냈어요.” 김씨 내외가 순창으로 내려올 당시는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김종윤씨는 3번 요추 손상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5년 동안의 병상 생활 끝에 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아내 박길순씨는 심장판막 이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인공심장판막 이식술과 부정맥 확장 수술을 받은 직후였다. 때문에 귀농귀촌보다는 요양이라는 말이 더욱 어울리는 상황이었다.

Q, 꾸지뽕을 재배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좋은 물과 맑은 공기는 김씨 내외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3년쯤 지나니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은 회복되었지만,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할지 막막했다.

“몸 아파서 내려온 사람이 무슨 준비를 했겠어요. 그냥 집 한 채 지어서 내려왔을 뿐인데, 꾸지뽕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김씨의 집이 자리한 산기슭에서 자라고 있는 야생 꾸지뽕나무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 꾸지뽕 재배의 시작이었다. 이후 지역에서 꾸지뽕을 재배하고 있던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어깨너머로 공부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Q, 꾸지뽕 재배, 어려움은 없었나?

꾸지뽕나무는 가시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김씨의 농장에서 재배하는 나무엔 가시가 보이지 않는다. 암·수구별이 있는 꾸지뽕나무의 개량종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가시가 없는 부분을 접목해 가시가 사라진 것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가시가 없어 효능이 떨어지는 외국 꾸지뽕이라는 오해를 얻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진안 약초연구소에 문의한 결과, 효능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가시가 사라진 덕분에 작목하기는 훨씬 수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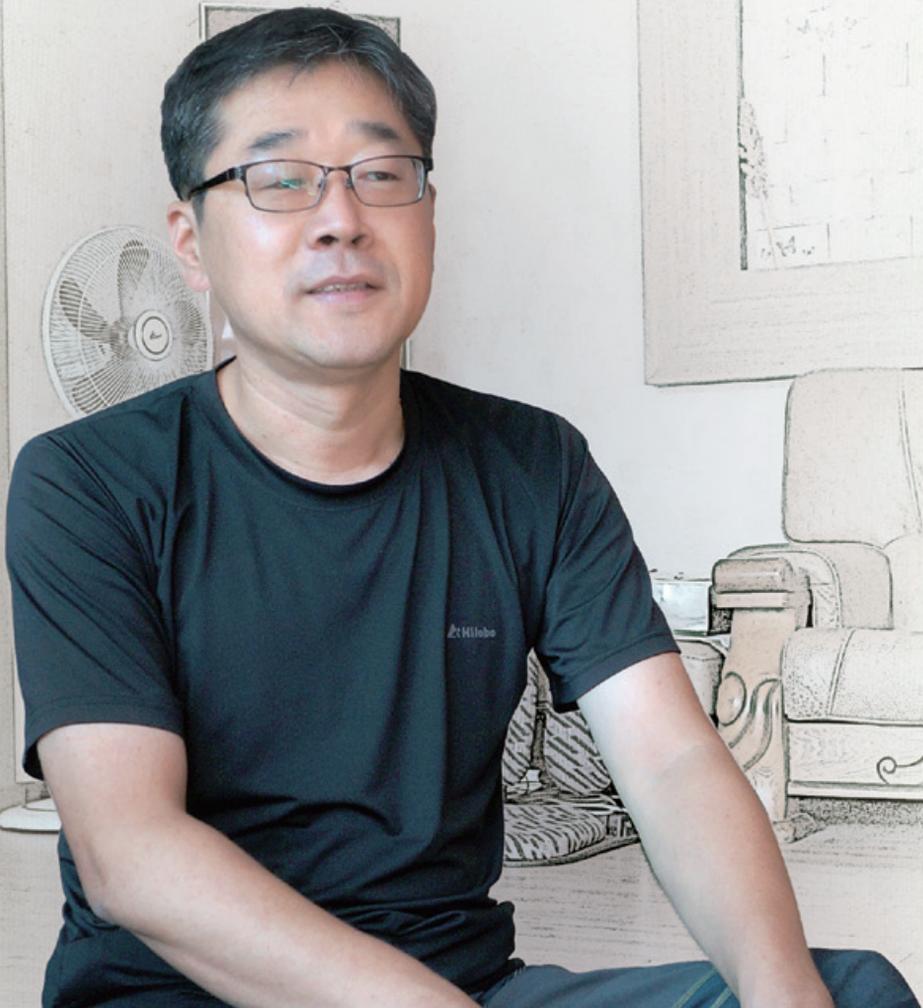


고향 마을로의

귀환 성공한 황선기 씨 (전북 정읍, 복분자·오디)

“복분자 농사도

경성 마인드 없으면 안돼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결행해야만 했다. 고향 마을로 돌아왔지만 시내에 거처를 두고 출퇴근하는 우리는 어른들의 눈에 이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적응기를 거치고 복분자 농사를 지으며 어른들과 소통을 해갔다. 이젠 시골생활의 불편함도 즐길 수 있는 작은 여유가 생겼다.

황선기 씨의 귀농이야기



• 귀농 전 거주 지역	인천
• 귀농 전 직업	출판업
• 귀농 결심동기	농업에 대한 비전
• 귀농 선택작목	복분자, 오디
• 귀농귀촌 교육이수 실적	없음
• 귀농연도	2009년
• 귀농시 나이	43세
• 귀농지 선택사유	고향 마을
• 귀농시 영농기반	없음
• 귀농 초기자금	없음
• 현재 영농규모	없음
• 연간 수익	2012년 1억7천만 원 / 2013년 상반기 1억 5천만 원



3년의 준비, 2년의 시내생활로 연착륙

요즘 언론에서 귀농귀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노후대책 또는 새로운 사업으로 농업을 선택하는 등 귀농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예전에는 도시의 삶이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요즘은 인터넷과 다양한 정보를 통해 농촌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편리한 도시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떠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도 편리한 귀농을 결심했지만 많은 망설임과 걱정에 섣뜻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다. 귀농을 꿈꾸며 머릿속으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채의 집을 짓기도, 부수기도 했다. 어떤 농사를 지을 것 인지, 시골에서의 정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며 귀농교육을 하는 곳을 찾아 강의를 듣고, 자료도 찾아 읽으며 준비한 기간만 3년이었다.

나를 귀농공부를 하고 결정을 내린 시기는 2009년 2월. 큰아이가 고3, 작은아이는 중3이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하려고 시골로 가려는지 모르겠다며 반대 했고, 아이들도 크게 반기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내 나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귀농을 하는 게 옳다는 생각에 고3인 큰아이만 외할머니께 남겨두고 고향인 정읍으로 내려왔다.

어린 시절 시골집을 떠나 도시에서 살면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선물꾸러미를 들고 찾던 고향 작은 마을로의 귀농은 가족 모두에게 포근한 안식처 같은 느낌보다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공간과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선은 정읍 시내에 작은 전셋집을 마련했다. 연착륙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

우리 부부는 시골마을로 출퇴근을 하며 주변도 익히고, 농사일도 배우고, 농업

기술센터에 다니며 교육도 열심히 받았다.

일 년 동안 서툰 솜씨로 고추농사를 조금 지으며 얻은 수익은 도시에서의 한 달 월급도 되지 않은 적은 금액이었다. 그저 헛웃음만이 나올 뿐이었다.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현실은 책으로 보고 교육센터에서 몇 시간씩 강의 듣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참 많았다. 관행으로 농사를 지어온 시골 어른들과의 소통은 참 어려운 문제였다. 아무리 좋은 농법이라 해도 어르신들의 경험과 관행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설명도 해 보았지만 교육으로 배운 다양한 농법과 관행농법의 차이점을 좁히는 것은 가장 큰 어려움 일 뿐만 아니라 넘기 힘든 벽과도 같았다.



시내에서 아이학교 보내고 8시쯤 시골마을로 들어오는 우리부부를 보며 “무슨 일을 해가 중천에 뜬 뒤”에 시작하느냐며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 저녁 무렵 퇴근하는 모습을 보며 “일을 하다가 말고 간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

새벽녘 동틀 때 나와 논과 밭을 둘러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다 해 지면 고단한 몸을 눕히는 시골어른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게으르기 이를 때 없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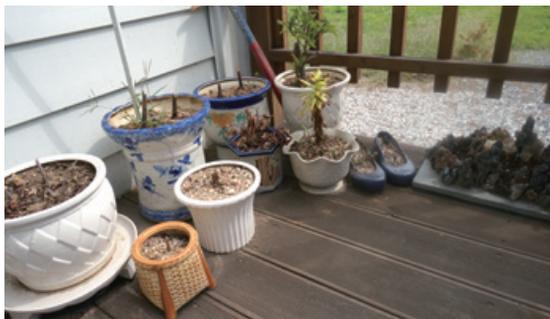
수시로 교육이 있다며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도대체 뭘 한다는 것인지…”, “뭘 교육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받는다는 것인지…”라 여기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다. 저녁 무렵 마음에 맞는 분과 막걸리 한잔 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듣고 방향을 조금씩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홍보·판로 걱정 없고 2차 가공 쉬운 복분자 선택

귀농을 계획하며 여러 가지 고려할 문제들이 많지만 어느 곳에서 어떤 작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1년 동안 교육과 견학을 반복하며 우리는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작물인 오디와 복분자를 선택 했다.

복분자라는 작물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지역의 특산물, 지역의 브랜드를 선택한 것이었다. 지역에서 홍보도 많이 해 주고, 판로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또한 재배방법이나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과 2차 가공 상품으



로도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선택한 것이었다.

시골생활을 하면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생각했다. 물론 도시보다는 적게 들어간다. 그래도 꼭 들어가야 하는 고정비용이 있는데 농사로만 그 비용을 만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귀농이나 귀촌, 전원생활을 하려면 무조건 꼭 필요한 것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택도 있어야 하고, 농지도 있어야 하고, 농기계도 구입해야 하고, 농사 운영비도 있어야 하고 더군다나 꼭 필요한 생활비, 아이들 학비 등.

귀농 후 2년차. 교육에서 듣고 배운 대로 우선 가공공장을 짓기로 했다. 시골에서는 땅의 분류가 참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다. 눈으로 보기에는 논인데 토지대장에는 대지, 전, 답 등으로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 면적과 서류상의 면적이 크게 다를 뿐 아니라 대지가 아닌 경우 건물을 짓고자 할 때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지출 등 가공공장 계획에서 착수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했다.



귀농자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정부에서 귀농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 귀농자금을 문의해 보았다. 정부 귀농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평가제이므로 선정과정과 수급이 참 어려웠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조건도 너무나 까다로울 뿐 아니라 지원 자금 또한 저리로 해 주는 융자였다. 그것도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없으면 불가능했다.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 준비한 서류만도 그야말로 한보따리였다. 우여곡절 끝에 2010년 4월 드디어 가공공장을 짓기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가공공장을 준비하

는 중간 중간 오디발, 복분자밭도 조성하고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린 시간이었다.

교육을 받고 가공공장을 짓고 여러 가지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소소한 일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교육에서 배운 대로 블로그를 통해 기록해 나갔다.

우리를 알리기 위한 작은 소통으로 시작한 블로그는 시골에서 좌충우돌 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달하며 도시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알게 되었고 생활의 활력도 되어 주었을 뿐 아니라 직접 생산, 가공한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했을 때 아낌없는 응원과 함께 구입을 해주는 소중한 고객이 되어주었다.

도시에서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과 SNS는 꼭 배우기를 권한다. 농산물을 가공하고 또 직거래 하지 않으면 힘들게 농사 지어도 손에 쥐는 돈이 적다. 그래서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다.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SNS는 반드시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귀농은 3년을 준비하고, 수입 없이 3년을 견딜 수 있어야 성공한다”는 얘기



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귀농 후 1년은 교육으로, 2년째는 가공공장 짓는 일로, 3년째는 보금자리인 집을 완성한 것으로 완전한 귀농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리고 가슴 뿌듯한 첫 제품도 출시되었다.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지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 입점하면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계획, 실행해 갔다. 다양한 교육과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정보를 배웠다. 기존 농민들은 그저 생산자로서 충실하면 되었지만 사회가 바뀌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1차 농산물 또한 단순 재배, 생산이 아니라 재배, 생산, 가공, 유통, 판매, 기획하고 책임까지 져야 하는 요즘 제품을 디자인 하는 경영 마인드가 없이는 농촌에서 살아남기는 힘들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꼈다.

우리부부도 블로그뿐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시작했다. 어찌던 도시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굳이 몰라도 되는 부분까지 늦은 밤에도 눈 비비고 앉아 배우고 챙겼다. 농사도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악착같이 공부했다. 매일같이 사진을 찍고 기록하며 끈임 없이 쏟아지는 정보를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며 실천해 나갔다.

10가지를 배우면 꼭 한 가지라도 실천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했다. 그러다 부부간에 큰 다툼도 있었지만.



정신없이 달려 온 4년, 이젠 막걸리 좋아하는 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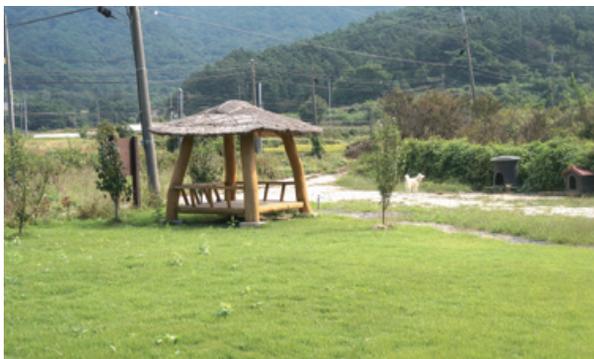
그렇지만 힘들어도 함께 이겨나가야 하는 과정을 거치며 살다보니 이제는 귀농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황가네농장을 찾아오셔서 함께 공유하고 토론도 하게 되었다.

귀농 후 4년. 어느덧 즐겨하던 와인보다는 막걸리가 더 좋아졌다. 뽀뽀하게 들 어선 도시의 건물보다는 눈뜨면 마주하는 높은 산이 더 정겨워졌고 먼 길 찾아와 주시는 손님이 너무나 반갑다.

아이들 성화에도 절대 반대를 고수하며 키우지 못하게 했던 동물에게도 친구인 듯 다정히 말을 건네게 되었고 논으로, 밭으로 장화신고 뛰어 다니며 간섭도 하고 신기해하고 자연이 주는 선물에 감사하게 되었고 시골생활의 불편함도 즐길 수 있는 작은 여유가 생겼다.

앞으로 시골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뛰면 행복한 일이 가득 할 것이라는 희망을 4년이란 시간이 선물해 주었다.

만약 귀농을 꿈꾼다면 절대 대단하고 거창한 성공비결에 한눈팔지 말고 현재에 서 조금 다르게, 지금보다 조금 낮게 그렇게 천천히 시골생활에 적응해 가다 보면 작지만 강한 농부가 될 수 있다.



태극기 휘날리며,
정읍시민으로 돌아오다!



Q,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도 많다. 귀농 5년차인 황씨부부는 귀농에 안착한 경우로 요즘은 귀농멘토가 되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귀농귀촌에 관심을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 정착지원금에 대한 문이다. 하지만 황씨는 단호하게 말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라고. 황씨가 정읍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 받은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대한민국 태극기였다고.

Q,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경영’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창기 농사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농업=사업’이라는 의식이 부족하다면 귀농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정읍으로 이주했던 첫 해(2009년) 3월 이 지역에 귀농귀촌한 사람은 76명이었다. 그해 12월에는 24명이 남았고, 지금은 나를 포함해 4명만이 남았다. 시골에 대한 막연한 기대, 귀농에 대한 불성실한 준비는 귀농 실패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돌아온다. 도시에서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했어도, 시골에 내려오면 ‘망해서 내려왔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지혜도 필요하다.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된다.

Q, 인기 블로거인 ‘항가네 농장’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블로그는 접근성이 뛰어난 홍보의 장이다. 전국, 전 세계 어디서든 우리의 정읍 소식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재배한 농작물은 물론 인근 고장의 소식까지 두루 올렸다. 지금은 4000여 명이 넘는 분들과 이웃으로 교류하고 있다. 블로그를 통해 이뤄지는 직거래 매출도 높은 편이다. 우리가 귀농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 과정도 꼼꼼히 소개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입선

제2 인생 멋지게 꾸며가는
‘월암공주’ 이인자 씨 (전남 순천, 건나물류)

“산야초 장아찌와 건나물로
불안한 미래 잡았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자영업을 하는 남편의 불확실한 미래가 귀농귀촌을 결정하게 된 계기였다. 하지만 마을 어른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서 새로운 인생을 배워간다. 농사와는 담을 쌓고 살려던 생각이 바뀌어 귀농귀촌인들에게 희망이 꿈을 전하고 싶어졌다.



이인자 씨의 귀농이야기

- | | |
|----------------|-------------------------------------|
| • 귀농 전 거주 지역 | 순천 시내 |
| • 귀농 전 직업 | 주부 |
| • 귀농 결심동기 | 미래에 대한 준비 |
| • 귀농 선택작목 | 건나물류 (고사리, 취나물, 죽순, 호박, 가지),
장아찌 |
| • 귀농귀촌 교육이수 실적 |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교육 |
| • 귀농연도 | 2011년 |
| • 귀농시 영농기반 | 없음 |
| • 연간 수익 | 2012년 1000만 원 |



지긋지긋해 떠나려던 농촌으로 돌아오다

충청도 공주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시골 생활이 지긋지긋해 언제든 시골을 떠나야 한다는 마음으로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해 직장생활을 했다. 농사와 관련된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계획은 성공했지만, 지금 내 직업은 농업인으로 바뀌었다. 아직 내 인생이 성공인지, 실패 인지는 가늠이 잘 안 된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2008년까지 귀농귀촌은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일이었다. 그저 평범한 주부로 살면서 남편의 큰 배려로 뒤늦게 대학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원생활대학 과정을 한다며 같이 다니기를 권유했지만 나오는 거리가 먼 생활이라며 거절했다. 그런데 주변에서 한두 명씩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나도 순천시 전원생활대학 과정을 접수하고 말았



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남편까지 동행하고 말이다.

우리 부부는 전원생활대학 과정을 무사히 이수했다.

최종적으로 귀촌을 결심한 동기는 자영업을 하는 오십대

중반인 남편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앞으로 아이 둘을 출가시키고 더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사업을 접어야 할 시점이 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늘 고민이었다. 남편도 흔쾌히 허락해주어 어렵게 터 넓은 시골집을 구입했다. 손수 인부들과 집수리를 시작하면서 나의 귀촌생활은 시작됐다.

한편으로 아이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아이들은 “우리가 결혼해 나가고, 아빠 엄마가 더 나이 들어 시골에서 아프면 병원이 멀어 어찌려고”라며 걱정했지만 지금은 제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줄 시골외가집이 생겼다면 좋아 한다.

처음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많았다. 포클레인이나 큰 차가 다니면 길이 망가지니 자제하라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됐다. 길을 만들 때 자신의 땅을 기부해 만든 길이니 자기의 길이라는 논리로 얘기 할 때는 마음이 상해 잠시나마 귀촌생활을 후회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마당 작업 과정에서 앞집 경운기 주차 공간을 만들어주고, 새로 지은 저온창고의 한쪽을 같이 사용하는 등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자 이웃은 그 누구보다 내게 큰 힘을 주시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다.

마을 분들을 만나면 언제나 반갑게 인사한다. 대부분 어른들이 반겨주신다. 그러다가도 내가 뒤돌아서면 등 뒤에서 “이런 시골에 뭐 해먹을게 있다고 왔을꼬. 쫓쫓...” 하시며 흉을 보기도 한다. 이제 뒤통수 가려운 그런 말은 못들은 척 지나쳐 버리는 것이 일상이 됐다.

우리 집은 마을 한가운데여서 수시로 마을 어르신들이 들리시는데, 그럴 때마다 간식을 준비해드렸다. 그러다보니 어느 때부터인가 단감, 고구마, 무, 야콘 등을 가져다주시며 젊은 사람과 함께 살게 되어 너무 좋다고들 말씀하신다. 나 또한





새로운 음식이 있으면 마을 회관 어르신들까지 챙기는 습관이 생겨 이제는 제법 ‘큰 손’이 되어버렸다.

옆집 아주머니는 “집이를 뭐라 불러야 하는지 알려 줘봐” 하신다. “저는 충청도 공주가 친정이고, 공주 이씨이고, 현재도 앞으로도 공부를 해야 할 주부이기 때문에 공주라 불러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아 그래, 공주 맞다. 집

이를 이제부터 공주댁으로 부를 테니 그리 아셔”하며 웃으신다.



산야초 장아찌와 건 나물로 짹짹한 수박

수리한 집은 제조시설로 용도 변경해 준공하고, 아주 많은 고민 끝에 외서면 월암리에 ‘월암마실’이란 이름을 붙이고 사업자등록까지 했다. 마을에서 땅을 임대하려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행히 집을 소개 해준 분께서 고맙게도 밭 700평을 무상으로 임대해주셨다.

2012년 봄, 처음으로 임대한 밭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호박, 가지, 토란을 심어 건나물을 만드는 것으로 나의 농촌 생활이 시작됐다.

2013년 봄부터는 시골에서 구할 수 있는 두릅, 가시오가피, 죽순, 엄나무순 등 봄나물을 이용해 산야초 장아찌를 열심히 만들어 나만의 제품을 만들었다. 하지만 제품을 보관할 저온창고가 없어 고민하던 중 ‘우수창업농 지원사업’으로 저온

창고와 조그마한 작업장을 건축할 수 있었다.

작년에는 저온창고가 없어 애써 만든 건나물이 습기로 인해 망가지기도 하고 이웃집 저온창고 신세를 지면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건나물, 장아찌 등을 저온창고에 맘껏 저장할 수 있어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모른다.

산지에서는 잘 거들떠보지도 않던 하품 농산물을 건조해 시장에 판매하면서 농가소득으로 째짤한 소득을 올리는 내 귀촌 생활을 눈여겨보시던 이웃 한분은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같이 하시자고 하신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50의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변한 것이 있다면, 뭔가를 배운다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스스로 가지게 됐다는 점이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꽃차 3급’ 과정과 자격증을 취득하여 귀촌생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꽃들로 꽃차도 만들고, 다른 방법을 응용해 야생차를 만들어 지인들과 나눔도 하면서 고객들에게 전하기도 한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자투리 시간에 천연비누 만들기를 배워 단호박, 자소엽, 당귀 등 농산물을 이용해 천연비누를 만들기도 했다. 농가에서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많고 조금만 신경 쓰면 여러 가지 천연비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아직은 서툴지만 나의 귀촌생활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어깨 너머로 배운 블로그, SNS를 통해 제품 판매경로도 조금씩 생겼다. 무엇보다 즐겁고 행복한 것은 이 시대를 사는 한 사람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

를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박한 시골 살이 이야기와 힘들었던 일, 즐거웠던 일을 나만의 이야기로 엮어낼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아동요리 공부를 이번 가을학기에 등록해 일주일에 한번 씩 열심히 배우고 있다. 다른 교육생들은 봄 학기에 수강을 시작했고 나만 초보학생이지만 뒤쳐지지 않으려고 요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열심히 배우고 있다.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귀농생활에서 나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시골생활을 한다면 발전이 아닌 정지가 될 것 같아서이다.

남편은 가끔 “공부는 언제까지 해야 끝나느냐” 묻기도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동안까지 공부는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열정이 없었다면 난 그저 남편만 바라보는 평범한 주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시골 생활을 결심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묻지만 그 누군가가 아닌 내가 시골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다른



귀농귀촌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하곤 한다. 세월이 더 흐른 뒤에 나이가 들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또한 행복이 아니겠는가.



마을 어른들과 함께 해서 더 행복한 귀촌생활

초보 농사꾼이다 보니 마을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저 소꿉놀이 정도로 보이는 지, 텃밭의 작물을 보면서 그때그때 조언을 해 주신다. 혼자 힘들어 하는 일은 직접 농기계로 말끔히 해 주기도 한다. 만약 마을 분들이 아직도 나를 ‘뜨내기’로 생각한다면 이런 도움을 주셨을까?

이런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마을 사람들과 나누려고 도울 수 있는 일에는 적극 동참하고 있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홍보는 물론 판매에도 열심이다.

마을 주민이 되었다며 텃밭에 밭 걸음까지 챙겨주는 이장님도 고맙고, 밤늦도록 멀치젓을 담아 주는 어르신도 계신다. 고추장, 된장 간 봐 주신다고 두 팔 걷어 부치고 도와주시는 어르신과 보리 엿기름 기르는 것 알려 주시면서 딸처럼, 며느리처럼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마을 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순천시 외서면은 주암호 상류 지역이다. 이런 특성에 맞는 작물을 이용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지대가 높기 때문에 배추, 무를 생산하는 농가가 많고 나 또한 무를 재배하기에 무를 이용한 맛있는 무장아찌와 한과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농촌에서 젊은이는 찾아보기 힘들고 노인들뿐이라는 이야기는 생소한 게 아니다. 게다가 절반 정도는 독거노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농촌 실정을 늘 걱정하며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중, 무장아

찌와 한과를 생각해 낸 것이다. 집집마다 무를 재배하고 있고, 한과 역시 농한기인 겨울에 만드는데 작업 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한 작업장에서 좀 더 위생적이고 편리한 환경에서 한과를 만들어 판매해 보기로 했다. 큰 노동력이 아닌 단순 활동을 통해 노인들의 무료함을 해소하고, 노인 소득의 기쁨과 동시에 마을의 발전을 위한 일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마을 어른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마을사업으로 이끌어 가고픈 마음이다. 이런 작은 노력으로 마을 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꼭 욕심내고 싶은 일이 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장아찌 요리를 담는 나만의 책을 만들고 싶다. 올 추석에 장아찌를 선물로 받으셨던 분들께서 짜지 않고 맛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줘 커다란 용기를 얻었다. 언젠가는 꼭 꿈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전업주부에서 전업학생,
이제는 전업농민으로



Q, '월암마실' 소개를 한다면?

“도시에 살 때도 ‘친화경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가족들에게 음식을 해주는 어머니 마음으로, 농사를 지은 곡식들이랍니다.” 순천시내에서 살다, 한 시간 남짓 거리의 시골 마을인 외서면 월암리로 이주한 이씨는 귀농을 준비 할 때부터 농사를 짓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공부했다. 무엇보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해 연구했다. 집 뒤뜰로 이어지는 대밭에서 나는 죽순으로는 장아찌를 담그고, 텃밭에 키운 호박, 가지와 산에 심은 고사리는 건나물로 가공한다. 시골 토종 아낙들처럼 억척스럽지는 못해도 월암마실의 모든 곡식들이 이씨의 손을 거쳐 시장으로 나간다. 모두가 무공해, 무농약이다.

Q,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2011년에 이주해, 2012년 가을 첫 수확을 거둬들였다. 첫 해 거둬들인 수확으로 매출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차근차근 늘어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초보 단계지만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와 카카오토티를 직접 운영하면서 소비자들과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있다. 월암마실의 제품을 접해본 소비자가 소개하고 또 소개하면서 친구가 늘어나고, 알음알음 소개를 받고 주문전화를 걸어줄 때 가장 행복하다. 돈을 벌어서라기 보다는 내가 생산한 곡식의 ‘건강함’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이다.

Q, 귀농을 반대하던 딸의 반응은?

도시에서만 살다가 시골마을로 오게 되니 불편했을 것이다. 우선 시내에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30분 이내의 거리에서 1시간을 훌쩍 넘기는 먼 거리라 걱정도 많았다. 월암리로 이사 온 다음에 딸은 광양으로 시집을 갔다. 물론, 이씨가 순천 시내에 살았다면 친정과의 거리가 가까워 편했을 테지만 지금은 ‘시골친정’을 무척 좋아한다. 이제 태어난지 5개월 된 손주에게 자연과 접해있는 외갓집이 있다는 게 좋은 모양이다.



건강 되찾고

자연에 빠져 사는 박혜균 씨 (경북 영덕, 어업)

“인생은 계획보다 하루하루
최선 다하며 사는 것”





귀촌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다가 건강 이상으로 이른 귀촌을 했다. 남들과 달리 선택한 귀어(歸魚). 처음엔 힘들었지만 초보어부 남편은 이제 어촌계 대의원 등으로 자리를 잡았고 4시간씩 고생하던 혈액투석도 미뤄지고 있다. 맑은 환경이 주는 귀촌의 혜택을 누리면서 오늘도 우리 부부는 행복하다.

박혜균 씨의 귀농이야기



- | | |
|----------------|---|
| • 귀농 전 거주 지역 | 경기도 성남 |
| • 귀농 전 직업 | SK네트웍스 스마트학생복 지점장 |
| • 귀농 결심동기 | 원래 시골출신, 환갑 전에 돌아가고 싶었다 |
| • 귀농 선택작목 | 옥수수, 어업(문어, 소라, 붕장어) |
| • 귀농귀촌 교육이수 실적 | 없음 |
| • 귀농 연도 | 2011년 |
| • 귀농시 나이 | 47세 |
| • 귀농지 선택사유 | 남편 고향 |
| • 귀농시 영농기반 | 없음 |
| • 귀농 초기자금 | 땅 구입비용 1억원, 집수리비용 1천만 원
선박 구입비 5천만 원 |
| • 연간 수익 | 순수익 월 300만 원(어업), 농업은 없음 |



말기신부전으로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귀농

우리 부부는 둘 다 시골 태생이다. 그랬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귀촌에 대한 로망이 있었지만, 딸의 반대로 계속 도시에 살았다. 그러다가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면서 귀촌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의 귀촌 계획은 환갑쯤이었다. 그래서 시골에 헌집도 미리 사서 대충 수리를 해놓고 주말이면 그곳에 가서 지냈다. 마을 분들과의 유대관계도 맺고, 달라진 시골 생활에 미리 적응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서였다.

물론 주말마다 시골집에 갈 때면 마을 분들께 드릴 작은 음료수도 빠트리지 않고 챙겼고, 그 덕분에 조금씩 마음이 통하게 되니 우리가 없는 주중에는 이웃집에서 우리 집을 가끔 들여다 봐주셨다. 텃밭에 심어놓은 고추에 벌레가 생기면 방제도 해주셨고, 겨울이면 수도의 동파도 예방해주셨다. 그렇게 주말마다 시골에서 생활한 덕분에 우리는 마을 분들과 친해질 수도 있었고, 그분들도 우리가 하루빨리 마을에 들어오길 원하셨다.

공기가 좋지 않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내가 병에 걸렸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 건강한 몸이 아니었음에도 나는 놀과로를 한다 싶을 정도의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 결과물이 바로 ‘말기신부전’이었다.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 손목에 동정맥루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이틀마다 병원에 가서 4시간씩이나 피를 걸러낼 생각을 하니 아찔하기까지 하면서 ‘왜 살아야 하나?’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우리는 결국 배수진을 치기로 하고 우리가 사놓은 시골집을 수리만 한 다음에 이사를 해버렸다. 시골에는 혈액투석병원이 없으니까 기를 쓰고 투석을 미룰 만

큼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식이요법과 간단한 운동을 이사와 동시에 시작했다.

몸이 아파 이른 귀촌을 하게 된 탓에 마을 분들은 ‘우짜노?’를 연발하며 걱정 해주셨다. 우리는 시골에서 살 자금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기에 둘이서 직접 집을 수리하느라 한 달 동안을 정신없이 보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지정해주신 나의 첫 투석일이 다가왔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진료를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왜 그렇게 길던지. 검사결과에 따라 선생님께서 투석을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고 하셔서 선생님을 뵙는 시간까지 줄곧 긴장을 하고 있어야 했다.

거기애다가 한 달 동안 시골의 맑은 공기 속에 살다가 도시의 병원에 가 있으니 답답하기도 했다.

“수치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보름 후에 봅시다.”



그 말은 ‘다 나왔습니다!’라는 말처럼 들려, 지난 한 달간 힘들었던 것을 싹 잊게 해주며, ‘역시 시골의 맑은 환경이 보탬이 되는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때부터 남편과 나는 새로운 인생 3막의 시나리오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인생은 절대로 계획처럼 흘러가지 않는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다.

그것이 시골생활에서 내가 터득한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로움이었다.



좋은 집보다 좋은 이웃이 더 소중하다

며칠 전에는 우리보다 1년 늦게 귀촌을 했던 남편의 지인이 결국 도시로 돌아간다면서 전화를 했다. 마을 사람들의 텃세와 도시에는 없는 해충(뱀, 쥐, 벌, 모기, 파리 등)을 더 이상 이겨내지 못하겠다고 했다.

하긴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보기도 했다. ‘시골사람들이 텃세가 심하더라’거나 ‘시골사람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 이기적이라 어울릴 수가 없다’라는 기사였는데, 남편의 지인도 결국 텃세 때문에 도시로 돌아간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과연 시골 사람들이 그렇게 텃세를 하는가? 시골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변했는가? 꽤 관찮은 귀촌을 했다고 자부하는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텃세나 이기적이었다기보다는 소통의 부재가 아니었을까 싶다.

우리는 귀촌하기 3년 전까지 주말마다 마을에 와서 귀촌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생활을 했다.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었고, 아픈 몸을 끌고 귀촌을 했을 때도 마을 사람들은 내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셨다.



또한 우리가 살 집을 새로 짓지 않은 것도 마을 사람들과의 융화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 만약 우리 부부가 애초의 계획대로 거창한 목조 주택을 지어 귀촌을 했다면 어땠을까? 분명히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 보이지 않은 괴리감을 안고 살아야 했을 것이다. 그랬는데 급작스런 귀촌을 하느라 집을 새로 지을 시간도 돈도 없어, 기존의 농가주택을 수리만 한 것이 마을 사람들과 융화되는데도 보탬이 되어주었다.

그것은 ‘좋은 집’보다는 ‘좋은 이웃’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나의 귀촌 제1항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돈만 많으면 시골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 귀촌을 할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시골생활은 돈보다는 배려, 협동, 자조, 성실의 생활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우리는 무조건 먼저 다가갔고, 지나가다가 일을 하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면서 인사를 빠트리지 않고 했다.

마당에 출몰하는 뱀과 쥐 때문에 우리도 몇 번의 곤욕을 치르다가 백구 세 마리를 키우면서 이런 고통에서는 해방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시골에 살려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하여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건강한 몸이 더 중요

남편은 시골로 들어와서 통발 허가가 딸린 어선 한 척을 구입하여 초보어부로 첫발을 디뎠고, 그것이 우리의 생계수단이 되었다. 물론 아직은 나의 병원비까지 해결할 만큼의 어획고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은 틈틈이 다른 일도 병행하고 있다.

시골로 귀촌을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돈이 많아야 시골에서 살 수 있다’는 것에만 연연하여, 돈을 모으는 일에 올인 하다시피 했던 우리였다. 그런데 막상 귀촌을 해보니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시골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건강한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물론 시골생활인만큼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기도 하다. 처음에 우리는 집만 구입하고 토지를 구입하지 못한 탓에 농사를 짓는 일은 포기했었다. 그런데 고맙게도 마을의 어른이 묵히는 밭이라며 농토를 주셔서 밭농사를 조금 짓고 있다.

우리는 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조금이나마 드리기로 하고 그 밭을 받았는데 작년 농사는 대실패라 수확이 거의 없었다. 다행히 올해는 마을 분들의 조언에 힘입어 도시에 있는 지인들과 채소를 나눠먹을 정도의 수확을 거둘 수 있어 재미 있는 농사를 지은 셈이다.

저녁이면 살랑살랑 개운한 바람을 맞으며 마당의 평상에서 소박한 식사를 하는 재미도 있었다. 텃밭에서 물과 퇴비만으로 길러진 채소들이 밥상에 오르는 기

뽕은, 어린 시절 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먹던 것보다 더 맛있었다.

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화생활도 우리가 어릴 때에는 다르게 많이 바뀌었다. 인터넷의 발달로 시골에서도 어느 정도의 문화생활도 누릴 수가 있고, 군청이나 관련 기관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해주기에 병원에 가는 일 외에는 그리 큰 불편함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애다가 집 앞의 하천둑을 매일 걷고 작으나마 밭을 경작하면서 나의 혈액 투석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 갑작스럽고 이른 귀촌을 한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중이다.

남편은 지금 어촌계의 대의원과 청년회의 임원에 선주협회의 회장까지 맡아 마을 일에 아주 열심이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런 남편에게 ‘마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활기차고 깨끗하고, 차기에 군 의원을 시켜야겠다!’고 하실 정도로 신뢰를 보내주고 계신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과시보다 화합, 이기기보다 지는 연습 필요

우리의 귀촌은 이제 2년이 지나가고 있다. 우리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딸아이도 방학이나 휴가 때면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아이들은 우리 집이 ‘천국 같다’는 말을 곧잘 한다. 마당에는 유실수가 있고, 도시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커다란 백구 삼형제도 마당에서 뛰어노는 곳. 현관만 벗어나면 텃밭에서 거둔 채소로 한 끼 식사가 차려지는 집.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생선으로 싱싱한 물회를 맛볼 수 있는 집. 저녁이면 온 가족이 평상위에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집. 집을

둘러싼 산에서 내려오는 솔바람을 여한 없이 만끽할 수 있는 집.

그런 아이들에게 나는 가끔 초치는 얘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가끔 마당에 출몰하는 징그러운 뱀 이야기, 여름이면 파리와 모기가 유난히 많다는 이야기, 한 시간에 한대만 다니는 불편한 버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손사래를 친다.

“아무리 그래도 저희는 이곳이 천국 같아요. 우리도 늙으면 꼭 귀촌할 거라고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하나요?”

그렇다. 행복한 귀촌은 준비하는 자에게 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행복한 귀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대! 행복한 귀촌을 꿈꾸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이다. 돈보다는 건강을, 과시보다는 화합을, 이기기보다는 지는 연습을, 말보다는 기술을 익히는 것을. 이렇게만 한다면 그대가 꿈꾸는 귀촌은 현실이 될 것이다.



‘할매는 어찌 그리 잘해요’ 한마디면
소통은 물론 반찬거리까지 해결



Q. 정말로 혈액투석을 안 해도 될 만큼 건강해졌나?

“이곳에 올 때 배수진을 친다는 심정이었다. 병원이 멀면 오히려 가기 어려우니까 참을 때까지 참아보자는 식이었다. 그런데 정말 좋아졌다. 맑은 공기가 좋긴 좋은가보다.” 박혜균씨는 말기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하던 환자였다. 때문에 귀농계획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 몸이 좋아지면서 성격도 밝아져 웃음이 잦다. 그는 “날마다 독길을 걸었던 게 효과가 있나봐요. 텃밭에서 기른 채소 먹고 남편이 잡아온 생선 먹으니 저절로 살아지는 것 같다”고 했다.

Q. 귀농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정말로 많다. 얼마 전에도 가깝게 지내던 한분이 도시로 돌아갔다.” 귀농을 하던 귀촌을 하던 돈만 있으면 시골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시골생활은 돈보다는 배려, 협동, 섬김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우리도 원래는 집을 지어서 오려고 했는데 내가 아파서 그냥 왔다. 지금은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감사하고 산다. 만약 거창한 목조주택을 지어서왔다면 주변사람들과 괴리감이 있었을 것이다. 기존의 농가주택을 수리만 하고 살다가 2~3년쯤 살아보고 그 다음에 집을 지어도 충분하다.

Q. 마을 분들과 사이가 좋아 보인다. 소통은 어떻게 했다?

“특별한 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인사만 잘해도 된다.” 도시에서 살던 박 씨는 엄격히 얘기하면 ‘귀어’다. 부부가 영덕에 오면서 생업으로 고기잡이를 택했으니 직업은 어부인 것이다. 하지만 집 주변에 텃밭농사도 짓고 있다. 농사이야기든 인생이야기든 모르는 것은 주변 어른에게 모른다고 하고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신다. 단 “할매는 어찌 그리 잘해요?” 정도의 추미새는 기본이다.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지 말고 낮추고, 이기기보다는 지는 연습을 하면서 살면 된다고 한다. 할매들이 챙겨주시는 반찬거리는 인정어린 덩이다.

입선

30년 직장 퇴직후

고향마을로 돌아온 윤석은 씨 (경북 봉화, 호두)

“ 장대 들고 망태 챙겨 호두 털면
자루 한가득 쌓이는 행복 ”





포항제철 입사 31년 만에 퇴직하고 돌아온 고향마을. 300년 넘게 조상 대대로 살아온 봉화로 연어가 모천으로 찾아가듯 서둘러 돌아왔다. 집안의 종손으로 고향을 지키겠다는 부부가 선택한 것은 호두와 대추. 10년 전부터 묘목을 심고 준비해온 이들은 이제 자연이 그러하듯 자식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농사짓는다.

윤석은 씨의 귀농이야기



- | | |
|----------------|--------------------------------------|
| • 귀농 전 거주지역 | 포항 |
| • 귀농 전 직업 | 포스코 |
| • 귀농 결심동기 | 정년 퇴직후 고향으로 귀향 |
| • 귀농 선택작목 | 호두 |
| • 귀농귀촌 교육이수 실적 | 경주시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교육,
봉화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교육 |
| • 귀농연도 | 2011년 |
| • 귀농시 나이 | 만57세(정년퇴직 이듬해) |
| • 귀농지 선택사유 | 고향 |
| • 귀농시 영농기반 | 5천여 평 |
| • 귀농 초기자금 | 3억 (집 건축비용 1억 원, 농사초기비용 5천여만 원 사용) |
| • 현재 영농규모 | 5천여 평 |
| • 연간 수익 | 2천만 원 |



정년퇴직 10년 전부터 틈틈이 귀향 준비

동트는 아침에 새벽별 보고 일어나서 지금 나는 호두 밭으로 간다. 지난해부터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호두가 금년에는 몰라볼 만큼 많이 열렸다. 오늘 오전에는 며칠 전 우리 부부가 버 타작한 것을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가득 쌓아 놓았다. 약 50여 포대는 되는 것 같다. 점심식사 후 장대 들고 망태 챙겨서 뒷밭으로 나갔다. 나는 장대로 호두를 털고 아내는 자루에 주워 담는다.

나는 파평 윤씨 9대 종손으로서 우리 고향마을 분천에서 300년 이상 조상 대대로 살고 있다. 물론 나도 얼마 전까지 외도를 한 후 2년 전 귀농했다. 군대 제대 후 2년간량 아버님 밑에서 농사일을 돕다가 1980년 포항종합제철에 취업하여 2010년 정년퇴직했다. 연어가 태어난 모천으로 돌아오듯 나도 내가 태어나고 성장한 내 고향 봉화로 돌아왔다.

나는 퇴직준비를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시작했다. 다행히 고향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약 5000평 가량의 논과 밭이 있었다. 직장생활하면서 시간 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교육도 열심히 받았다. 종손으로서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내외는 무언중 같이 하고 있었다.

직장생활 당시 휴가는 항상 고향에서 보냈다. 동네어른들 찾아뵙고 이것저것을 묻고 배워 가면서 농사 지식을 배워 나갔다.

하지만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다. 봉화 지방에 맞는 과수종목 선택이 문제였다. 다양한 종류의 과수 묘목 중 마땅한 과수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힘들



었다. 과수란 한번 심으면 최소 10년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고심과 고심을 거치고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 내린 결론은 호두와 대추였다. 먼저 2002년 포항산림조합에 가서 2년생 호두나무 묘목 200주를 사서 1500평 밭에 심었다 이듬해 또 200주를 사서 심었다. 그런데 어린 호두나무 묘목을 상부 약 20cm씩 자른 후 심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유는 단지 승용차 트렁크에 싣기 좋고 운반이 편리하다는 것이었는데 호두나무는 봄에 가지를 자르면 죽는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다. 나무 전체가 말라죽는 이유를 알기 위하여 호두 집산지인 전라북도 무주와 충청북도 영동의 호두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돌아왔다.

호두나무가 다른 종류의 수목과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하절기를 제외하고 나뭇가지를 자르면 나무수액이 계속 흘러나와서 말라죽는다는 것이다. 이것도 모르고 나무 상순을 이동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를 자른 후 심어 놓고 직장 포항으로 내려간 것이다. 2003년 심은 호두나무 200주 모두가 말라 죽었다. 어쩔 수 없이 이듬해 다시 1주당 1만원씩 주고 200주를 다시 심었다. 시간과 경비 등 엄청난 손해를 눈 깜짝할 사이에 보았다.



최소 10년 내다보고 선택한 호두와 대추

같은 해 3월 하순경 대추나무 묘목 1주당 7000원씩 2년생 묘목 100주를 구입해 심었다. 그날 어린 대추나무를 정성스럽게 심어 놓고 포항으로 내려가서 모라디오 방송에 2년간 나무에 얽힌 사연을 투고했더니 내 사연이 방송에 소개돼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격려의 전화를 주기도 했다. 이때 정년퇴직 후 고향

봉화로 귀농 한다고도 소개됐다.

직장생활 하면서 매달 한두 번씩 휴일에 우리 부부는 호두와 대추나무를 찾아왔다. 다행히 내가 태어나고 자란 시골집이 비어있는 상태여서 밤이던 낮이던 찾아와서 피곤한 몸을 고향의 품에 안길수가 있었다.

지금은 약 4000여평의 밭에 호두나무 400주, 대추나무 100주와 겨울에 냉해를 입는 과수묘목을 제외하고 우리 가족이 사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약 14종의 과실 나무 100주도 함께 심었다. 제법 농장규모가 큰 편이다.

재래식 농기구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각종 기계식 농기구를 차례로 구입하고 포항과 봉화를 차로 몇 시간씩 달려와서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수입이 없는 농사를 지다보니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었다. 다행히 직장에서 봉급이 나오니 이런 생활이 가능했지만 일반 전업농에게는 권하기 어렵다. 논농사는 직접 경작할 수 없어서 타인이 경작하고 나는 밭농사인 호두와 대추 농사만 지었다.

세월은 무척 빨랐다. 정말 손살같이 흘러서 내가 고향 땅 언덕위에 호두와 대추를 심은지 7년 만에 천년만년 다닐 줄 알았던 직장 포스코에서 나왔다. 입사 31년 만에 푸른 근무복과 안전화를 벗어서 회사에 반납하고 우리 부부는 아무런 미련 없이 포항을 뒤로 하고 새로운 인생 2막을 봉화에서 맞기 위해 2011년 새봄 돌아왔다.

조상 대대로 살던 곳이고, 10년 넘게 내가 농사일 하는 모습을 본 이웃 어르신들은 “객지에서 고생 많았다”며 “이제부터 고향에서 몸 성히 동네일을 도와가면서 열심히 살라”고 당부하신다.

하지만 농촌 생활은 생각만큼 녹록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래도 나 같은 경우는 좋은 편이다. 제일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지고, 몸이 아파도 차로 30분 넘게 읍내로 가야 병원이 있다. 대중교통도 아침저녁으로 하루 왕복 2회 다니는 시내버스뿐이다. 읍내에 볼일이라도 생기면 버스를 갈아타야 한다. 그래도 우리



집은 비록 뚝차라도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이 2대 있다. 마을 어르신들은 사실상 운전하기 어려운 연세여서 종종 우리 차를 이용 하신다.



직장에선 퇴직했지만 고향마을에선 아직 청춘

직장에선 정년퇴직했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젊은 층에 속한다. 그러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큰일이 생기면 먼저 앞에 나서야 한다, 동네 어르신 모두가 옛날부터 우리 집과 인연 있던 분들이고 부모님 같은 분들이다. 따라서 마을 감투도 억지춘양으로 벌써 몇 개 가지고 있다. 사소한 전구하나 교환하는 것부터 수도꼭지 물세는 일까지 소소한 일도 해야 한다. 그렇다보니 농사일 중간에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경우가 많다, 물론 나는 당연한 일로 알고 있다.

귀농 첫해이던 2011년은 호두와 대추 등을 밭 5000여 평에 농사지어 얻은 수익금이 2000만원이 채 안 된다. 비료와 농약 등 기본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손에 직접 떨어지는 돈은 1000만 원가량이다. 그래도 다른 귀농자보다는 훨씬 유리한 편에 속한다, 벌써 10년 전부터 미리 시작했으니 말이다.

우리 고향 봉화에는 많은 귀농자들이 산다. 귀농해 성공한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실패해서 다시 유턴한 분들도 계신다. 나도 직장에서 받던 봉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위해 부부가 함께 눈이오나 비가 오나 들판에 엎드려 일을 했다.

다시 2년차인 지난해는 과수 묘목이 고사하거나 빈터에 여러 종류의 작물을 심은 뒤 2모작 즉 후작으로 양배추를 심기로 하고 모종을 예쁘게 포트에서 길러 7월 말경 200여 평 본밭에 이식을 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3일도 되지 않아서 말라 죽는 등 모두 세 차례나 옮겨 심어야 했다. 다행히 8월14일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광복절 하루 동안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우리 부부는 하루 온종일 비를 맞으면서 양배추 모종 이식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지난해는 음력 윤달이 있어서 추석명절이 1개월 늦었다. 다행히 집 위치가 국도36번 도로변에 있어서 추석휴가차 집에 내려온 여식에게 명석 깔고 앉게 하고 호두를 직접 판매하면서 짭짤한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결산을 해보니 전년도 보다는 약 30% 정도 수익이 높았다. 뭐 높다고 해도 아직 순수익 2000만원 턱걸이 정도다.

그래도 돈만 보고 농사를 지으면 어렵다.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수익금도 얼마 되지 않지만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 수년전 직장 다닐 때는 회식자리가 빈번했는데 당시 소주 1병만 마셔도 다음날 아침 일어나기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 소주 2병 가량 마셔도 다음날이면 이른 아침 끄떡없이 일어나 들로 나간다. 결론은 그만큼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산다고 할 수 있다.



농사는 돈 보고 짓는 게 아니라 건강보고 한다

금년 농사도 예나 비슷하다. 특이하다면 호두와 대추 농장 주변에 붉은 들깨와 참깨 농사를 했다는 정도다. 참깨 약 100평, 붉은 들깨도 100평가량 심었다. 참깨농사가 제법 잘 되었다. 5월 상순경 밭 두둑위에 멀칭 비닐을 한 후 전후좌우 12cm 간격으로 평균 6~7개가량의 참깨종자를 심고 그 위에 채로 친 모래를 살짝 뿌렸더니 거짓말 같이 참깨 종자가 90% 이상 발아했다. 사실 비료도 종자 뿌리기 전 흉내만 낼 정도로 약하게 살포했는데도 참깨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대풍이다. 참깨는 1.2kg 한 되에 25000원씩 약 60kg가량 팔았다.

붉은 들깨 농사도 조금 지었다. 붉은 들깨는 기초 한약 재료로 들어간다. 먼저 붉은 들깨를 이식할 밭 가까운 곳에 밀식으로 뿌린 후 약 1개월가량 지나면 10cm 가량 자란다. 비 오는 날 들깨모종을 슈아서 약 50cm 거리에 2포기씩 한곳에 심으면 된다. 이식 후 45일 가량 지나면 붉은 들깨 모종에도 빨간 꽃이 피기 시작하고 키도 약 70~80cm정도 자란다. 꽃이 피기 직전 수확해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건조기에 건조시키면 600g 1근에 3000원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집은 호두농사가 첫째다. 며칠 전에는 추석이 지나갔다. 얼굴도 못생기고 이마에 주름살이 한두 개 늘어나는 늙은 우리 부부도 자식들이 이 깊은 산골로 찾아온다. 제 어미는 금년 농사지은 것을 이것저것 차에 실어 준다. 나는 그저 못 본체 먼 산만 바라 보다 “그래 조심히 운전하여 올라가라”고 한마디 하고 나면 자식들은 그렇게 모두 산골을 떠난다. 이 시간부터 평소와 다름없이 장대, 망태 들고 언덕 빼기 뒷밭으로 호두 수확 하러 나간다. 오늘부터 약 1주일가량 호두 수확을 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많이 달린 것 같다.

특히 큰 태풍 피해가 없는 것을 큰 다행이라 생각한다. 오늘도 햇볕이 따갑다.

“바람아 불어라, 호두야 떨어져라, 할매야 주워라.”

우리 부부는 웃어가면서 열심히 호두를 주워서 자루에 담는다. 옆에 사과가 빨갭게 익었다. 하나 따서 안식구에게 주고 나도 하나 따서 입안에 넣어 본다.



10년 전부터 준비해 온 귀농 나만의 농사 선택으로 수지타산 맞추죠



Q, 호두와 대추농사는 어떻게 결정했나?

“여러 사람과 상의했다. 이곳저곳 찾아다녔다. 봉화군 기술센터에서 3개월 과정의 교육을 듣기도 하고 포항에서도 귀농 교육을 받았다. 이곳은 겨울이 굉장히 추운 지역이다. 오늘같이 가을비가 내리면 바로 농작물이 얼기 때문에 덜 익은 호박도 미리 따놓아야 하는 곳이다. 당연히 냉해에 강한 과수를 택해야 했고 경제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그래도 호두는 다른 작물과 달리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작물이다. 400주를 심어서 한 10% 정도 빼고는 건강하게 자라 수익을 올린다.

Q,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귀농을 결정했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은 없다. 그곳이 고향이어도 마찬가지다.” 윤씨는 300년 넘게 이곳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왔고 그 집안의 종손이다. 한마디로 텃새나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윤 씨도 항상 어른들에게 고개 숙이고 산다고 했다. “도시에서 정년퇴직을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직 젊은 척에 속해요. 때문에 일하다가라도 어른들이 부르시면 가봐야 해요. 막상 가보면 큰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 있으면 젊은 사람이 나설 수밖에 없어요.”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과 함께 장이나 시내에 나가는 것은 일상이다.

Q, 10년 준비하고 왔으면 수익은 어떠한가?

“수익을 아직 따지기에는 좀 그렇다. 도시에서는 돈을 보고 일했다면 여기서는 다른 가치를 보고 일한다는 것이다.” 미리 준비했고 집안에서 물려받은 전답이 있으니 자본도 연고도 없이 귀농한 사람과는 계산법부터가 다르다. 하지만 돈을 보고 농사짓는 게 아니라는 말에 동감이 간다. 국내 굴지의 회사에서 연봉 1억 원에 육박하던 윤 씨가 농사에서 얻는 수익을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선택으로 귀농의 수지를 계산한다.

입선

지리산 올레길서

유기농빵 굽는 박진아 씨 (경남 함양, 지역 특산품)

“부지런해야 살 수 있지만
시골은 그래서 행복한 곳이죠”





지리산이 좋아 귀농을 마음먹은 젊은 부부.
어렵게 마련한 생활 터전이 산사태에 쓸려
나갔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서 얻게 된 새로운 행복. 해야 할
일이 무수히 많고, 할 일이 끊이지 않으며, 내
땅이 없다 해도 서글프지 않아서 행복하다.

박진아 씨의 귀농이야기



• 귀농 전 거주 지역	서울, 창원(주말부부)
• 귀농 전 직업	직장생활
• 귀농 결심동기	시골생활에 대한 꿈
• 귀농 선택작목	지역 특산품
• 귀농귀촌 교육이수 실적	없음
• 귀농연도	2011년
• 귀농시 나이	39세
• 귀농지 선택사유	지리산을 좋아해서
• 귀농시 영농기반	없음
• 귀농 초기자금	2억2천여만 원
• 현재 영농규모	고사리 1천 평
• 연간 수익	아직 없음 (유기농 빵 판매로 연간 2천 500만 정도)
• 향후 계획	다양한 많은 일들을 도전하고 싶다



지리산 여름휴가 왔다가 마음먹게 된 귀농

2012년 9월 17일 새벽3시, ‘뚜뚜, 뚜뚜, 뚜뚜’ 알람소리에 눈을 떴다.

“어… 아직도 비가 오네?”

부스스 일어나 어두운 작업장에 불을 켜 후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을 시작하려는 순간. 왜일까? 오늘따라 얼굴과 몸 주위로 정전기가 일듯 기분 나쁜 전율이 느껴진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두드리며 내 몸을 맴도는 정전기들을 날리고서 제빵 작업을 시작했다. 먼저, 계량을 하고, 반죽기를 돌리고, 1차 발효… 성형을 한 후, 다시금 2차 발효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후, 커피를 준비한다. 요 며칠 쉴 새 없이 내리는 비 때문에 눈을 뜨고 있는 이순간이 저녁인지, 아니 새벽이던가? 가끔 헛갈릴 정도다. 뭐 어찌됐던, 지리산에서 느끼는,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임은 분명하다.

2011년 4월 남편과 지리산으로 휴가를 왔다가 휴양림에 텐트를 치고 2박3일 야영을 하며, 둘레길을 돌았다.

“와, 이런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이 한마디가 발단이 되어 3개월간 산청, 하동, 유림, 함양, 남원, 산내를 돌아다니며, 우리에게 모든 조건이 적당히 들어맞는 빈집을 찾아 나섰고, 우연한 인연으로 ‘동네 대소사는 나를 통해 움직인다’라며 스스로를 ‘할매이장’이라고 칭하시던 할머니 한분을 뵈게 되었다.

그분이 소개해준 허허벌판 그리고 싸리나무밭.

“아뇨, 할머니 저런 벌판 말고, 기왕이면 빈집에 조그마한 마당도 있었으면 하

는데요. 그런 곳 없을까요?

순간, 화색이 만연한 할머니에 미소를 보았다.

“오호라, 그런데~ 있어, 있어. 난 또 집 짓는 줄 알았지. 이리와 봐, 여기”

이렇게 소개받은 이곳. 흡사 폐가를 연상시키는 첫인상에 과연 이집을 고칠 수 있을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된 빈집 수리는 10여개월여의 공사기간 동안 1주일에 3일씩 공을 들였다.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왕복 4시간의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집수리에 열정을 쏟았다. 먼저, 쥐가 뛰어나던 천장을 빠루(지렛대)와 삽으로 뜯어내고, 콘크리트 드릴로 벽에 구멍을 촘촘히 뚫어 벽 하나를 허물어내 기술을 선보이고, 고무대야와 삽만으로 시멘트 50포를 반죽하는 기염을 토했던 우리 부부.

열 겹짜리 벽지를 떼어내고, 스크레퍼로 벽면을 고른 후 얼룩진 벽에 퍼티를 발랐다. 파벽으로 포인트도 주고, 자꾸만 떨어지는 천장지를 붙잡으려 겹치는 부분 마다 얇은 몰딩을 대어주니 마치 일본 다다미 느낌이 물씬 풍겼다. 해도 해도 끝



이 없는 공사에 연속 뒤집어쓴 먼지를 씻어낼 곳도, 피곤한 몸뚱이를 잠시나마 누울 한 평 공간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추억이 된다더니, 그렇게 힘들기만 했던 시간이 지나고 2012년 2월 10일 완전 전입과 함께 ‘경축, 귀농생활’을 시작한지도 6개월이 지났다.



산사태로 쓸려간 보금자리 보고 ‘헛웃음만’

2012년 9월 17일 오전 7시. 빵 굽기 완료. 남편이 빵 배달을 간다. 우산을 쓰고, 한손엔 빵 바구니를 들었다. 그 뒷모습이 오늘따라 측은해 보인다. 여전히 몸 전체에 정전기가 맴돌고 있다. “왜 이러지?” 아마도 비 때문일 거야 하고 넘겼다.

이후 시간이 지나 오후 12시 10분. 점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주방에 들어가기 싫다. 계속 졸리고 춥다. 잠시 고민에 빠졌다가 거실에서 인터넷 서핑 중인 남편 옆에 누웠다.

비몽사몽, 잠이 들었다 깨다를 반복하는데, 오늘따라 물소리가 참 크다. ‘안방에 들어가서 잘까?’ 생각하는 순간 “우르릉 쿵…….와지직 우당탕, 쿵쿵. 와장창.” 일순간 유리파편이 얼굴로 날아들고, 차가운 빗물이 머리위로 쏟아졌다. 그랬다 바위가 벽을 치고 거실 안까지 들어왔다. 아니다. 이미 우리 집 창고와 안방, 화장실은 쓸려가고 없었다.

무너진 천장사이로 하늘이 보인다. 벽과 지붕도 없어졌다. 우리가 누워있던 거실 빼곤 모든 곳이 산에서 흘러내린 바위, 나무와 함께 휩쓸려 사라졌다.

1초, 2초, 3초…. 흙탕물이 밀려들어온다. 이견분명 현실이다. 거실 창문으로

간신히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느낀 공포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

집 앞 도로는 이미 계곡으로 변해있었고, 산에 박혀있던 중대형사이즈에 바위들이 도로를 점령했으며, 우리 집은 앞 틀만 남고 옆과 뒤쪽은 모두 쓸려간 후였다. 떨리는 손을 꼭 잡고, 남편과 몸만 빠져나왔다. 그때 헛웃음이 나왔다. 그래, 살았다. 남편과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우리 집 뒷산의 자람이었던 30년 된 호두나무와 밤나무가 시빨건 흙탕물에 엉켜있다. 눈물은커녕 웃음만 나왔다.

웃음도 잠시.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앞으로의 일이 막막하게 밀려들었다.

“거의 1년을 고치고, 딱 6개월 살았는데…….”

“화목보일러에(기름겸용) 기름 200리터 채워놨는데…….”

현실을 무시한 바보 같은 미련들만이 머리에서 맴돌았다. 산사태가 나고 2시간 정도 지나니 비가 그쳤다. 어떻게 알았는지 마을 분들 모두 우리 집 앞에 모여 걱정이 많으시다.

“어떻게 저산에서 산사태가 나지?”

“산사태가 날 산이 아닌데…….”



“사람 몸 안 상한 게 어디냐, 젊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된다”하시며 모두 응원에 말씀을 해주신다.

그래, 생각하면 할수록 당혹스러우나 그래 젊지 않은가!

“역시 이래서 귀농할 거면 젊을 때 해야 해!! 그치?”

“응, 응, 그러네요....”

처음 반집을 찾아 돌아다닐 때 소개받았던 그 허허벌판 땅에 재해협회(수재민 구호단체)에서 빌린 임시주택과, 작은 컨

테이너에서 2012년 9월 17일 낮 12시 10분, 3번째 태풍 ‘산바’로 인한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산사태 1주일 후 제빵용 오븐과 소모품을 다시 사 모았고, 전기도 물도 없는 곳에서 50여 일을 보내야만 했다. 다행히 면사무소의 도움으로 수도가 들어왔다. 2달 후 전기가 들어오면서, 2012년 겨울 컨테이너에서 다시 빵을 굽기 시작했다.

한겨울 밖과 안에 온도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그 서늘한 공간에서 발가락에 동상이 걸려가는 것도 모른 채 무조건 빵을 만들었다. 한 달 수입 단돈 3만1000원.

“이런 시골에서 빵집이라니 그것도 우리 밀빵?”

“유기농 설탕? 100% 우유버터는 뭐야? 뭐가 다른데?”

“국산이나 중국산이나 먹어보면 차이도 모르겠는데 비싸기만 하고 에이, 장사가 되겠어?”

처음 빵집을 하겠다고 하니 모든 귀농인과 원주민들에게 우려에 소리를 많이 들었다. 역시나 쉬운 일도 없고 세상에 공짜도 없었다.





단조롭지 않고 할 일 많아서 즐거운 인생

새벽 3시에 일어나 반죽을 하고 빵을 굽고 포장까지 하려면 6~7시간이 걸린다. 시장 빵과 프렌차이즈 빵집과의 차별화를 위해 매일 반죽을 하고, 굽고, 정확한 시간에 배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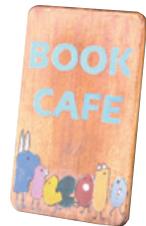
그렇게 3개월쯤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반품이 줄어들었다. 비록 10평 남짓한 작은 북카페이고, 1억5000만원이 넘는 빚을 안고, 매달 내야하는 이자에 허덕이며, 살지라도 우린 힘들지 않았다.

우리가 꿈꾸는 삶이 허무한 요행과 단조로운 일상보다는 매일매일 새로운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는 이런 현실을 즐길 수 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살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린 웃을 수 있었다.

산사태가 나기 전, 운영하고 있던 북카페. 그곳에 들렸던 대다수에 손님들은 자신들도 귀농을 꿈꾼다 했다. 하지만 막연히 시골생활은 평화롭고 안락하리라는 동경 속에서 환상과 헛된 꿈만이 가득해 보였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련 속에서 견뎌낼 수 있을 지부터 상상해 보라고, 우선 온갖 벌레(지네, 나방, 거미, 개미 등)들과 집안에서 함께 생활 할 수 있는지, 한여름 피약벌에 썬크림 없이 서있을 수는 있을까? 그로인해 주근깨와 얇아진 표피층에 자외선이 닿아 검은 점들을 만든다면? 내가 산사태를 겪게 된다면 어떨까?

그 상황 안에서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친다면 귀농생활 성공확률 50%이다. 남은 50%는 근면 성실함 등등이 채워줄 것이다.



시골은 부지런해야 살 수 있고, 부지런하면 행복할 수 있는 곳이다. 해야 할 일이 무수히 많고, 할 일이 끊이지 않으며, 내 땅이 없다 해도 서글프지 않다.

이른 봄. 눈 녹기가 무섭게 산을 오르면서 산나물(다래순, 취나물, 곰취 등)을 뜯어 발효액도 만들고, 고로쇠 수액도 받는다. 여름엔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농사일로 바빠진다. 낮엔 더위를 피해 계곡에서 다슬기도 따고, 물고기를 잡기도 한다.

가을엔 호두, 밤, 감 등을 따고, 꽃감, 고추도 말리고, 버섯, 오미자, 산머루 등 여러 약초들을 캐러 다니며, 그것으로 수입을 창출한다. 겨울엔 겨우살이 채취 또는 메주, 된장, 고추장, 김장김치(절임배추)를 담아 판매하는 사람도 많다.

무엇보다 귀농에 있어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자연과의 동화인 듯싶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확실히 부족하나, 풀, 벌레, 새, 나무 등 자체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느끼고, 또 즐긴다면 시골살이가 단지 고단함과 무료함에 연속이진 않을 것이다.



산사태도 막지 못한 귀농
자연과 벗하며, 산에서 살으리겠다



Q. 한순간에 수재민이 되었을 때의 심정은?

그 후 일 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흔적들을 아직도 치우지 못하고 있다. 정말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린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오래된 폐가를 손질해서 작은 살림집과 북카페를 만들었다. 그 기간만 1년 정도 걸렸고, 우리는 딱 6개월 밖에 살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 싶지만 당시엔 다시 도시로 나가야 하나 걱정스러웠다.

Q. 새로운 집을 짓는 과정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산사태를 맞아 망가진 집에서는 살 수 없었다. 그리고 2차 붕괴에 대한 위험도 있어서 철거 작업도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다행히 고사리를 심어둔 산 속 땅이 있어 그곳에 컨테이너로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마을에서 제일 높고 깊은 곳에 있는 산자락 땅이어서 집을 지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허가’였다. 시골로 이주하신 분들은 건축허가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거다. 수재민이 된 덕분이라고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건축허가를 받고 집을 지었다. 빵을 만들 수 있는 조리공간을 마련한 특색한 벽돌집으로 지었다. 산사태와 태풍에도 끄떡없다.

Q. 앞으로의 꿈은?

산사태로 무너진 집은 작은 북카페가 있었다. 지리산을 다녀가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쉼터 같은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그 공간을 다시 꾸리고 싶다. 지금의 새 집 옆에 공간을 만들기는 했는데, 아직 미완성이다. 지금은 쓸쓸하고 차가운 공간이지만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채우고 싶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북카페를 겸한 어린이 공부방도 생각하고 있다. 거창하게 사교육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 공부도 봐주고 내가 가르쳐줄 수 있는 건 가르쳐주고 싶다.



좌충우돌 4년만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이천수 씨 (제주 서귀포, 귤)

“늘 꿈꾸던 제주에서
건강한 삶을 다시 시작했어요”





늘 꿈으로만 자리했던 제주살이는
 녹록치 않았다. 좌충우돌 하면서 4년
 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이젠 길이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생협에 농산물을 납품
 하는 유통사업과 발농사를 겸하면서
 제주로의 귀농이 현실이 되었다.
 내년쯤에는 텃밭의 푸르른 푸성귀
 가득한 식탁에서 아내와 저녁 만찬을
 기대한다.

이천수 씨의 귀농이야기

- 귀농 전 거주지역
- 귀농 전 직업
- 귀농 선택작목
- 귀농귀촌 교육이수 실적
- 귀농연도
- 귀농시 나이
- 귀농지 선택사유
- 귀농시 영농기반
- 귀농 초기자금
- 현재 영농규모
- 연간 수익

서울 구로

IT

굴, 석창포, 삼채

제주귀농귀촌학교 2기(100시간 이수)

2010년

45세

시세 좋은 매물(요즘 제주에서는 땅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없음

토지 1천100평 매입자금 1억5천만 원

삼채 1천 평, 석창포 1천 평,

양파 2천여 평(심음 예정)

향후 2천500만 원 예상





어떤 일을 할지는 살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제주가 내게 특별한 곳으로 다가온 건 2002년 12월부터였다. 30대 중반까지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던 나는 새로운 일을 시도했고, 두 차례 실패를 겪었다. 수억 원의 빚이 남았고,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날들이 몇 개월간 계속됐다. 유난히도 추웠던 그 해 겨울, 아무말없이 호주머니를 털어 제주행 편도 항공권을 끊었다. 언젠가 한 번은 꼭 가보리라 생각했던 아름다운 섬, 이렇게 참담한 심경으로 홀로 떠나게 될 줄은 몰랐다.

용머리해안가에서 소주병을 끼고 앉아있던 내게 12월의 바닷바람은 더없이 살벌했다. 하직 인사를 하기가 그렇게나 무서웠던 걸까? 힘없이 가리앉은 목소리로



‘돌아오라’는 아내의 절규를 부여잡고 일주일간의 방향을 접었다.

7년여 후인 2010년 4월 초, 늘 꿈으로만 자리하던 제주가 내 삶의 일부로 들어왔다. 제주올레가 한창 봄을 일으키고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던 터라 게스트하우스를 해보기로 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경매로 나와 있던 한경면 용수리의 한 펜션을 마음에 두고 3일의 일정으로 제주로 향했다. 그러나 선뜻 구매를 결정하지는 못했다. 현지에서 좀 더 지내면서 경매 물건이나 집을 지을 부지를 알아봐야겠단 생각에 체류 일정을 한 달 더 늦췄다. 하지만 원하는 건물이나 땅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나마 소득이 있었다면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현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다는 점이였다. 올레 12, 13코스의 게스트하우스지기들, 우연히 알게 된 귀농 12년차 함덕 하르방님, 귀농 17년차 표선 대안학교 선배님,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모 카페지기,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이주 17년차 동갑내기 친구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많은 얘기를 들었다. 이주민으로 정착한 많은 선배들이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 중 한 마디가 내 귀에 꽂혔다. “서두르지 마라. 어떤 일을 할지는 살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우연치 않게 농사를 접하다 ‘귀농교육’

계획을 수정했다. 아내와 의논 끝에 1년 정도 체류하며 경험을 해보고, 3년 안에 이주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렇게 생각을 다잡고 있던 4월 말경, 함덕 하르방의 권유로 서귀포시 농업기술원에 귀농교육 청강을 갔다. 이미 30% 이상 수업이 진행된 상태였지만 계획을 수정했으니 배우는 일을 지체할 수 없었다. 수료에 부족한 시간은 다음 기회를 엿보기로 하고 2기 수강생이 되었다.

수업과정 중에서는 방제 방충 과정을 유익하게 들었다. 친환경 농법이 FTA 파

고를 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땅은 망가뜨리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만 하는 소중한 공공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해 친환경 교육기관을 찾아 유기농에 대한 별도교육도 이수했다.

헌데 얼마 전인 지난 9월 7일,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다. 동기생 반장이었던 박모(72년생)씨가 농약 중독으로 사망한 것이다. 남겨진 중학생 초등학생 형제와 아내는 어찌 살라고 젊은 나이에 생을 달리 하다니... 귀농교육 내용 중에 ‘바람의 역방향으로 방제작업을 하라’는 내용은 있었지만,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농약의 위험성은 재삼재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현지의 주작목 ‘감굴’로 농사에 첫 발



실습(?)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다. 귀농교육에 참여한 지 한 달만인 5월 중순경, 교육 동기생들과 친목모임을 하던 중 동기생 한 명이 감굴 과수원 2000평을 재임대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다음날 현장답사를 하고, 덜컥 계약을 해버렸다. 임대료가 평당 2000원이었는데 물정 모르는 내게는 적정해보였다.

임대한 과수원은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다. 농업기술원 관측담당 선생님을 모셔와

상태를 점검해보니, 연작으로 인한 과원의 피로도나 나쁜 수세까지 더해져 수확량이 형편없을 거란 진단이 나왔다. 임대료가 턱없이 비쌌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



게 되었다. 땅 주인도, 땅을 재임대한 귀농 동기생도 수확량이 예년의 1/2도 되지 않을 거란 사실을 속인 것이다.

보르도액과 기계유제를 혼합해 방제작업부터 서두르란 관측선생의 처방을 바로 처리해야만 했다. 허나,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다. 양수기의 부품이 망가져 수리를 해야 했고, 5000 리터짜리 약통은 바닥이 약 찌꺼기와 나뭇잎들로 굳어 있었다. 한창 더워지는 5월 말 약통에 들어가 청소작업에 매달렸다. 워낙 벌이 강해 피하고 싶었지만 함덕 하르방이 10년 연장자이신 터라 내가 하는 수밖에 없었다. 약통에 들어가 작업을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까?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하르방의 타박을 뒤로하고 약통에서 바로 뛰쳐나왔다. 조금 더 지체했다면 사고로 이어질 아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1주일 동안 힘들게 준비한 관행방제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나고 말았다. 친환경에 관심이 많던 평소의 내 지론 때문에 전정과 풀베기, 유기농제 투입으로 나무를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결정한 것이다. 친환경 농법 교육을 받게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일주일에 2~3일은 썩은 가지를 잘라내고 적과를 하고 예초기를 돌리며 그렇게 과수원 일을 배워갔다.

농삿일을 배우면서 거주할 집도 새로 구해야 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급

하게 이주해온 터라 여관에서 달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구입에 대한 고민은 뒤로 미루고 셋방을 구하기로 했다. 운 좋게 교육장과 과수원이 가까운 법환동에 년세 400만원짜리 단독주택을 임대할 수 있었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1년 치 월세를 한꺼번에 치른다. 40만원의 월세를 년세로 치르게 되면 두달치인 80만원을 감해 400만원만 내는 식이다.



첫 수확 감귤, 지인들 통한 직판매로 1천만원 소득

10월 말, 결실의 시간이 다가왔다. 당도 검사를 해보니, 13브릭스 이상이었다. 관리 부실로 인해 수확량은 예년의 1/3 수준인 2천관(약 5,000kg) 정도로 미미했다. 양이 얼마 되지 않고, 농약을 거의 치지 않은 탓에 모양새도 고르지 않아 지인들을 통해 직접 판매하기로 했다. 11월 초부터 선주문을 받아 주문이 오면 과수원에서 수확해 즉시 배송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듬해 2월, 결산을 해보니 1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나왔다. 그만하면 첫 농사치곤 만족할 만했다.

그러나 과수원의 임대 계약연수가 문제였다. 재계약을 위해 마주한 과수원 주인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해온 것이다. 처음 계약 당시 계약서의 문구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내 잘못이었다. 부랴부랴 다른 과수원을 임대해보고자 백방으로 뛰었지만 모두 허사였다.

할 수 없이 다음 해를 기약하기로 하고 다른 일을 찾아야 했다. 사회적기업의 대표로 있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 보니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있다고 했다. 제주엔 양식장 수가 230곳이 넘는다. 넓치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50% 이상이라는데 폐사량 또한 만만치 않아(주로 태풍 피해, 자연사) 연간 800톤을 넘을 때도 있다고

한다. 매년 폐사되는 넙치의 일부를 수거해 생선 액비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친환경 농업에 관심이 있던 나는 자연스레 그 일에 끌렸다. 2011년 초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일을 하기로 했다.



액비 생산 과정에 참여하면서 액비 제조방법을 체득하고, 농가에 공급하면서 주변 지인들의 폭도 차츰 넓어졌다.

2012년을 앞두고는 감귤선과장 출하 단속반 일도 4개월 정도 경험했다. 지역 농민회를 통해 얻게 된 정보였는데 농정과 직원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됐다.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것은 농자천하지대본이 ‘유통자천하지대본’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이었다.

과수원 임대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임대를 위한 물밑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계약만 맺으면 4000평 정도는 경작할 수 있을 듯했다. 하지만 과수원 주인들이 임차인이 육지에서 전입해 온 지 얼마 안 된걸 알고 나서는 선뜻 과수원을 내주지 않았다. 다른 지역보다 더 배타적이라는 제주의 현실을 또다시 체감하는 시간이었다.

다시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았다. 과수원을 매입하던지 발농사를 시도하던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던지... 고민 끝에 ICOOP생협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유통사업과 발농사를 겸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전남 무안에서 생협에 납품을 하고 있는 선배가 있어 도움을 받기로 하고, 당근과 브로콜리, 양배추 등을 납품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더불어 대정읍 신도리의 밭 1,000평도 매입해 발농사도 걸음마를 뒀다. 올해는 상천리 무상 임대 토지 1500평에 삼채를,

유수암엔 3년 임대한 6000평 중 1000평에 석창포를 심었다. 올해 농사의 성과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귀농 4년, ‘이제야 조금씩 답이 보이기 시작하다’

지난 4년, 좌충우돌의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정착해야 할지’에 대해 조금은 답을 찾은 듯하다. 농지원부가 없어 귀농지원 자금을 받지 못했던 설움도 이젠 잊을 수 있게 됐다. 1996년 이후에 거래된 토지를 임차한 경우는 농지은행에 가서 임대차계약을 해야만 농지원부가 발급된다는 걸 몰라 전전공공하지 않게 되었으니 말이다.

‘3년 완전 이주’ 목표가 1년 더 미뤄졌으니 아내에게는 미안한 일이다. 흔들리지 않는 한라산 자락이 품어주고 사철 풍요로운 바다가 안아주니 1년 더 기다리는 일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리라. 내년 이맘 때 쯤이면 텃밭의 푸르른 푸성귀가 득한 식탁에서 아내와 함께 건강한 저녁 만찬을 즐기고 있을 테니 말이다.



그래도 계속가라
 척박한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



Q. 왜 ‘제주도’ 였나?

당시 사업에 실패하고 많은 부채를 떠안은 절망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제주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막연한 희망 같은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병들어 가는 제주의 땅을 깨끗하게 살리는 일에도 도전하고 싶었다. 농약을 걷어내고 땅의 기운만으로도 성장하는 열매를 맺는 일을 하고 싶었다. 지금도 그 고민과 노력은 계속해나가고 있다. 제주로의 이주를 꿈꾸는 사람들이 제주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버리길 바란다. 척박한 건 땅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사람들 틈에 들어가 이웃이 되기 위한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

Q. 제주에서 농사짓는 일은 어떤가?

제주도는 현무암 지형이라 물이 머무르지 않는 척박한 땅으로 알려져 있지만 농사를 짓는데 제주도라서 유별난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만4년 정도 농사를 지어보니, 대농이 아니고선 농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제주로의 귀농을 결심했을 때도 게스트하우스와 농사를 함께 지어볼 계획이었다. 1차 생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작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노동집약 농업에서 고소득 농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다.

Q. 제주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땅을 빌려 농사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잘 조절하라고 조언해주고 싶다. 특히 과수원의 경우 밭과 과수나무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계약하라고 조언해주고 싶다. 예를 들어 부실한 땅과 나무를 살리는 데는 2년 가까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수확은 3년째 되는 해부터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투자한 노력만큼 수익을 얻으려면 최소 5년 이상 경작해야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런데 땅 주인이 3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찍기 전에 밭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에
사.고
가.에
이.고



Part * 02

귀촌 이야기

경기 양 평 신희정
전북 진 안 심수진
전남 구 례 박인숙

입선

결혼으로 귀촌한
집성촌 며느리 신희정 씨 (경기 양평)

“경치 좋고 살기 좋은 곳이지만
귀촌원칙 필요해요”





30대에 결혼하면서 양평은 막연한 환상이었다. 그저 서울에서 가깝고 재테크에 유리한 부자동네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씨 집성촌인 그곳에서의 생활은 도시와는 너무 달랐다. 하지만 하나하나 배우고 소통하면서 이제 귀촌생활의 원칙을 제시할 줄 아는 지혜로운 며느리로 거듭났다.

신희정 씨의 귀촌이야기



- | | |
|----------------|-------------------|
| • 귀촌 전 거주 지역 | 인천 |
| • 귀촌 전 직업 | 이벤트 관련 회사 |
| • 귀촌 결심동기 | 결혼 |
| • 귀농귀촌 교육이수 실적 | 없음 |
| • 귀촌 연도 | 2005년 |
| • 귀촌시 나이 | 33세 |
| • 귀촌지 선택사유 | 시댁 |
| • 귀촌시 영농기반 | 없음 |
| • 귀촌 초기자금 | 없음 |
| • 현재 영농규모 | 없음 |
| • 연간 수익 | 4천500만 원(교육 관련 일) |



하나부터 열까지 몰이해의 세계였던 신혼초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삶을 시작하자마자 환상과는 작별을 했다. 그게 아무래도 귀농귀촌의 제일 처음이 아닐까 한다. 가족의 구성원이건, 마을의 구성원이건 귀농귀촌을 처음 할 때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환상과의 작별이다.

서른이 넘도록 시골이나 농사와는 거리가 멀던 내가 서른을 넘겨 결혼을 전제로 만난 남자는 전형적인 시골 촌놈(?)이었다. 농사만 짓는 사람도 아니고, 그가 사는 곳이 그렇게 촌이라는 생각도 없어 결혼을 결정하는데 지역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시작된 농촌에서의 신혼생활은 하나부터 열까지 몰지각, 몰이해의 세계였다. 내가 사는 곳은 양평읍에서 5km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농가주택으로 오밀조밀 비슷한 모양의 주택들이 20여 가구 모여 있다. 이 집들이 지어질 시기에는 드문 일이었다고 한다. 그때에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전주 이씨 집성촌'이기 때문이었다.

집을 지을 무렵에는 모두 전주 이씨 한 집안이어서 대부분이 남의 집 숟가락의 개수며 모양까지 알 정도로 왕래가 잦았다고 한다. 그런 관계는 내가 결혼하고 이곳에 터를 잡은 지 8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조금 느슨해지기는 했지만 단단하다. 한 달 쯤 지났나? 그날도 난 버스를 기다리다 지쳐가고 있었다. 버스는 한 시간에 한 대, 혹은 한 시간 반에 한 대, 그걸 기다리는 동안은 동네 할머니들의 눈길과 질문을 피할 곳이 없었다.

결혼 전 직업이 뭔지, 아이는 얼마나 나올지, 어디서 살았는지,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등의 직접적인 질문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고, 눈길로 사람이 어디까지 말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할머니들은 내 옷차림과 머리 그리고 화장이나 신발 등을 훑어 내려갔다.

이미 시아버지도 용인하신 반바지와 가방과 옷차림에 어울리는 힐을 보신 할머니들은 번갈아 집에 들러 시어머니께 며느리 단속을 말씀하셨고 그건 곧바로 내 귀에 잔소리가 되어 흘러넘쳤다. 그럼에도 아랑곳 안하려고 한 내게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직격탄을 날리셨다.

“옷이 그게 뭐야? 치마는 짧고 색은 요란하고, 머리는 너무 길지 않아? 그리고 신발은 그게 뭐가? 다른 사람들이 욕해!”



서울에 일이 있어서 정장차림으로 입고 길을 나서던 내게는 날벼락이었다.

그런 일을 몇 번 겪다보니 이 집성촌이라는 곳에 대한 환멸 같은 게 느껴졌다.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들이 많은 거지? 이 동네 분들은 하고 싶은 말은 다하고 사시냐? 결혼하고 4개월 정도 지날 무렵 이런 생각들이 들자 우울증까지 오기 시작했다. 멀쩡하고 화려한 도시를 두고 내 발등을 찍었구나 하는 생각에 버거웠다.



집성촌의 색다른 모습에 눈을 뜨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동안 농촌이 바뀐 계절이 되었다. 이미 겪을 만큼 겪은 동네 어른들의 시선과 잔소리에 낮에는 최대한 청바지와 평범한 티로 무장하고 머리는 항상 묶어서 핀으로 고정시키고 지내기 시작한 어느 초여름 날 집성촌의 색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

유난히 해가 뜨거운 날이었다. 읍내에서 불일을 다보고 들어오니 갈증도 심하고 끈적거렸다. 시원한 커피한잔을 타서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반쯤 비울 때 흠이 잔뜩 묻은 일복 차림의 아줌마 한분이 급히 들어와 정면으로 보이는 야외 화장실에 들어갔다. 분명 마을 초입에 사시는 분인데 왜 남의 화장실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는 건지 화가 나기도 하고 급한가 보다 이해가 가기도 하며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아줌마는 불일을 다보고 편안한 얼굴로 나왔다. 그리고 마당에 있는 수도로 가서 손과 신발을 닦고 마치 자연스럽게 자기 집에서 나가듯 마당을 빠져나갔다. 급하셨나 보네로 내 생각을 매듭짓고 내일까지 봐야 하는 책을 들고 소파에 앉아 보낸 시간이 세 시간 정도인가? 화장실과 수도를 사용하고 사라지는 동네어른들은 쉴 시간을 주지 않았다. 오늘만 그런 건지 평상시에도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어 늦은 저녁식사 시간에 받은 투덜거리는 어조로 낮의 일을 이야기 하자 시아버지는 그걸 아직 이해 못했냐는 듯 내게 핀잔 섞인 조언을 남기셨다.

“마당에 창고를 짓고 여유가 있는 집들은 마당에 화장실을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다.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 화장실에 가면 먼지도 묻고 일하다 집까지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경운기 타고 가야 하는 데 화장실 한번 오자고 집에 오겠냐? 우리



도 일 나갔을 때 급하면 근처 집에 가서 볼일을 본다. 그러니 마당의 화장실이라도 개방을 해놔야지. 말이 나온 김에 미리 이야기하자. 지하 냉장고에 음료수랑 물은 떨어지지 않게 놔라. 마실 오는 사람들 마시고 쉬다 갈수 있게. 간간히 우리 생각해 서 간식도 넣어두면 좋겠구나. 그게 현명한 시골살이다.

밖의 화장실을 열심히 청소하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그동안 지하 냉장고에 내가 사놓지 않은 음료며 찌빵 같은 것들의 출처가 이해되었다.

우리 마을은 사방이 다 논이고 밭이다. 그리고 그 마을 중심에 있는 삼거리에 우리 집이 있다. 사방에서 일하시다 뛰어오시기 좋고 농가주택으로 지을 때 반 지하를 지상과 똑같은 구조로 지어놓아 시원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다. 공간 활용이 좋아 한 칸에 있는 방에는 문을 달아 간이침대를 놓아두고 있는데 가끔 힘드시거나 덥다고 느끼실 때 오셔서 쉬실 수 있게 만들었다. 동네어르신들이 갑자기 더워지고 일이 많아져서 최근에 많이 다녀가시는 거였다. 그리고 그때 드실 수 있게 지하에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크기의 냉장고에 음료와 물 그리고 간단한 간식이 항상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다 놓기도 하지만 동네 어르신

들이 장날 하나 둘 사다 넣어 놓기도 하셨다. 다들 나름대로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었다.

시아버지는 이곳에서 나고 자랐지만 전형적인 농사꾼은 아니셨다. 은행원 생활을 하시고 정년을 하시면서 훈장도 하시고 농사도 지으시는 시골에서는 엘리트 대접을 받으시는 전형적인 지역 양반이셨다. 시아버지의 넓은 시야는 본인의 경험도 한몫하고 있었다. 도시에서의 직장생활과 시골생활의 조화가 시아버지에게는 있었다.



먼저 베풀고 먼저 손해 보는 게 시골살이

“시골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 뿐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들도 시골은 베풀는 곳, 풍요로운 곳, 언제 찾아가도 반겨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시골사람도 그냥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돌봐주고, 이해해줘야 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만큼 서로에 대한 애착도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싫어하고, 땅만 보고 살아서 고지식하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농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네가 노력하고 베풀지 않으면 그 간격은 줄지 않는다. 내가 겪어보니 도시사람들도 많이 배우긴 했지만 시골살이에 그리 현명하지는 못한 것 같더라. 힘들겠지만 그래



도 살다보면 매일 문 걸어 잠그고 사는 도시보다는 좋은 점이 많단다. 도시랑 시골에서 내 인생의 반씩을 살아보니 네게 해줄 말이 네가 먼저 풀어라, 손해 봐! 그거뿐이구나.”

내가 시골반 도시반의 생활 형태를 띤 이곳 양평에 정착한지도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내가 시골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보듬어 주신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양평에는 지하철이 들어왔으며, 이제는 일하시는 시어머니 새참으로 새우버거를 챙겨가면서 풀독 오르지 않게 긴바지를 입을 줄 알게 되었고, 고추를 따서 청량리 시장에 넘기기 위해 밤에 상회차를 기다릴 줄 알게 되었다.

귀농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농사법이며 새로운 농작물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도시에도 많고 시골에도 많다. 실제로 나도 관심이 많아서 수업을 들어봤고, 여러 견학지를 견학해보기도 했다. 펜션을 해볼까하고 돌아다녀보기도 하고, 부동산모임에 가입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보기도 했다. 그렇지만 조언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는 말은 이런 프로그램이나 견학지에서 본 것들이 아니다.



외모와 사고에 대한 지적을 즐겁게 받아들여라

나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고 농사가 아닌 다른 직업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나는 지금 영양부추와 고추를 하고 있다. 물론 아직도 대부분이 시어머니가 하는 걸 거드는 수준이고 시어머니도 힘이 드셔서 모종을 못하고 구매를 해서 하고 있다.

난 대신 이곳에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곳들이 그렇듯 이곳도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귀촌을 하는 이들 중 아직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노인들과 관련된 일들이 가지를 치고 있다. 난 도시에서 살아본 경험과 시골에서 머느리로 겪은 문제들을 해결해나

가는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주신 조언들을 토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시골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조금은 느슨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 가령 내 땅이지만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은 한 남이 사용하는 것을 적당히 용인해줘야 한다. 때론 그것이 집 마당의 화장실이 되기도 하고 지하의 냉장고가 되기도 하고 내마당과 인접한 땅이기도 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는 걸으로 드러나는 전기세나 정화조 청소비용은 감내해야 한다.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내 집을 새로 지을 때 도로를 사용하는 사용권을 얻어내는데 문제가 없고 집을 짓는 동안의 소음을 견뎌내 주는 것이고 처음 농사를 지을 때 좋은 모종을 얻는 지름길이고 판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을 받는 길이다. 귀촌에서 그것만큼 소중한 유용한 투자와 기술은 없다. 기꺼이 자신의 외모와 사고에 지적질(?)을 즐겁게 소화하겠다는 강한 다짐을 하고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젊어서 본의 아니게 귀촌을 한 내가 제안하는 최고의 귀촌철칙이다.



환상이며 안녕,
웰컴투 시골드!



Q, 남편과 연애시절 시골로 시집가게 될 걸 알았나?

처음부터 남편이 양평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3년을 연애하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다.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이고, 양평이란 지역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 서울을 관통하는 경전철을 타면 한 시간 이내에 진입할 수 있는 곳. 무엇보다 그림 같은 별장이 즐비한 곳으로 말이다. 물론, 시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는 것도 알고 있었다.

Q, 충충시하 시월드를 실감하게 된 계기는?

더운 여름에 반바지를 입는 것처럼 사소한 일도 ‘문제’가 됐다. 시아버님께서 도시에서 자란 나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셨던 덕분에 우리 가족 안에서의 문제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집 밖을 나가면 모두가 시어른 마냥 시집살이를 해야겠다. 20여 가구가 말 그대로 웅기종기 모여 있는 것은 물론 그들 모두가 친척 관계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른들의 관심 속에 있었고 그분들의 따갑고 뜨거운 시선이 느껴진 것은 결혼 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양평으로 시집 온지 올해로 8년째가 됐지만 어른신들의 ‘평가’는 사라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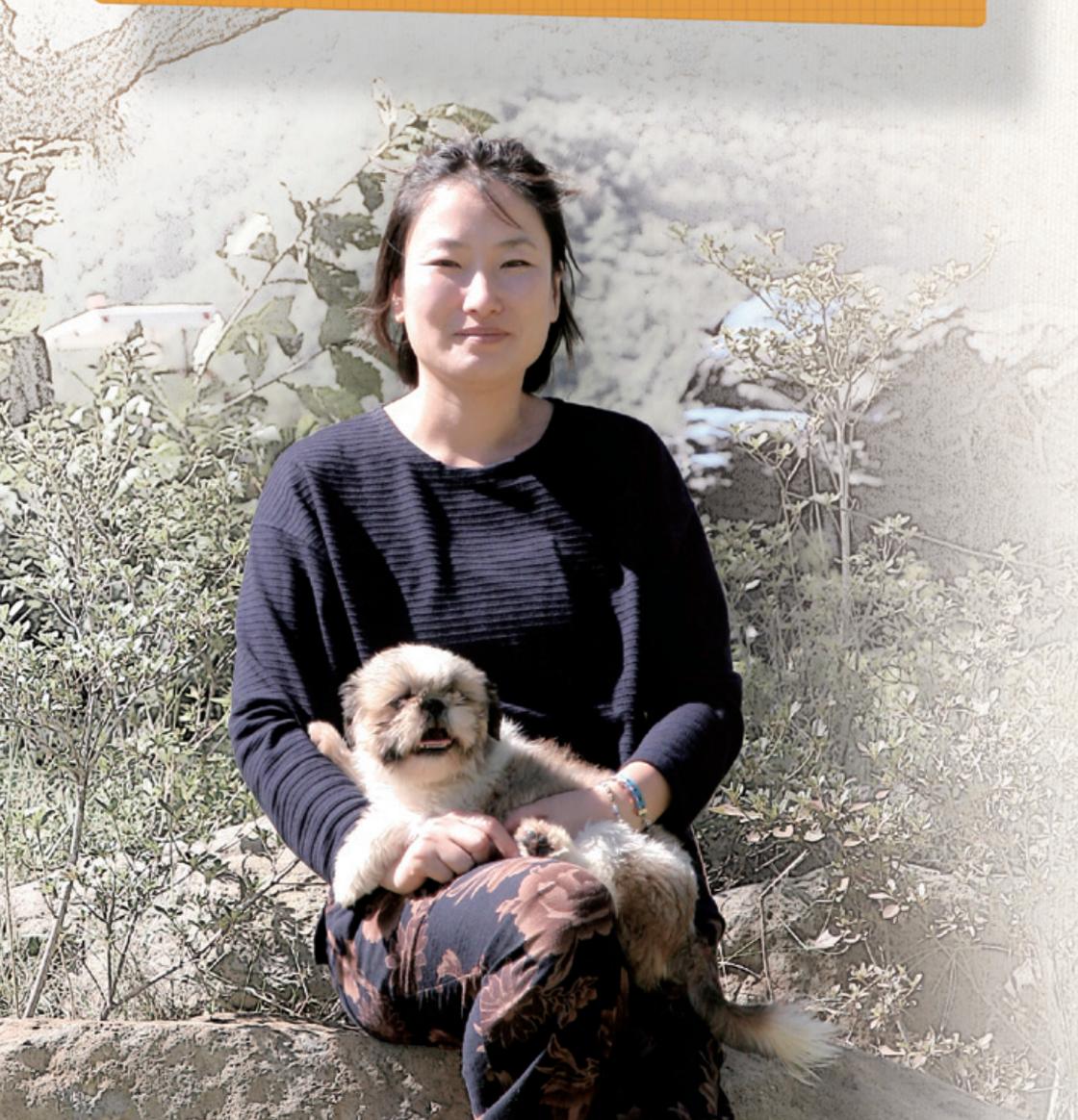
Q, 나에게 시골은 어떤 곳인가?

시골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많은 문화유산을 남겨주셨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 가슴 속에 새겨져 있다. 덕분에 지혜를 얻는 것 같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농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를 마음 깊이 이해해주는 선량하고 따뜻한 ‘농촌총각’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의 시골생활이 좋다.

입선

‘마을 만들기’ 활동가로
꿈 이룬 심수진 씨 (전북 진안)

“농촌은 손톱만한 능력도
쓸모 있게 만들어주세요”





글을 쓰겠다는 막연한 꿈은 녹록치 않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길을 잃었다. 제대로 된 경력도 없이 나이 서른이 된 여자를 받아줄 직장은 없었다. 하지만 세상을 단박에 살기 좋게 바꾸는 일이 아니라 천천히,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은 나에게도 기회를 주었다.

심수진 씨의 귀촌이야기



- 귀촌 전 거주 지역 광주
- 귀촌 전 직업 무대 조명감독
- 귀촌 결심동기 새로운 도전
- 귀농귀촌 교육이수 실적 광주전남 귀농학교
- 귀촌연도 2013년
- 귀촌시 나이 34세
- 귀촌시 영농기반 없음
- 귀촌 초기자금 없음
- 현재 영농규모 없음
- 연간 수익 마을 협의회 사무국장 월 120만 원
- 향후 계획 모두가 함께 잘 살고,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싶다



믿기지 않은 행운이 일상 속에서 행복이 되었다

새소리, 풀벌레 소리와 함께 눈 뜨는 아침. 열어놓은 창문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이곳에서 아침을 맞은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침에 진안에서 눈을 뜨는 게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면 하늘이 질투할까 행복할 때면 하늘을 보고 찡그렸다는 어느 미신처럼 나 역시 살짝 얼굴을 찌푸린다. 믿기지 않은 행운이 일상 속에 들어와 행복이 되었다.



찾기 힘든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다. 흔해서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다. 행운을 잡은 줄 알았는데 내가 찾은 클로버는 세잎 클로버, 행복이었다.

내가 진안에 오게 된 계기를 얘기하려면 아무래도 학교 다니던 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99학번이라서 비둘기 학번으로 불렸던 우리는 어느 세대가 안 그랬나 싶겠지만 이전과 이후 사이에서 애매하게 낀 세대였다. 이전 세대가 민주화의 큰 흐름과 함께 성장했다면, 이후 세대는 본격적인 ‘스펙 쌓기’, 즉 자기계발 붐과

함께 바쁘게 사는 세대였다. 그 사이에서 나는 갈팡질팡했다. 소속감도 자기계발을 하고 싶은 욕심도 없었다. 혹은 욕심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는데도 모르겠다.

친구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에 열을 올렸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걸 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는 몰랐다. 여러 차례 고민 끝에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표현해주는 글쓰기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꿔다.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맘을 다잡고 서울에 올라갔다. 막연한 꿈이었던 글쓰기를 직접 배우려고 한 것이다. 서울에 올라가 시나리오 공부를 하며 방송작가 과정 이수 준비를 했다. 스크립터 알바를 하며 내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기다렸다.



서른살 넘어 경력도 없는 여자가 갈 직장은 없다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 틈에서 생각하고 글을 쓰는 건 정말 즐거웠다. 혼자만 갖고 있던 생각들을 털어놓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뭔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지금 생각해도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글쓰기를 위해 다른 일을 하면서 정작 글쓰기는 점차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월급은 박하고 생활조차 녹록하지 않았다. 꿈을 위해 어떤 시련도 담대히 받아들인다는 책 속 인물은 나와 별개였다. 여러 알바를 전전하다보니 손 안에 남은 돈은 당장 며칠 안으로 내야할 고시원비가 다였다. 선택을 해야 했다. 이대로 남아서 기약 없이 버티고 있어야할지,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할지.

생활이 안정되면 글을 쓰겠노라, 맘을 추슬러 집으로 내려왔다. 다시 직장을 잡

고 일을 했지만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다시 실업자가 됐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연극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스텝 교육을 받았다. 항상 나는 글을 쓸 사람이란 마음이 있었다. 무엇이든 최선을 다할 생각이 없었던 거다. 언젠가 글을 써서 밥 벌어먹고 살 사람이란 기대감은 서울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꿈보다 당장 내일 밥을 먹고 사는 게 중요했다. 처음으로 최선을 다해 교육을 받고 자격증 시험을 봤다. 다행히 운이 좋아 시험 본지 얼마 안 돼 직장을 얻었다.

살고 있던 곳을 떠나 낯선 도시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계속 일을 한다면 월급도 높아지고 조건도 나쁘지 않은 직장이었다. 일을 잘 해야겠다는 맘과 별개로 새로운 직장은 내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이렇다 할 직장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 일보다 사람관계가 힘들었다. 올 때가 많았고 금세 포기하고 싶다는 맘이 간절했다. 하지만 갈 데가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서른 살 넘은 경력 없는 여자를 받아줄 직장은 없었다. 악착같이 버티고 배워서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하리라며 이를 악물었다.



귀농학교, 그리고 운명처럼 찾은 진안의 직장생활

하지만 몸이며 맘이 고단해지니 한 달에 한번 통장에 찍힌 월급마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다.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직장생활 하면서 나를 추스를 수 있는 힘을 주는 활동 말이다. 곰곰이 다시 한 번 나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몇 개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가전제품을 안 쓸 때면 코드를 빼놓고 다니고 환경, 먹거리, 동물, 복지에 관한 책을 좋아한다. 종이컵을 안 쓰려고 텀블러를 갖고 다니고 휴지 대신 손수건을



쓴다. 차를 몰아본 경험이 오래고 운전을 제법 잘 한다는 소리를 듣지만 차를 사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살기 보다는 적당한 선을 지키며 소비하려고 노력한다.

고민을 통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지만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다. 내가 주로 힌트를 얻는 책에서는 그럴 때 직접 숲으로 들어가 살아보라고 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귀농학교 모집요강을 접하게 됐다. 다른 때는 스쳐 지났을 텐데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다 보니 보인 것이다. 용기를 내어 접수를 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어쩌나 싶은 우려가 있었지만 개강식이 기다려졌다.

첫 날,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자는 귀농학교의 취지를 접하고 마음을 놓았다. 귀농학교 21기 동기 중 대부분은 은퇴 후 귀농을 하려는 분들이 많았다. 나처럼 젊은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첫 수업에서 나는 왜 귀농을 하려는지, 나만의 귀농 철학을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환경과 소농, GMO, 생태건축, 귀농전략 등 귀농 귀촌 시 필요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접할 수 있었다. 수업마다 재미있고 배울 점이 많았다.

귀농학교를 다니면서 주말농장과 한해 벼농사 울력을 했다. 버스로 거의 두 시간이 걸리는 텃밭을 일만 없으면 조카들과 같이 뺨질나게 드나들었다. 주말농장에서 토종포 텃밭을 가꾸며 우리 종자의 작고 단단한 생김과 알찬 맛을 배웠다. 벼농사로 한해 농사를 쪽 지어보며 농사의 감각을 배웠다. 생소하고 힘들었지만 주말이 기다려지는 일이었다. 토종포 텃밭에서 먹은 야채는 맛이 달랐다. 향이 좋았고 고소했다. 작고 순한 맛이였다.

귀농학교에서는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귀농한 선배들을 찾아뵙거나 실



제로 흙 집을 짓는 분들 댁을 방문해서 일손을 돕기도 했다. 동기나 선배 집에 놀러 다니면서 시골에서 살고 싶은 바람은 더 커져갔다. 직접 담은 술, 직접 가꾼 밭에서 나는 풍성한 먹을거리,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손수 이곳저곳 꾸며 주인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집, 사람들과 어울리는 여유, 자연 가까이에서 즐거움을 함께하는 생활. 나도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이 안 생긴다면 이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 농촌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을 자신은 없었다. 아직까지 내게 농사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무작정 내려가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하다 또 포기할까 두려웠다. 내려간다면 제대로 준비 되어 있어야 했다. 도시에 한발을 담가 놓고 맛만 보면서 동경하는 게 아니라 직접 농촌에서 살고 싶었다. 그러자면 농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했다.

여러 사이트를 둘러보며 농촌 일자리를 찾았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볼까 생각했던 것도 이즈음이었다. 그러던 중에 진안군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활동가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보게 됐다. 진안은 마을만들기 철학을 갖고 10년 동안 절치부심 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다. 공연이 있어 일이 끝나는 대로 진안에 내려갔다. 하룻밤 자고 다음날 진안군 마을만들기 10년의 역사를 보면서 단박에 이거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란 확신이 들었다.

세상을 단박에 살기 좋게 바꾸는 일이 아니라 천천히,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그 시작이 농촌이고 경험과 역사가 있는 진안에서 시작한다는 부분에서 완전히 매료당했다. 지원서를 내고 순식간에 면접을 봤다. 이 분야에 경험이 없

지만 최선을 다해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너무 빠른 다짐이었지만 진심이 보였을까. 다행히 채용이 되어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다.



돈 벌기보다 꿈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일을 잘하고 싶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어떤 절박함 때문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게 즐겁고 기뻐지만 그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게 ‘나’를 만났다. 일이 재미있고 내가 마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쁜 마음 한편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자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걸 좀 내려놓을 수 있었다.

농촌에서 생활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차로 대표되는 기동성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차를 사지 않았다. 돈이 없고 환경적인 문제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거리를 이동하는 것만으로 차를 이용하긴 아쉽기 때문이다. 자동차로 이동하는 건 점과 점 사이를 잇는 것에 불과하지만 자전거를 타거나 걸으면 점과 점 사이로 수많은 선과 면이 펼쳐진다.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며 마을 분들께 인사하며 안부를 여쭙고 짐을 들어 드린다. 출근하면서 항상 만나는 분과 친해져서 그 집 개와 강아지를 알게 되었다. 얼마 전 그분께선 강아지가 좀 더 자라면 데려다 키우겠냐고 묻는다. 점과 점이 여러 갈래의 길로 확장되고 그 사이를 관계와 이야기가 채운다.

매일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안부를 묻는 이웃들 말고도 진안 생활의 즐거운 점은 더 있다.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받는 나를 들여다보며 좀

더 유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의 기술적인 면을 보완해주는 직장 동료의 존재. 이 분들은 사무실에서 커피를 타고 뒤치다꺼리하는 ‘여직원’이 아니라 ‘내 일’을 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일을 넘어서 삶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

일이나 관계뿐 아니라 자기계발도 시나브로 이루어졌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언젠가 글을 쓰고 싶었다. 물론 일이나 개인 공간에 쓰는 글은 있지만 원고료를 받거나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는 글은 아직 써보지 못했다.

이런 꿈을 주위에 말하고 다녔더니 곧 창간하는 단체 소식지에서 편집위원과 취재기자 역할이 주어졌다. 곧 소식지를 통해 내 글을 지면에 실는 영광을 얻게 될 것 같다. 앞으로 조금 더 역량을 키운다면 다방면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언젠가 어떤 분은 농촌에선 손톱만한 능력도 큰 쓸모가 있을 거라고 했다. 그 말이 맞다. 도시에서라면 손톱만한 능력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먹만한 능력을 가진 이들의 순번 맨 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농촌에는 기회가 많다. 귀농 귀촌하려는 분들은 돈 벌 기회가 아닌 자신의 꿈을 실현할 기회로 농촌을 들여다 봤으면 한다.



민들레 흙씨처럼 날아올라,
진안에 내리앉다



Q, 진안에 정착하게 된 이후 가장 좋은 점은?

진안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지구 협의회 사무국장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왔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보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더 컸다. 도전하는 모든 일이 즐겁고, 그간 가슴속으로만 아껴둔 작가의 꿈에도 한 발 다가섰다. 진안군귀농귀촌협의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삼백오십’ 1호의 필진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각박한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평화와 여유가 좋다. 또 자신의 작은 재능이 이곳에선 능력으로 인정받고,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날마다 행복하다.

Q,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골 생활, 불편하진 않나?

무릉도원 같은 고장에 산다지만 현실적인 불편함이 어찌 없을까. 자차가 없으니 버스 시간에 맞춰야 하고, 추운 겨울을 날 생각에 벌써부터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모두가 마음먹기 달렸다. “지금의 생활이 좋고 행복하지만, 불편한 점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걸 얻고, 느낄 수 있어서 불편한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마주하는 모든 풍경의 아름다움은 불편을 넘어서는 더 큰 기쁨이라고 한다.

Q, 성공적인 귀촌에 대해 말한다면?

“나에게 귀촌은 ‘기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고민하지만 생각보다 더더더(더욱 더) 많은 일들이 있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시골에 가면 할 일이 없을 거라고 편견에 생각조차 하지 않지만, 무궁무진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심씨의 조언이다. 다만, 시골은 도시에 비해 공동체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유대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단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바라기 보다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도시에서 지친 가족의 웃음 찾아
귀촌한 박인숙 씨 (전남 구례)

“살만하냐고 행복하냐고
지리산이 매일 묻지쇼”





온 가족이 식사 한 끼 함께한 날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우리 가족은 도시의
 삶에 지쳐 있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맞이한
 지리산에서의 귀촌. 아이들은 웃음을
 되찾았고 우리 부부는 이제 시골살림의
 깨알 같은 행복을 깨달아간다.

박인숙 씨의 귀촌이야기

- | | |
|----------------|---------------------------------------|
| • 귀촌 전 거주 지역 | 천안 |
| • 귀촌 전 직업 | 자영업 |
| • 귀촌 결심동기 | 휴식 |
| • 귀농귀촌 교육이수 실적 | 없음 |
| • 귀촌 연도 | 2012년 |
| • 귀촌시 나이 | 40세 |
| • 귀촌시 영농기반 | 없음 |
| • 현재 영농규모 | 없음 |
| • 연간 수익 | 없음 |
| • 향후 계획 |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온라인 상거래
병행하는 사업구상 중 |





운명처럼 우리 가족을 품어준 지리산

가을바람이 내 코끝을 간질이고 가을 향기가 짙어가는 아침, 나는 문득 구름에 가슴을 내어준 지리산을 바라보며 1년 전 나의 힘들었던 도시 생활과 귀촌한 생활들을 되돌아본다.

도시는 어찌 그리도 늘 바쁘게 흘러가는지 우리 가족은 시간의 흐름을 즐길 사이도 없이 하루하루 바쁜 도시 생활에 편승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아이들은 학교, 학원으로 이어지는 고난의 순례에 ‘당연히’ 라는 말로 합리화 하듯 각각의 삶에 지쳐 있었고, 우리 부부는 부부대로 돈이라는 허울에 갇혀 밤낮없이 돈을 벌어야 했다. 돈이 아이들 행복의 잣대 인양 위안 삼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돈이란 것은 이상하게 많이 버는 만큼 행복도 저 멀리 사라져 가는 듯 했고 우리 가족 역시 화려한 도시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이 따스한 밥 한 끼를 언제 함께 했는지 가물가물한 날이 계속될수록 점점 도시를 떠나고 싶었다.

그런데 운명이었을까? 어느 날 지친 마음으로 찾아간 지리산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 주었다.

모든 것을 가슴으로 품어 줄 것 같은 지리산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했고 우리 가족을 위로라도 하듯 그 넓은 품으로 품어 주었다.

늘 생각만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시골에서의 삶인 귀촌.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명제로 가족회의를 거쳐 지리산 근처에 집을 구하기로 했다. 그렇게 한 달을 넘게 도시와 지리산을 오가며 집을 보러 다녔다. 그 한 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고 즐거웠다.

그렇게 살 집을 찾아 헤매던 우리 가족은 마침내 좋은 분과의 인연으로 구례에 집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체험하면서 자연을 느끼고 인성을 찾을 수 있는 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 정부에서 시골 학교를 살리기 위해 ‘무지개학교’라는 곳을 지정하여 지원해 주니 더욱 더 마음에 들었다.



나무 두 그루 베었다가 동네 노여움 사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 구례. 우리 가족의 제2 인생이 펼쳐질 구례에서 나는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이사 가야 할 집은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한 달 여 동안 청소와 집수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다. 무성하게 자란 텃밭 잡초를 손수 뽑으면서도 여기에 심어 얻어질 많은 건강한 먹을거리들을 생각하니 힘든 것도 몰랐다. 내 손으로 텃밭을 일군다는 것은 도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삶이었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데 사건이 터졌다. 무슨 나무인지 이름도 모르는 두 그루의 큰 나무가 텃밭을 가리고 있어 우리 부부는 힘들게 나무를 잘랐다. 그런데 다음날 동네 어른 어머니 여러분이 화를 내시며 우리 대문으로 들어오셨다. 화가 나신 원인은 두 그루의 나무를 베어 버린 것 때문이었다.

도시에서만 산 우리 부부는 동네 어머니들을 이해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분들은 자연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고, 그 자연이 모두 자식 같은 존재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화를 내신 것 같았다.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도시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어머님들.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에 감사하는 삶. 어느 것 하나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숙연해지며 죄송하고 어리석은 우리 부부가 부끄러웠다.

도시에서는 너무나 쉽게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 부부는 시골에서는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한 작은 물건 하나라도 허투루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추억이 되고, 그 물건 하나하나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우리 부부는 깨달았다. 시골에 와서 처음으로 배우는 한 조각의 삶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도시 부부가 와서 의논 하나도 안하고 마구 베어버린 그 아까운 두 그루의 나무가 얼마나 안타깝고 아끼웠으면 정녕 그 나무가 내 것도 아

니었는데도 이렇게 화를 내시는 심정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시간은 흘러 집 정리도 많이 됐고, 우리 부부가 시골에 처음으로 와서 텃밭에 심은 배추, 파, 시금치, 고추, 상추들이 커 갈 때 마다 신기하고 마냥 어린아이처럼 신났다. 그렇게 텃밭에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 가족들도 한 걸음씩 자연과 더불어 행복이라는 삶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아이들의 편안한 표정에서 찾은 행복

그렇게 새로운 삶에 적응이 되어 갈 때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막내아들은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갈 때는 옷으



면서 나간다. 도시에서는 학교 가기 싫다고 노래를 부르던 녀석이 이제는 학교가 재미있고 친구들이 좋다면서 재잘 거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도시에서는 유일한 친구가 게임이었고 컴퓨터뿐이었는데 여기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모습의 자연과 함께 선생님과 같은 반 아이들 모두 소중한 친구들이다.



아들이 좋아하는 강아지를 여기서는 마음대로 키울 수 있어서 강아지랑 함께 신나게 뛰어 노는 것이 아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

첫째 딸아이는 도시에서 사춘기로 인해 부쩍 짜증과 늘 반항하는 모습이 많아 내 가슴을 아프게 하더니 여기 와서는 자기의 확고한 진로의 길을 찾았다.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을 자기의 꿈으로 정한 딸은 늘 자연을 그리고 지리산을 그린다. 조용한 시골에서 마음을 수양하듯 그림을 그려서 일까? 딸의 얼굴이 이제 많이 편안해 졌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넉넉한 마음을 주는 것 같다.

딱 짜인 도시에서의 삶을 뒤로 하고, 조금은 부족한 시골에서의 삶에 어느덧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니 행복이 차츰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도시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의 자살과 왕따에 관한 뉴스들로 넘쳐난다. 그것이 이제는 커다란 사회 문제이지만 아직 꽃도 다 피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해야만 했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또한 삶의 무게에 지친 어른들도 그 나름의 고민으로 인하여 자살을 결심한다. 과연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야 하는가? 우리들 모두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지금도 삶에 지친 분들에게 늘 그 자리에 있는 자연으로 돌아가길 조심스레 권해 본다. 자연이 모든 해답은 될 수 없어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치유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돈이라는 허울에 갇혀 자연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외면하면서 도시 생활에 길들여져 하루하루 여유 없이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가을빛에 잘 익은 감 같은 행복

지리산은 매일 내게 인사한다. 잘 지냈냐고, 살만하냐고, 그리고 행복하냐고?

오늘도 한 걸 같이 이웃집 유씨 할머니는 텃밭에서 잡초를 뽑고 계신다. 어제는 시금치 씨앗을 가져 오셨다. 텃밭에 심으라고. 여든이 넘은 할머니는 늘 건강하게 활동하신다. 동네의 모든 어머니들께서 배추며 상추며 파 각종 씨앗과 모종들을 가져 오신다. 아직도 게을러서 잡초를 제대로 뽑지 않고 놓고 있는 땅이 안타까우셨을 것이다. 평생을 흙에서만 사신 어른들의 눈에는 도시에서 온 우리 부부가 맘에 들지 않은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래도 자연이 품어준 품처럼 동네 어머님들도 우리를 품어주신다. 감사할 따름이다.

주신 씨앗을 들고 텃밭에 나간다.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으면서 흙냄새를 맡아

본다. 살아 있는 삶의 냄새가 난다. 흙에서 바람에서 돌에서 살아있는 자연의 숨결을 느끼며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나의 모습에 그리고 우리 가족모습에 감사한다.

행복이란 어디에 있는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시골 생활도 쉽지는 않다. 도시에서만 살아서 시골 생활을 전혀 알 수 없어 두렵기도 하다. 그리고 시골 생활을 그저 낭만으로 생각했다가 부족하고 불편한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도시로 가는 경우도 많다.

그래도 행복을 찾고 싶다면 노력을 해보아야 한다. 실패를 걱정하며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는다면 행복은 결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후 내내 조용하던 대문 앞이 시끌시끌하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 녀석이 행복한 얼굴로 엄마를 부르고 있다. 골목길 바둑이 할머니께서 감을 주셨다면서 가을빛에 잘 익은 먹음직한 감을 품에서 꺼내 보이며 환하게 웃는다. 그 감이 어찌 그리 예쁘고 곱던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 얼굴과 꼭 닮아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아이들에게 고향을 만들어주다



Q. 수기 속의 ‘나무 사건’의 진상은?

“도시의 기준으로 보면, 내 나무 내가 베는 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잖아요.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오랜 시간동안 집을 지켰던 나무는 자연의 일부인데, 함부로 베는 것이 문제였다. 다행히 ‘서울살이’만 해서 모르는 게 많으니 가르쳐 달라고 사죄를 드리면서 어렵게 마음을 풀어드렸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박씨 부부가 베 나무는 약용작물로 알려진 가시오갈피 나무였다고 한다.

Q. 귀촌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한 달 동안 지리산 주변을 모두 둘러봤다. 가격과 주변 환경, 아이들 학교를 고려해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를 선택했다. 계약금 지불을 앞두고 서류상 오류를 발견했다. 토지와 건물은 소유자가 달랐던 것이다. 하마터면 남의 땅에 집만 사서 수리하게 될뻔 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다. 작은 필지별로 쪼개진 지적도를 일반인이 얼핏 봐서는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등기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집을 구입할 수도, 이사를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아닌가. 소유자로 등재된 땅 주인은 앞집 이웃인데 흔쾌히 명의이전을 해주셨다.

Q. 귀촌하고 가장 좋은 건 무엇인가?

정말 행복하다. 6년 동안 자영업을 하면서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은 적도, 한 집에서 나란히 잠든 적도 없었다. 돈은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해체 직전이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싫어했고, 방황했다. 초등학생 아들은 아빠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니 아빠를 무서워하고 피했다. 아빠가 꾸지람이라도 할라치면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몹시 두근거렸다고 말했을 정도다. 하지만 이제 남편과 아들은 친구처럼 가까워졌다. 거창하게 귀촌이라고 하기도 민망하지만 이사하고 일 년 반 동안 아무런 일도 안했다. 오로지 가족이 함께 ‘힐링’만 했다. 정말 가슴속 깊이 부터 행복하다.

가게
사고
가게
이고



Part * 03

귀농·귀촌 정보

나에게 귀농·귀촌이란?

귀농·귀촌 교육과정 안내

귀농·귀촌 유관기관 안내

나에게 귀농·귀촌이란?

나에게 귀농이란, '결혼'이다!

남편과 결혼할 때 모든 주변이 바뀌었듯이
귀농으로 또 한번 인생이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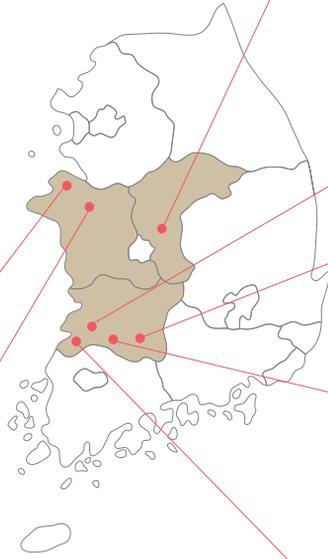
박중애★괴산

나에게 귀농이란,
평생직장이다!

농업은 고용불안정 없는,
튼튼하고 탄탄한 일자리다.



이규호★당진



나에게 귀농이란, 꿈의 실현이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남편은 언제나
막연한 농부의 꿈을 이야기 했었다.
지금은 그 꿈을 이뤘다.



이미숙★예산



황선기★정읍

나에게 귀농이란,
전도유명한 미래다!

농업의 발전가능성을 발견,
미래에 대한 투자와 도전이었다.



김소연★남원

나에게 귀농이란,
든든한 노후를 위한 미래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노력하는 만큼 값진 열매를 맺는다.



김종운★순창

나에게 귀농이란, 다시 사는 삶이다.

귀촌 당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팠지만, 지금은 건강도
회복하고 일도 할 수 있게 됐다.



송인보★고창

나에게 귀농이란, 즐거운 노동이다!!

시골로 내려와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게 됐다.

나에게 귀농이란,
건강한 먹을거리만큼 건강한 미래다

유기농 먹을거리,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고민을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인자★순천

나에게 귀농이란, 기회의 연속이다!

도시에서 생각할 때 시골에서는 청년들이 할 일
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기회도 많이 찾아온다.



심수진★진안

나에게 귀농이란, 온전한 행복이다.

가족이 함께하면서 매 순간마다
행복하다고 느낀다.



박인숙★구례

나에게 귀농이란, '일' 이다.

자연과 동화되어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박진아★함양



신희정★양평

나에게 귀농이란, 일상이다!

귀농귀촌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선택한 삶이 아니라, 결혼과 함께 시작된 일상이기 때문.

나에게 귀농이란, 인생 2막을 열어갈 두번째 꿈이다.

정년퇴직 후 고향에 돌아와 새로운 인생을 꾸려나가는 삶의 2막인 것이다.



윤석은★봉화

나에게 귀농이란, 제대로 사는 것이다.

진짜, 사람처럼 사는 것이다.



박혜균★영덕

나에게 귀농이란, 삶 자체다!

다 비우고 내려왔던 제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상이 됐다.



제주★이천수 씨



2013년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농어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로그인 한 후, 검색창에 「귀농교육」을 검색하시면 귀농·귀촌에 필요한 품목기술 교육부터 기초 마인드 교육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농어업인력포털\(www.agriedu.net\)](http://www.agriedu.net)

귀농·귀촌 온라인 교육과정



필수 과정 (6개)

- 자신의 능력을 활용한 귀촌
- 귀촌생활! 성공노하우 전수받기
- 품목별 창업노트
- 농업, 경영을 만나다
- 농업 비즈니스 창업레포트 등

추천 과정 (19개)

- 귀농 희망지역을 찾아라
- 전업농의 신전원일기
- 효과적인 퇴비제조 노하우
- 한결이네 귀농일기(귀농전, 후)
- 창업농의 성공비법 노트 등

품목기초 (48개)

- 축산 (흑염소, 한우, 젓소, 육계, 오리, 양봉, 산란계, 사슴, 돼지 등)
- 채소 (토마토, 참외, 오이, 양배추, 애호박, 쪽갓, 수박, 상추, 부추, 버섯, 배추 등)
- 과수 (포도, 사과, 블루베리, 배, 매실 등)
- 약용작물 (오가피, 복분자, 마, 도라지, 구기자, 콩 등)
- 식량작물기초 (고구마, 감자, 옥수수, 보리, 벼 등)

※ 단, 온라인교육은 귀농귀촌 정책자금 신청자격 교육이수 시간의 50%만 인정됨

>>> 온라인(Agriedu) 교육과정 신청방법

01 회원가입

주소창에 www.agriedu.net를 검색한 후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한다.

02 로그인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신의 ID,PW를 입력한 후 로그인 한다.

03 귀농교육 검색하기

로그인이 되었으면 메인화면 상단 검색창에서 '귀농교육'을 입력한 후 클릭한다.



04 세부과정 검색하기

온라인 교육 검색결과가 나오면 과정명을 참고하시어 원하는 과정명 선택, 상세 과정정보 확인 후 외부신청 버튼 클릭!



05 교육수강신청

수강신청을 위한 온라인 교육서비스 페이지로 이동, 교육정보, 학습목차, 맛보기 등을 통해 과정 상세 내용을 살펴 본 후 해당 교육과정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교육을 수강한다.



오프라인 교육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귀농·귀촌 전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중입니다.
교육분야는 교육방법 및 형태에 따라 구분되며 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어업인력포털(www.agriedu.net)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귀농귀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은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세부사항은 2014년 1~2월부터 안내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력육성팀(031-460-8925/8928/8930)

귀농·귀촌 유관기관 안내



귀농·귀촌 종합센터 1544-8572

www.returnfarm.com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정보탐색부터 정착 단계까지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인터넷 기반의 귀농·귀촌 종합정보제공
- 농가주택, 컨설팅, 농지정보 등 다양한 정보제공
- 귀농·귀촌인에 대한 DB 구축 및 후속관리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 귀농·귀촌 정책 및 제도 수립, 총괄 관리

농촌진흥청 www.rda.go.kr

031-299-2200

- 품목별 농업기술정보 및 지역별 농업정보

웰 촌 www.welchon.com

1577-1417

귀농·귀촌정보, 농촌체험여행, 전원생활

- 농산어촌체험마을 및 체험행사 소개, 체험/관광 지역정보제공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02-2076-5922

- 자치단체 조례 정보 등

농어업인력포털 www.agriedu.net

031-460-8925, 8928, 8930

- 농업·농촌관련 교육 포털사이트
- :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 : 귀농·귀촌 Q&A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농협 www.nonghyup.com

02-2080-7583

- 귀농귀촌 정책자금 지원 및 상담

농지은행 www.fbo.or.kr

1577-7770

- 농지, 농촌시설 매물 소개, 농지시세 정보제공, 농지임대 등

지역별 귀농·귀촌 정보

- 시·군·구별 귀농·귀촌 지원 정보 등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농식품 행정을 뒷받침하고 지식과 정보 융합을 통해 농정의 품질과 가치를 높이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농식품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정보 전문기관으로써 농어업 경영혁신과 농어촌 가치 확산으로 경쟁력 있는 농어업, 행복한 농어촌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식품지식정보 서비스 'OkdabCEO' 소개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기름진[옥답], 농식품 CEO를 위한 정보와 네트워크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옥답CEO (www.okdabceo.com)



홈페이지



휴대폰



PUSH-MAIL 서비스

- 대상 : 농식품 경영체 리더 및 농식품 관련기관, 공무원 등
- 목적 : 농식품 분야 경영리더들의 지식역량 강화
- 서비스 :
 - 홈페이지·휴대폰을 통한 일 3~4편 신규 콘텐츠 및 Push-mail 서비스(8분 내외)
 - 식품맛 등 7개 메뉴, 총 4,594개 콘텐츠가 누적(667개 농식품 특화 콘텐츠)
 - ※ ① 식품맛 ② 비즈니스窓 ③ 리더십通 ④ 마케팅感 ⑤ 트렌드新 ⑥ 웰빙樂 ⑦ 명강사초대석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삼성경제연구소(SERICEO)가 공동 협력하여 콘텐츠 제작·운영 전문·지식정보 제공을 위해 농식품 관련 기관(18개)과 협력 추진
 - 다양한 분야의 농식품 전문 기관과 업무협력 또는 공동제작을 통해 특화 콘텐츠 확대 OkdabCEO 사이트 웹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